



13·5 계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이현태 · 이상훈 · 김준영 · 윤규섭

13·5 기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이현태 · 이상훈 · 김준영 · 윤규섭

연구자료 17-09

13·5 기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인 쇄 2017년 11월 7일
발 행 2017년 11월 10일
발행인 한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8, 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북마을 T. 042-632-3134

©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444-2 94320
978-89-322-2064-2 (세트)



국문요약

중국 동북지역은 지리적 인접성, 언어·문화적 유사성, 풍부한 자연자원, 발달된 제조업 및 교통 인프라, 확대되는 소비시장,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대북한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동북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무역·투자 등 한·동북의 경제 교류는 크게 줄어들어 한·중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에 봉착해 있다. 이런 경제 교류의 위기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동북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면서도 2017년 한국정부가 내세운 신북방정책이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중요한 협력 거점이기 때문이다. 우선 동북지역의 최근의 경제상황 및 정책동향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한·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현황을 정리하고 발전 장애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13·5 계획 시기 한국의 대동북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 볼 것이다.

동북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지역에 비해 공업 부문과 대외개방의 발전이 지체되면서 2000년대 초까지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동북지역의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진기술을 갖춘 신흥 산업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북진흥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4~13년 동북지역의 경제는 연평균 12.7% 성장하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 시기 성장을 이끌었던 동력은 2차 산업 위주의 투자였다. 다만 산업의 주축인 공업 부문은 국유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아 이윤율 하락이 지속되었다.

산업으로 보면 동북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등 대체로 저위기술 업종이 주력산업이며 2000년대 이후에

고위기술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산업고도화가 지체되고 있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동북은 지리적 조건과 산업 구조적 특징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이룬, 무역의존도가 낮은 지역이다. 동북의 중국 내 교역 비중은 4% 전후이며 이는 8% 내외의 GDP 비중을 크게 하회한다. 기술 수준별 수출구조를 보면 최근 들어 중고위기술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저위기술 산업에서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에도 중위기술 산업에서 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업종에서의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이후 중국경제 전체가 신장타이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경우 중국경제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점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6년 체제 개혁, 구조조정 추진, 혁신창업의 장려, 민생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신동북진흥정책을 발표하였다. 큰 틀에서 볼 때 새롭게 발표된 신동북진흥정책은 구동북진흥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개혁과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국유기업 및 행정 시스템의 개혁, 시장화 개혁 등 경제의 효율 증진과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투자환경 개선,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확대, 제조업 혁신 및 고도화, 대외개방 플랫폼 구축 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신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동북 3성은 과거 투자를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향후 시장화 진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과 질적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한·동북 간의 무역, 투자, 현지 진출

기업의 성과 등 경제교류 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무역의 경우 증속성장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연평균 0.86%씩 감소하였다. 유기화학물(HS 29)을 제외한 주요 품목들의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단일품목(유기화학물) 위주로 수출이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는 2012~16년 7억 7,000만 달러(연평균 1억 5,000만 달러)로 2007~11년 총투자액 26억 9,000만 달러(연평균 5억 4,00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같은 기간 대중국 총투자액이 소폭 감소한 것과 다른 흐름으로 증속성장기 동북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다. 업종별로는 2007~11년 제조업 총투자액은 11억 9,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3억 7,000만 달러였으나, 2012~16년에는 제조업이 6억 5,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억 2,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업종을 막론하고 투자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같은 기간 대중국 투자에서는 업종별 투자액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무역·투자 교류에서의 부진과 함께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 악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 주요 산업인 대형 자동차사의 부품공급 업체로 진출한 후 성공적으로 안착한 몇몇 자동차부품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들은 정상적 경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동북 3성 자체의 문제인 ① 자원 중심, 중공업 위주의 국유기업 중심의 한 경제구조로 시장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부족 및 기업 경영 환경 열악 ② 타 지역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고 서비스업이 미발달되어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별로 없는 등 경제의 역동성 부족 ③ 금융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 부족 ④ 각급 지방정부 정책의 임의성·가변성이 높아 정책 실행의 간소화·표준화·투명도 부족 ⑤ 대외 개방도가 낮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도적·체계적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도 진출 기업 자체의 문제인 ① 현지 문화·제도·정책에 대한 이해(현지화) 부족 ② 우대정책 약화 및 규제 강화 ③ 원가율(원료비·인건비) 상승 ④ 자국 기업 우대 및 중국 기업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저하 ⑤ 중국 내 유관 정책 실행의 일관성 부족 ⑥ 경제 외적(정치적) 문제의 영향 ⑦ 금융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현지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 ⑧ 자체적인 중국시장의 진출 전략 및 시장개척 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중국 및 동북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경우에도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현지은행과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발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계 은행의 발전 장애 요인으로는 ① 현지은행으로서의 자리매김(positioning) 및 현지화의 한계 ② 중국 시스템 리스크 수용의 어려움 ③ 엄격한 감독기관의 규제 및 관리정책 ④ 한국계 기업의 축소 및 진출 감소 등이 지적되었다.

상술하였듯이 동북의 경제·산업과 한·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듯이 현재 동북 경제의 침체 국면은 한국에 새로운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동북 경제의 침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2016년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종합판인 13·5 계획을 제시하는 등 동북의 침체 국면 타개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新)북방정책 등을 새로 제시하는 가운데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핵심인 동북지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완화 가능성을 염두

에 두고 '1단계(자강): 기동북 진출 기관 및 기업들의 경제협력 모델 및 플랫폼 혁신 및 정비', '2단계(능동적 대응): 신(新)동북진흥정책 전개에 따른 능동적 편승', '3단계(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 3성 발전 융합):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동북 3성과 남북경협 연계'로 나누었다. 단계별 전략에 기반을 두고 아래와 같은 세부 정책들을 강구했다.

단기적으로 대동북 경제협력의 우선 과제는 기존에 중국 동북에 진출해 있는 기관 및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대(對)중국 동북 3성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고안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 신동북진흥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북지역 내 신흥 성장 산업과 한국 진출 기업간의 매칭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 당국에서 이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교류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아울러 신동북진흥전략 추진을 위한 한·중 동북 금융협력을 모색하고 동북경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연구센터(혹은 협의회)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이후 한국-동북 3성의 육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보다 광역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남·북·중 협력을 통한 북한 공동 개발 방안, 동북지역을 한국의 대(對)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을 위한 교두보로 상정하여 협력 전략을 구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발맞추어 환황해 지역과 환동해 지역에 각각 압록강·두만강 국제관광지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 후에는 한반도 북방지역에 초국경 산

업벨트를 구축하는 작업도 시도할 수 있다.

지금은 동북 경제가 침체되고 한·동북 경제협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나 중국의 신동북진흥정책·일대일로 구상이 발표되고 있고 동북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 또한 동북은 한반도·러시아·몽골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요 접경 지역으로 미래 통일한반도 구상을 위해서도 쉽게 협력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즉 현재 동북지역의 경제적 침체에도 한국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협력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에 한국의 신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고 한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와 인프라 협력을 통한 한반도·유라시아의 연계성(connectivity)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다.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은 궁극적으로 무역·투자·산업 협력으로 이어져 역내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과거처럼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국제협력으로 나아가려면 충실한 지역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제안한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 방법	1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제2장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및 정책 동향	24
1.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현황	24
가. 경제 성장	24
나. 대외 개방 및 협력	35
다.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47
2. 동북지역의 산업 구조	51
가. 산업별·업종별 구조	51
나. 지역별 비교우위산업	57
3. 최근의 정책 동향	59
가. 동북진흥 13·5 계획	59
나. 지역별 13·5 계획	68
다. 주요 개방정책	72
라. 평가: 구동북진흥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74
제3장 한국과 동북 3성의 경제협력 현황	79
1. 무역·투자 현황	79
가. 무역	79
나. 투자	87

2. 기업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95
가. 진출 기업의 경영 현황	96
나. 발전 장애 요인	98
다. 진출 지역 상황	101
3. 은행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105
가. 중국 진출 경영 현황	106
나. 동북 3성 진출 현황	109
다. 발전 장애 요인	109
4. 동북지역의 국제 경제협력: 일본과 러시아의 사례	112
가. 일본	113
나. 러시아	115
다. 소결	120
제4장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	121
1. 대(對)중국, 동북 3성 경제협력 방향	121
가. 한국의 대(對)중국 협력 접근법 혁신	123
나. 정치외교 리스크 상시 대비	124
다. 한국 비즈니스 프렌들리 문화 퇴색	125
라. 중국 전체-지역별 맞춤형 투 트랙 대응	125
2. 대동북 경제협력 전략	126
가. 단기·중기 정책	129
나. 장기 정책	134
제5장 결론	138

참고문헌 142

보론

동북 3성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분석 147

Executive Summary 157



표 차례

표 1-1. 동북지역 관련 주요 선행연구	20
표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동북지역 관련 연구	21
표 2-1. 동북지역의 주요 교역국	37
표 2-2. 중국 및 동북 3성의 업종별 대세계 수출 구조	39
표 2-3. 중국 및 동북 3성의 업종별 대세계 수입 구조	41
표 2-4. 중국 및 동북 3성의 가공단계별 대세계 수입 구조	43
표 2-5. 중국 및 동북 3성의 업종별 대한민국 수입 구조	44
표 2-6. 중국 및 동북 3성의 가공단계별 대한민국 수입 구조	46
표 2-7. 중국 및 동북지역의 업종별·기술 수준별 비중	54
표 2-8. 동북 3성의 지역별 주도산업	56
표 2-9. 동북 3성 각 지역의 업종별 입지계수(LQ)	58
표 2-10. 동북지역의 경기 진작과 관련한 주요 정책	61
표 2-11. 동북지역의 산업 구조 고도화 추진 상황	66
표 2-12. 랴오닝성의 산업 구조 고도화 관련 주요 정책	69
표 2-13.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역별 주력산업	74
표 2-14. 동북진흥 12·5 계획 및 13·5 계획의 주요 내용 비교	77
표 3-1. 한국의 대동북 수출입액 추이	80
표 3-2. 한국의 대동북 3성 10대 수출입품목(2007~16년)	83
표 3-3. 대동북 3성 주요 수출품목의 비중 변화	84
표 3-4. 대동북 3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액 변화	84
표 3-5. 대동북 3성 주요 수출품목의 변화	86
표 3-6. 동북지역 성별 직접 투자 및 비중 변화	89
표 3-7. 한국의 대동북 3성 업종별 투자 추이	90
표 3-8. 한국의 대동북 3성 상위 5대 제조업 투자업종(2007~16년)	91
표 3-9. 대동북 3성 제조업 주요 투자업종의 변화	92

표 3-10. 한국의 대동북 3성 상위 5대 비제조업 투자업종(2007~16년) ..	93
표 3-11. 대동북 3성 비제조업 주요 투자업종의 변화	94
표 3-12. 동북 진출 주요 한국 기업의 경영 현황(2016년 기준)	97
표 3-13.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주요은행의 경영 현황	108
표 3-14. 우수리스크 중국 산업공단	117



그림 차례

그림 2-1. 동북 3성의 경제 규모 및 비중, 성장률 추이	26
그림 2-2. 전국대비 동북지역의 경제 비중	27
그림 2-3. 동북지역의 산업별 성장률 추이	28
그림 2-4. 중국 및 동북 3성의 경제 규모 성장 추이(2003년=100)	29
그림 2-5. 중국 및 동북 3성의 산업별 성장기여율 추이	30
그림 2-6. 중국 및 동북 3성의 주요 부문별 비중	32
그림 2-7. 전국 및 동북지역의 주요 부문별 성장기여율	32
그림 2-8. 주요 산업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34
그림 2-9.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및 GDP 대비 비중 추이	34
그림 2-10. 동북지역의 교역 비중 및 무역의존도	36
그림 2-11. 동북지역의 교역 규모 및 증감률 추이	36
그림 2-12. 동북 3성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 비중 및 증가율	47
그림 2-13. 공업 부문에서의 국유기업 비중	48
그림 2-14. 동북지역 공업기업의 자산수익률 및 총자본회전율	49
그림 2-15. 중국 및 동북지역의 산업별 비중 추이	52
그림 3-1. 한국의 대동북 무역 추이	80
그림 3-2. 한·동북 상호 무역 비중 추이	80
그림 3-3. 주요국의 대랴오닝성 수출품목 집중도 추이(CR ₃ 기준)	85
그림 3-4. 대동북 3성 직접투자 추이	88



보론 표 차례

보론 표 1. 동북 3성의 경제 상황	150
보론 표 2. 일반예산 수입 현황(2015년)	151
보론 표 3. 지방채권 발행 현황	151
보론 표 4. 랴오닝성 도시별 PPP 진행 상황	152
보론 표 5. 지린성 도시별 PPP 진행 상황	153
보론 표 6. 헤이룽장 도시별 PPP 진행 상황	154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본고의 연구 대상은 중국 동북지역이다.¹⁾ 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을 포함하는 동북은 한반도·러시아·몽골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요 접경 지역이다. 주장삼각주, 창장삼각주, 환발해 지역에 이은 4대 경제권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차항출해(借港出海, 항구를 빌려 동해로 진출)’ 정책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언어·문화가 유사한 중국동포가 많은·중 수교 초기 한국의 무역·투자 진출이 활발했던 곳이다. 그러나 점차 연해지역에 밀려 그 위상이 하락하였고 지금도 경제 교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한 편이 아니다. 그러나 풍부한 자연자원, 발달된 제조업 및 교통 인프라, 확대되는 소비시장,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대북한 교역중심지로서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다.

또한 동북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구현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다. 2017년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통해 한반도·유라시아 지역 간 연계성을 증진시킬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²⁾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주로 북한 및 동북과의 인프라 및 에너지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무역·투자 등 다양한 경제협력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도 동북과 직결되는 중·몽·러 회랑을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경제회랑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지역 내

1) 2007년 「동북지역 진흥 종합계획」에 네이멍구가 언급된 후 동북지역에 네이멍구 북부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전통적으로 동북지역으로 인식되는 세 개의 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최지원 (2017. 8), 「중국 동북진흥정책 성과 평가 및 신정책 방향 분석」, p.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제협력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지역이 한·중 경제협력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다.

신동북협력전략 연구는 현재 중국과 동북의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기에 더 필요하다. 고속성장을 거듭하던 중국은 2012년 이후 6~7%의 성장률에 머물면서 중속성장시대³⁾로 진입하였다. 동북지역의 성장률 저하는 더욱 심각해서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신동북현상).⁴⁾ 동북지역이 산업 구조, 기술 수준, 대외개방 등에서 다른 지역에 낙후되었기에 벌어진 일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6년 중국정부는 13·5 신동북진흥전략, 동북 3성 성별 전략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신지역경제발전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동북의 구조적·정책적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동북진출 방안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 무역, 투자, 정부 간 협력 등에서 기존 방식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신북방정책 구체화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는 한편 동북지역의 경제적·정책적 변화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동북·대중국 진출전략을 새롭게 제안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먼저 동북의 거시경제, 산업 구조, 무역구조, 한국·동북 무역 및 투자 상황을 각종 데이터 분석으로 파악한다. 「동북진흥 13·5」 등 신동북진흥전략 정책 분석을 위해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 문건, 현지 언론자료, 관련 논문 등을 수집하고 현지 전문가(중국 발전개혁위원회 동북진흥사, 랴오닝·지린성 사회과학원 연구자 등)와의 정책협의회의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인다.

3) 논자에 따라 신창타이(新常态, 신상태), 뉴노멀(new normal), 중고속성장기로 부르기도 한다.

4) 특히 랴오닝성은 2016년 성장률 -2.5%로 31개 성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최지원(2017. 8), 「중국 동북진흥정책 성과 평가 및 신정책 방향 분석」, p.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기업의 동북지역 진출 현황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직접 동북을 방문하여 진출 기업들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한다(다롄, 단둥, 창춘, 선양 등의 한인상회 및 기업인 모임). 또한 외부 필진으로 한국 기업인(지린은행 윤규섭 부행장)이 직접 참가하여 한국 기업 심층 인터뷰, 재무제표 분석 등을 통해 진출 현황, 애로점, 개선방안 등을 살펴본다. 외부 필진의 가세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제 산업협력이나 진출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이현주, 이상준, 이백진(2016), 이문형 외(2015), 원동욱 외(2013) 등이 있다(표 1-1). 이현주, 이상준, 이백진(2016)은 북방지역의 산업 구조와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초국경 산업벨트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문형 외(2015)는 동북의 경제환경, 산업정책, 산업 구조, 기업동향, 시장동향, 한국과의 무역·투자현황 등을 분석하여 경제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원동욱 외(2013)는 동북지역 개발정책, 교통물류 인프라, 산업의 특성 및 발전 전망, 도시화 현황 및 전망 등을 분석하고 동북지역 개발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동북 내 교통 인프라와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제성훈 외(2016), 이현주 외(2016), 김천규 외(2014), 张楠, 胡冰(2013) 등이 있다(표 1-1). 제성훈, 나희승, 최필수(2016)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중·몽, 러·몽 경제협력 현황을 분석한 후 한국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현주 외(2016)도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 현황, 개발계획, 진행사업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의 초국경 개발협력 참여전략을 도출하였다. 김천규 외(2014)는 두만강 유역에서의 초국경 협력사업을 선정하고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중국 연구자인 张楠, 胡冰(2013)는 지린성

훈춘국제협력시범구의 설립배경, 추진현황, 산업배치, 인적자원 및 인프라 상황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1-1. 동북지역 관련 주요 선행연구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개요	연구방법	주요 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산업벨트 구상 연구 · 연구자: 이현주, 이상준, 이백진(2016)	· 전문가 협동연구 · 문헌 및 정책 검토 · 국제세미나 개최 · 전문가 자문	· 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산업벨트의 구축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초국경 산업벨트 구축방안을 제시함.
	2	· 과제명: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 산업별 진출전략 · 연구자: 이문형 외(2015)	· 문헌 및 통계 분석 · 전문가 자문 · 기업 설문조사	· 동북의 경제환경, 산업정책, 산업구조, 기업동향, 시장동향, 한국과의 무역·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협력 방향을 도출함.
	3	· 과제명: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연구자: 원동욱 외(2013)	· 문헌연구 · 관계자 인터뷰 · 협력사례조사 · 전문가 협동연구	· 동북지역 개발정책, 교통물류 인프라, 산업의 특성 및 발전 전망, 도시화 현황 및 전망 등을 분석하고 동북지역 개발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활용방안을 제시함.
	4	· 과제명: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 연구자: 이현주 외(2016)	· 문헌 및 통계 분석 · 전문가 원고 청탁 · 현지정책협의회개최	· 중·몽·러 경제회랑의 주요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개발계획과 사업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의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도출함.
	5	· 과제명: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잠재력과 한국의 연계 방안 · 연구자: 제성훈 외(2016)	· 문헌 및 통계분석 · 전문가 협동연구	·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중·몽·러 경제협력 현황을 분석한 후 한국의 활용방안을 제시함.
	6	· 과제명: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 연구자: 김천규 외(2014)	· 문헌 및 통계 분석 · 전문가 원고청탁 · 전문가 설문조사	· 두만강 유역에서의 초국경 협력사업을 선정하고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함.
	7	· 과제명: 中国图们江区域珲春国际合作示范区发展现状以及问题研究 · 연구자: 张楠, 胡冰(2013)	· 문헌 연구 · 정책 분석	· 지린성 훈춘국제협력시범구의 설립배경, 추진 현황, 산업배치, 인적자원 및 인프라 상황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자료: 위 선행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구성.

세계 지역 연구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에서도 동북지역에 대한 여러 연구를 해 오고 있다. 먼저 최지원(2017)은 기존 동북진흥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신동북진흥정책의 주요 내용, 향후 전망을 분석하였다. 임수호 외(2017)는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 및 한국과의 협력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경제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장호 외(2016)는 중국 동북-북한-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초국경 인프라 구축상황을 점검하고 재원 조달 현황 및 방식을 고찰하였다. 이상훈, 허유미(2016a)는 동북 3성 지역에서 발표한 13·5 계획의 주요 내용과 핵심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 전망과 함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밖에도 라오닝성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로 이상훈, 허유미(2016b), 이상훈, 허유미, 최지원(2015) 등이, 동북진흥전략 10주년 평가와 동북 3성의 한·중 수교 25주년 평가를 다룬 연구로 김부용, 임민경(2013), 김부용, 임민경(2012) 등이 있다.

표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동북지역 관련 연구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개요	연구방법	주요 내용
KIEP 주요 연구	1	· 중국 동북진흥정책 성과 평가 및 신정책 방향 분석 · 연구자: 최지원(2017)	· 문헌 및 통계분석 · 기존 동북진흥정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신동북진흥정책의 주요 내용, 향후 전망을 분석함.
	2	· 과제명: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 연구자: 임수호 외(2017)	· 문헌 및 통계분석, 전문가 협동연구, 관계자 인터뷰, 설문 조사, 관련 현지 조사 ·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 발전 과정 및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경제협력 발전 방안을 도출함.
	3	· 과제명: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재원조달: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 연구자: 최장호 외(2016)	· 문헌 및 통계분석, 전문가 협동연구, 관계자 인터뷰, 설문 조사, 관련 현지 조사 ·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초국경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재원조달 현황 및 방식을 고찰함.

표 1-2. 계속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개요	연구방법	주요 내용	
KIEP 주요 연구	4	· 과제명: 중국 13차 5개년 규 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동북지역 · 연구자: 이상훈, 허유미(2016a)	· 문헌 및 통계분석	· 동북 3성 지역에서 발표한 13·5 규획의 주요 내용과 핵심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 전망과 함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함.
	5	· 과제명: 중국의 지역별 산업 고도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랴오닝성 · 연구자: 이상훈, 허유미(2016b)	· 문헌 및 통계분석	· 랴오닝성의 산업간, 제조업 내 구조 변화와 주력 산업에 대한 산업고도화 정책을 분석·평가 하고 이를 토대로 대랴오닝성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함.
	6	· 과제명: 중국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랴오닝성 · 연구자: 이상훈, 허유미, 최 지원(2015)	· 문헌 및 통계분석	· 랴오닝성의 내수용 수입시장에 대해 가공단계별·업종별 구조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통한 수입 시장 내 경쟁구조를 분석하고 대랴오닝성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함.
	7	· 과제명: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10년 평가와 전망 · 연구자: 김부용, 임민경(2013)	· 문헌 및 통계분석	· 2003년 시작된 동북진흥전략 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도출함.
	8	· 과제명: 한·중 경제협력 20 년 회고와 전망: 동북 3성 · 연구자: 김부용, 임민경(2012)	· 문헌 및 통계분석	· 한·중 수교 20주년의 성과를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향후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함.
본 연구	· 과제명: 13·5 규획 시기 한 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 연구자: 이현태 외(2017) · 연구목적: - 한국의 신북방전략을 지원 할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향후 정부 정책 수요에 유연 하게 대응함. - 중국 동북의 구조적 변화(중 속성장)와 정책 변화(신동북 진흥전략, 일대일로 전략 등) 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체 적이고 새로운 대동북지역 경제전략과 정책을 고안하 여 한국 기업·정부에 제언함.	· 문헌·정책·통계 분석 · 현지정책협의회개최 · 현지 관계자 심층 인터뷰 · 전문가 원고 청탁 · 진출 기업 인터뷰	·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상황 및 신정책에 기반을 둔 한국의 대 동북 3성 경제협력 과제 도출 및 전략 수립 - 중속성장기 동북지역 경제적 성과, 문제점, 전망 분석 - 동북지역의 신경제발전 전략 및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전망 - 동북지역 내 기존 한중 경제협 력의 성과와 장애 요인을 점검 하고 정책과제 도출 - 새로운 동북전략과 정책과제 를 토대로 한국의 대동북지역 단기·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 수립	

자료: 위 선행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구성.

본 연구의 주요 차별성은 최근 급변하는 동북경제상황, 신동북진흥정책, 한·동북 경제교류 현황을 분석하여 정부·기업을 위한 새로운 진출·협력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동북 경제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침체기에 들어섰고 한국의 대동북 무역과 투자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정부의 신동북진흥전략도 2016년부터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급변한 경제 상황 및 정책을 반영한 무역·투자·정부협력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동북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여러 기존 문헌들은 시기적으로 최근의 경제 및 정책 변화를 포함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이 직접 필진으로 참여하여 진출 기업 심층 인터뷰, 재무제표 분석 등으로 보다 생생한 동북 진출 상황,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원고에 담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정부에 신북방정책, 한반도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동북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유용한 정보 및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지향하고자 했다.

1.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현황

가. 경제 성장

1) 동북지역 경제의 부침과 동북현상

중국 동북지역은 랴오닝(辽宁),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龙江)의 3개 성(省)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동북지역의 면적은 약 79만㎢로 중국 총면적의 8.2%를 차지하며 인구는 2015년 상주인구 기준 약 1억 947만 명으로 중국 총인구의 8.0%를 차지한다.⁵⁾

동북지역은 과거 중국의 대표적인 중공업 기지로서 건국 초기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소련의 원조로 진행된 156개 중점 프로젝트 중 58개가 실시되면서 기계·석유화학·장비제조·자동차·철강·조선·군수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중국의 공업화를 선도하였다. 그러나 동부 연해지역 중심의 발전전략을 포함한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면서 동북지역 경제의 활력이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과 비교해 동북지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을 빗대어 ‘동북현상(東北現像)’이라고 부르고 있다. 동북현상은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차 동북현상은 개혁개방 직후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하는데 국유기업과 중공업에 의존하던 동북지역에서 1978년 시작된 경공업과 민

5) CEIC(검색일: 2017. 7. 10); KOTRA(2011), 『차이나 마켓 31』, p. 3, p. 31, p. 53 참고.

영화 중심의 개혁개방 이후 생산성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한 시기이다. 특히 과거 중국의 주요 중공업기지로서 중국의 공업화를 선도한 동북지역이 개혁개방 이후 공업 부문의 발전 속도가 감소되고 중국 전체 공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진 시기이다.⁶⁾ 2차 동북현상은 2001년부터 2000년대 중반에 나타났으며 이 시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지닌 농산물과 원자재가 해외에서 대거 수입되면서 동북지역에서는 관련 제품의 재고가 급증하였고 이와 함께 생산 효율성이 하락해 동북지역의 경기침체를 초래하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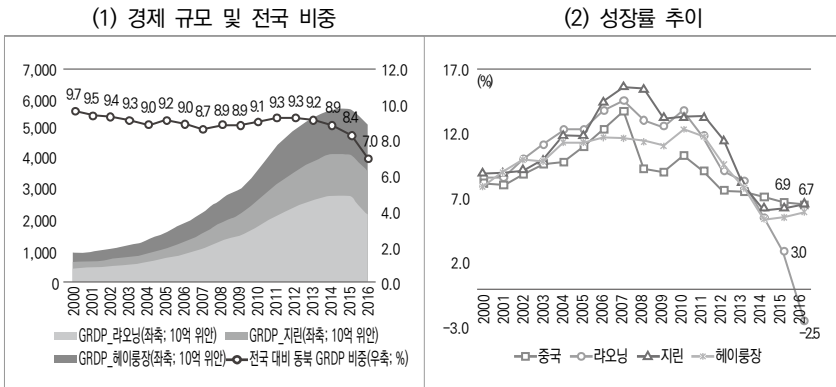
3차 동북현상은 2014년부터 2016년에 나타났으며 이 시기에는 급격한 투자 감소와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증대로 경제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었다. 특히 2014년 이후에 나타난 동북지역의 급격한 성장률 하락에 대해서는 ‘성장 절벽(斷崖)’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지역에서 경기둔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전국대비 동북지역의 경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9.7%를 차지한 동북지역의 경제 비중은 2003년 9.0%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후 2013년까지 9% 전후의 비중을 유지한 후 2014년 이후에는 동북지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경제 비중도 2016년 7.0%로 크게 하락하였다(그림 2-1 참고).

6) 개혁개방 전인 1958~77년 동북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동북지역 공업 총생산액의 평균증가율을 보면 1950~80년 사이에는 10.2%였으나 1981~85년에는 8.1%로 하락했고 1990년에는 2.5%로 하락하였다. 동북지역의 공업 총생산액이 중국 전체 공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16.4%에서 2000년에는 6.2%로 크게 하락하였다. 진병진(2008),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추진성과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48집, p. 8;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2010),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10-12, p. 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재인용.

7)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2010),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10-12, p. 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반면 김필수(2014)는 동북지역의 경제 성장이 빠르게 둔화된 1978~2000년, 2000년대 초·중반을 각각 1차 동북현상과 2차 동북현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동북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시기를 3차 동북현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필수(2014), 『3차 동북현상』의 특징과 시사점, VIP 리포트 14-5(통권 556호), 현대경제연구원.

그림 2-1. 동북 3성의 경제 규모 및 비중,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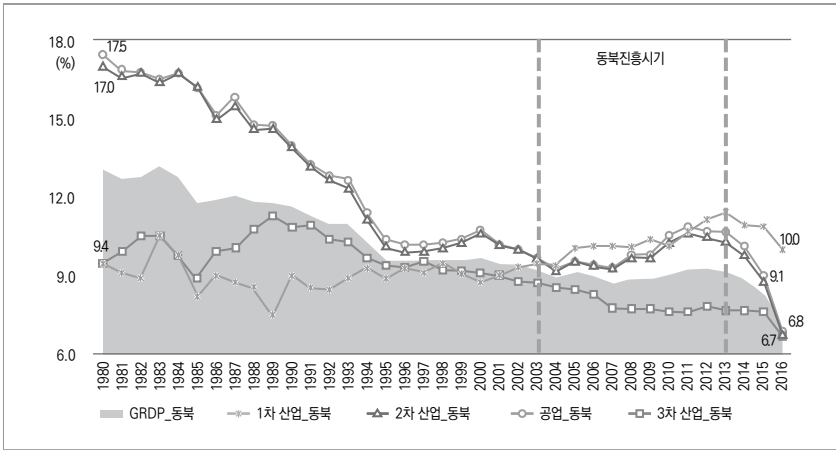


자료: CEIC(검색일: 2017. 7. 1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동북지역의 경기둔화가 지속되던 2003년 중국정부는 침체된 동북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자 동북진흥정책을 처음 발표하였다. 동북지역 경제발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3년 10월에 「중공중앙·국무원의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을 정식으로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국무원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국무원 동북진흥 영도소조’를 구성하여 동북지역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2004년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는 동북진흥을 공식적인 지역발전전략으로 천명하였다.⁸⁾

8) 중국정부가 동북 3성에 대해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보인 것은 지역간 격차 해소가 가장 주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유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무차별적 개발로 인한 자원 고갈, 생산설비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실업 증가 등 동북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지할 경우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중국정부가 이 지역의 비교우위를 강화해 중공업기지로 부활시킴으로써 중국 전체의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권역별성장연구원(2010),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10- 12, p. 5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림 2-2. 전국대비 동북지역의 경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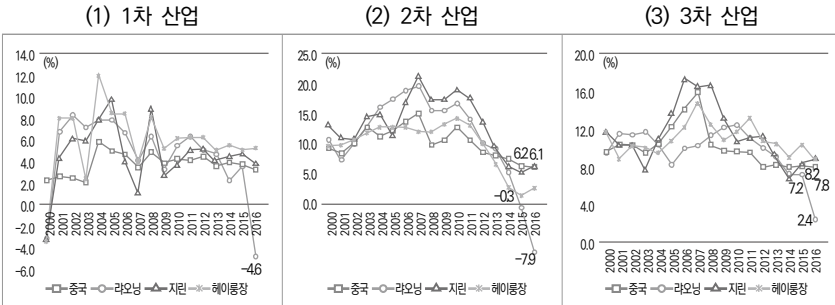
자료: CEIC(검색일: 2017. 7. 1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2-2]는 1980년 이후 전국대비 동북지역의 경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동부 연해지역과 경공업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동북지역 경제는 침체기를 겪었으며 이에 따라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80~96년 전국대비 동북지역의 경제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GRDP 기준 13.1%에서 9.6%로 축소됨). 특히 이 시기에는 1차 산업의 비중과 3차 산업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차 산업의 비중은 17.0%에서 9.9%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공업 부문의 성장 둔화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1차 동북현상). 1990년대 후반 공업 부문의 빠른 성장으로 전국대비 동북지역의 비중은 9%대 후반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1차 산업의 성장에도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동북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시 하락세를 겪게 되었다(2차 동북현상).

2003년 동북진흥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동북지역의 경제 비중은 약 10년간 9%대 초반을 유지하게 된다. 이 시기에 동북 3성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전국대비 비중도 상승세를 이루게 된다(그림 2-3 참고). 그러나 3차 산업의

경우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상대적으로 작은 산업 규모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9)

그림 2-3. 동북지역의 산업별 성장을 추이



자료: CEIC(검색일: 2017. 7. 1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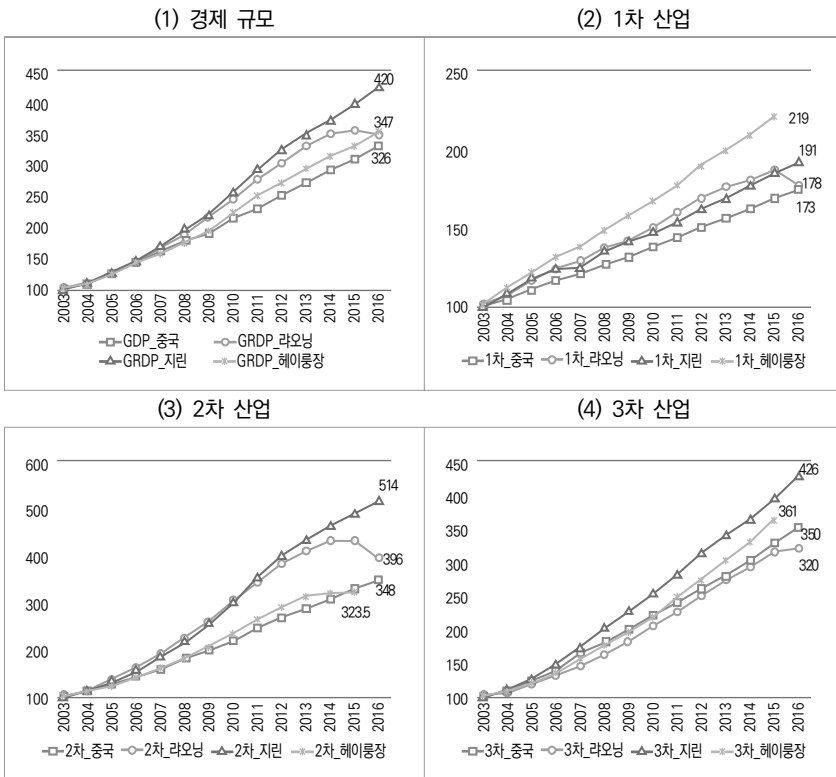
2013년 이후 중국경제는 신장타이(New Normal, 新常态)에 진입한 후 성장속도 둔화, 경제구조 전환, 성장동력 변화 등을 겪으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경우 중국경제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 외에도 구조적·체제적 문제가 겹치면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동북지역 3개 성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이후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면서 성장률 하위 5개 지역에 포함되었고, 특히 동북지역 경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라오닝성은 2015~16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그림 2-1 참고). 동북지역의 성장률 하락은 모든 산업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급격한 성장률 둔화로 동북지역의 경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이후 매우 가파르게 축소되었다(3차 동북현상 또는 ‘성장 절벽’).

동북진흥정책은 설비 개보수 및 시설능력 확충을 위한 100대 프로젝트와

9) 2003~12년 10년간 동북 3성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2.7%로 전국평균(10.7%)을 상회하였다. 이 시기 동북지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동북지역의 산업 구조가 국가발전 모델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제조업은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많은 설비를 필요로 했고 부동산시장의 발전은 철강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고속 발전 경제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에너지 수요를 급증시켰다. 장윤미 (2016), 「중국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위기 요인 진단」, INChinaBrief, Vol. 324, p. 4, 인천발전연구원.

60개 기술개발 프로젝트, 인프라 투자 등 동북지역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전략이었다. 따라서 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시기였는데 실제로 동북지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04~10년 사이에 전국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다(그림 2-9 참고).

그림 2-4. 중국 및 동북 3성의 경제 규모 성장 추이(2003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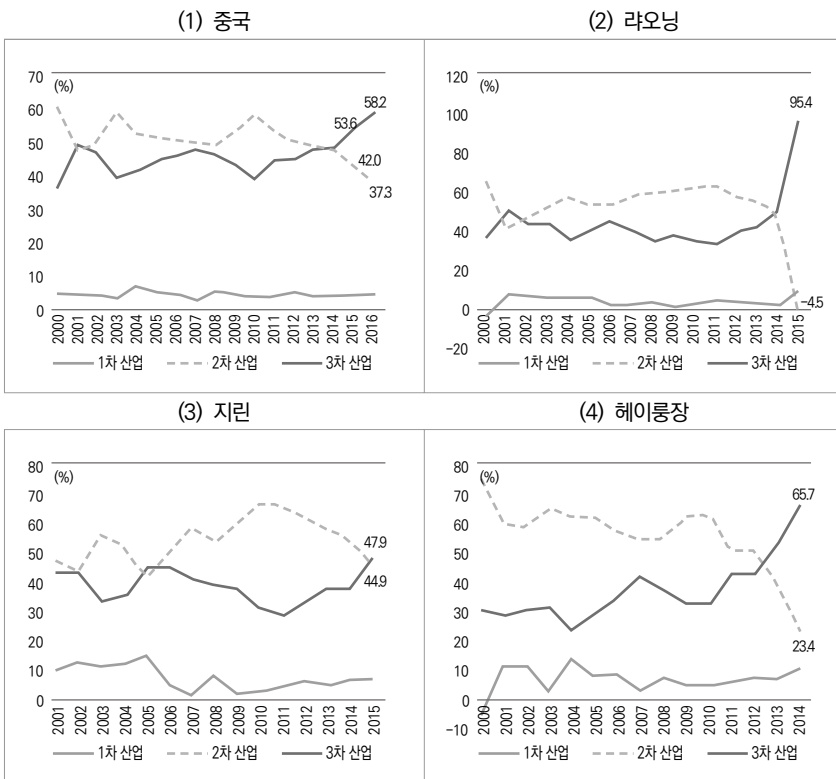


주: 2003년 불변가격이며 2003년=100으로 계산함.
 자료: CEIC(검색일: 2017. 7. 1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동북진흥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동북지역의 경제 규모는 전국대비 비중의 변화와 관계없이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동북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2003~16년 사이에 3.5~4.2배 확대되었는데 이는 전국

의 경제 규모가 3.3배 확대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2차 산업에서의 경제 규모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져 지린이 5.1배, 랴오닝이 4.0배 확대되었으며 1차 산업 역시 전국 평균 수준보다 더 빠른 성장을 보였다. 3차 산업의 경우 지린과 헤이룽장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빠르게 산업 규모가 확대되었다(그림 2-4 참고).¹⁰⁾

그림 2-5. 중국 및 동북 3성의 산업별 성장기여율 추이



자료: CEIC(검색일: 2017. 7. 10); 랴오닝성 통계국(www.ln.stats.gov.cn, 검색일: 2017. 7. 13); 지린성 통계국(tjj.jl.gov.cn, 검색일: 2017. 7. 13); 헤이룽장성 통계국(www.hlj.stats.gov.cn, 검색일: 2017. 7. 13).

10) 2003~13년 동북 3성의 GDP는 4배 이상 증가했고 연평균 성장률은 12.4%에 달해 같은 기간 전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10.5%보다 2%p 높았다.

2) 산업별 성장기여율의 변화

동북지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은 [그림 2-5]에 나타나 있다. 먼저 중국 전체적으로는 고도 성장기였던 2001~13년 2차 산업의 기여율이 50% 이상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2014년 이후에는 2차 산업의 성장기여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반면 3차 산업의 기여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다.

동북 3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추세는 중국 전체와 유사하다. 즉 고도성장을 구가한 2000년대에는 주로 2차 산업이 성장을 이끌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3차 산업의 성장 기여율이 2차 산업을 앞지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동북 3성은 경제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2014년을 기점으로 산업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즉 신창타이가 본격화된 2014년을 기점으로 과거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공업(2차 산업)의 기여율이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3차 산업)이 공업을 대신하여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투자 증가율에서는 공업 부문과 서비스업이 서로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투자 규모에서 서비스업이 공업을 크게 압도하면서 서비스업의 성장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높이고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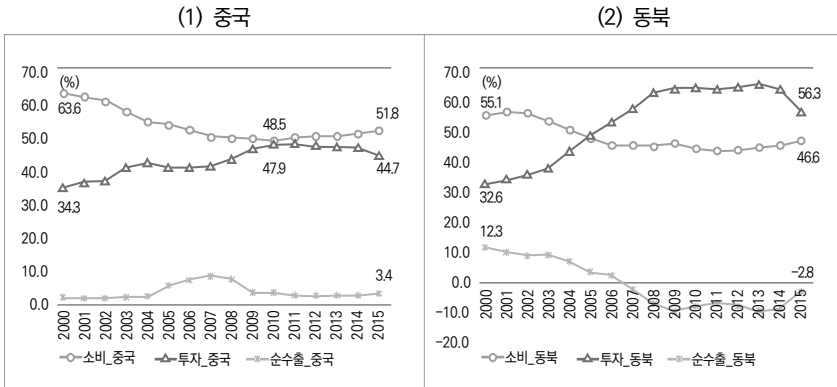
3) 수요구조의 변화

동북지역은 성장과정에서 양적 확대와 산업 구조의 변화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수요 부문별 구성의 변화도 함께 겪고 있다. 중국 전체적으로는 소비의 비중이 2000년 이후 줄곧 투자의 비중을 상회하고 있으나 고도성장기였던 2000년대에는 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소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

11) 2015년 기준으로 동북지역의 산업별 투자 비중은 1차 산업이 5.4%, 제조업이 37.3%, 서비스업이 49.5%를 각각 기록하고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제조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린성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45.8%)이 서비스업의 비중(39.8%)을 상회하였다. CEIC(검색일: 2017. 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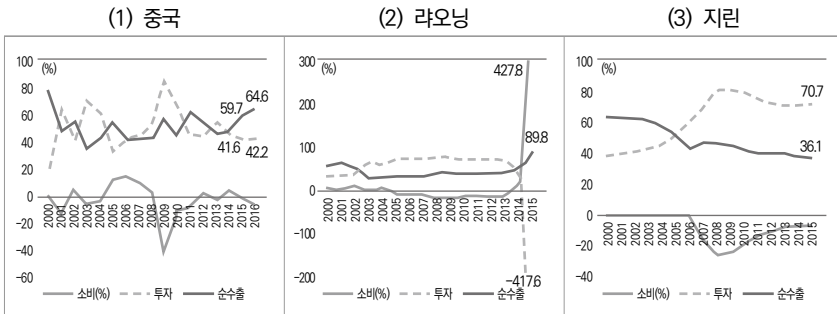
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12·5 계획(2011~15)에서 내수, 특히 소비를 중심으로 한 발전방식 전환을 강조하면서 소비와 투자 간의 비중 격차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그림 2-6. 중국 및 동북 3성의 수요 부문별 비중



자료: CEIC(검색일: 2017. 7. 13)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2-7. 전국 및 동북지역의 수요 부문별 성장기여율



주: 헤이룽장성은 관련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음.

자료: CEIC(검색일: 2017. 7. 13); 랴오닝성 통계국(www.ln.stats.gov.cn, 검색일: 2017. 7. 13); 지린성 통계국(tjj.jl.gov.cn, 검색일: 2017. 7. 13)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동북지역은 중국의 전체적인 수요구조 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북진흥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수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동북진흥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의 비중을 크게 상회하는 수요구조를 보이고 있다. 신창타이에 진입한 2013년 이후 투자가 급감하면서 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으로 투자의 비중이 56.3%로 소비의 비중을 상회하고 있다.

동북지역에서 투자와 소비의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서 성장에 대한 소비와 투자의 기여율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전체적으로는 2014년 이후 소비와 투자의 기여율에 큰 격차가 나타나면서 소비 위주의 성장세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랴오닝의 경우도 2014년 이후 소비와 투자의 성장기여율에 큰 반전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린의 경우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공업 부문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과 투자 증가율에 기인한다(그림 2-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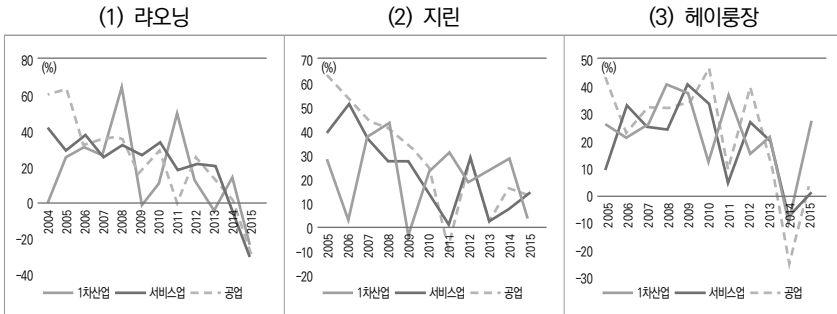
동북지역의 경제 성장은 투자 증감률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이후 급격한 성장률 둔화를 겪은 랴오닝성은 투자의 규모와 증가율 모두 크게 감소하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¹²⁾ 상대적으로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린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북지역의 투자증가율 하락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민간투자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¹³⁾ 민간투자 감소세는 2017년 이후 빠르게 축소되고

12) 랴오닝성의 고정자산투자는 공업과 부동산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업부분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40% 이상으로 2차 산업의 발전과 양적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2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랴오닝성은 최근 투자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서비스업 발전이 지체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타나지 않는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상훈, 허유미(2016b), 「중국의 지역별 산업고도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랴오닝성」, 지역 기초자료 16-10, p.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 경제성장률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이러한 투자 증가율 하락은 이전 시기에 누적되어 온 과잉투자, 특히 2009~10년의 대규모 경기부양의 결과로 형성된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공급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과잉 설비와 선진경제권의 경기회복세 지연은 투자와 수출 증가율을 급락시키면서 중국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김시중(2016),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pp. 31~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있으나 동부 등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민간투자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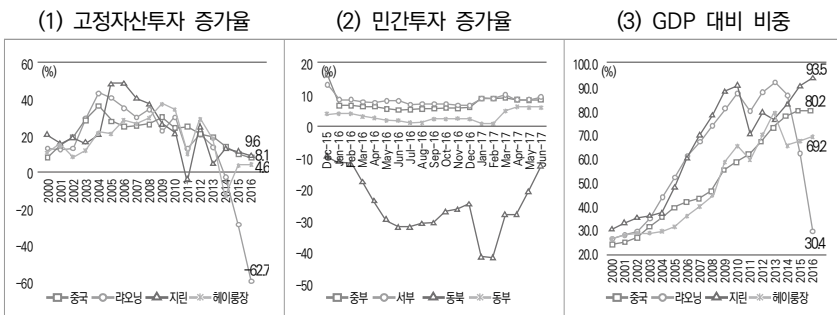
그림 2-8. 주요 산업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자료: CEIC(검색일: 2017. 7. 26)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고정자산투자가 증가세를 나타내며 GRDP 대비 투자 비중도 2014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동북지역 경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랴오닝성의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동북지역 전체의 투자 비중을 위축시키고 있다(그림 2-9 참고).

그림 2-9.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및 GDP 대비 비중 추이



자료: CEIC(검색일: 2017. 7. 26)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나. 대외 개방 및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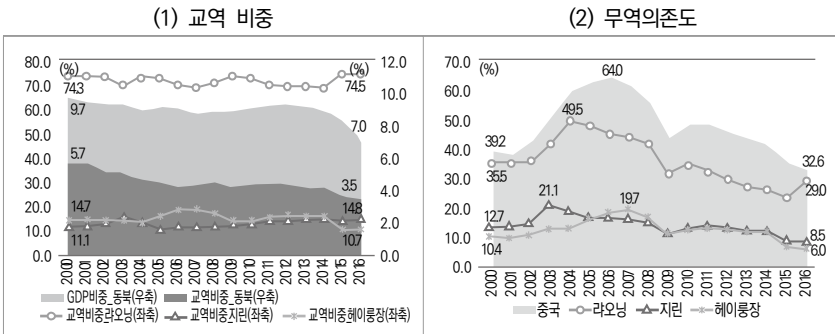
1) 무역의존도 및 수출입 구조의 변화

동북지역은 랴오닝성의 일부 지역이 보하이(渤海)와 접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북한·러시아와 접경을 이루는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대외무역의 비중이 크지 않은 지역이다. 또한 개혁개방 초기 경공업 부문에서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외무역에 참여하여 성장을 이룬 동부 연해지역과 달리 동북지역은 역사적 초기조건으로 비교우위를 갖추지 못한 중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형성·유지하고 있는 것도 동북지역의 대외무역을 제약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지리적 조건과 산업 구조적 특징으로 동북지역이 중국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7.0~9.7%)보다 작으며 이 또한 2000년 5.7%에서 2016년 3.5%로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북지역에서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랴오닝성이 동북지역 전체 교역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각각 10% 초반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교역에서 동북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북진흥정책이 활발히 추진되었던 2003~13년 사이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 시기 동북지역은 중국이 수출에 의존한 성장을 보인 것과 달리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동북지역이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이룬 것은 무역의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2000년대에는 중국의 무역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서면서 중국의 무역의존도도 빠르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6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점차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동북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03~13년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는데 이 시기 대외무역보다 내수요인(즉 소비와 투자)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 무역의존도 역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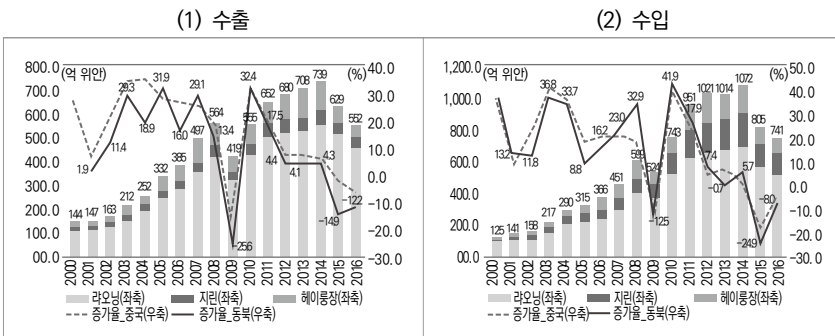
그림 2-10. 동북지역의 교역 비중 및 무역의존도



주: 동북의 GDP 및 교역 비중은 전국 대비 비중을, 랴오닝·지린·헤이룽장의 교역 비중은 동북지역 내 비중을 의미함; 무역의존도는 총교역액/GRDP를 의미함.
 자료: CEIC(검색일: 2017. 7. 26)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동북지역의 수출과 수입은 전반적으로 중국 전체 수출입과 유사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이전 동북지역의 수출과 수입은 대체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교역량이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수요가 급감하였던 2009년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 -25.6%와 -12.5%로 크게 감소하였다. 2010년 높은 수출·수입 증가율을 회복한 동북지역은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수출의 경우 중국 전체와 비교했을 때 하락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1. 동북지역의 교역 규모 및 증감률 추이



자료: CEIC(검색일: 2017. 7. 26)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2-1. 동북지역의 주요 교역국

순위	중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2000 ~01	2015 ~16	비중 (%)	2000 ~01	2015 ~16	비중 (%)	2000 ~01	2015 ~16	비중 (%)	2000 ~01	2015 ~16	비중 (%)		
1	일본	미국	14.3	일본	일본	12.7	독일	독일	33.1	러시아	러시아	62.5		
2	미국	일본	7.3	한국	한국	9.5	일본	일본	8.6	일본	미국	4.4		
3	한국	한국	7.0	미국	미국	8.6	한국	미국	5.5	한국	일본	2.5		
4	대만	독일	4.1	독일	독일	5.9	미국	북한	5.3	미국	한국	2.3		
5	독일	베트남	2.4	싱가 포르	싱가 포르	3.7	북한	한국	4.1	북한	독일	2.1		
상위 5개국의 비중			35.1	-			40.5	-			56.6	-		73.8

주: 교역국의 순위는 2000-01년, 2015-16년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계산함; 비중은 2015-16년의 국가별 평균 비중을 표시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무역통계(검색일: 2017. 7. 4)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동북지역의 주요 교역국가는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동북지역의 입지조건으로 중국 전체 주요 교역국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러시아와 북한이 주요 교역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국 전체와는 다르게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서는 독일(33.1%)과 러시아(62.5%)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된 교역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는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일본·한국이 각각 높은 교역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2-2]에서는 동북 3성의 업종별·기술 수준별 대세계 수출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업종별 수출입 비중을 분석하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제조업을 22개 업종으로 분류하였다.¹⁴⁾ 지역별 수출 상위 5개 업종을 살펴보면 동북 3성 모두 식료품 제조업과 의복·모피·가죽·신발 제조업, 자동차·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주요 수출업종에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랴오닝성은 1차 금속 제조업과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지린성은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과 화학

14) 중국은 제조업을 2003년까지 28개 세부업종으로 분류하였으나 2004년부터 30개 세부업종으로, 2013년부터는 세부업종을 재조정한 30개 업종으로 분류하는 등 세부업종 분류기준이 두 차례 변경되었다. 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제조업을 25개 세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분석의 일관성과 한·중 간 비교분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22개 업종으로 재분류해 분석하였다.

물질·화학제품 제조업, 헤이룽장성은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이 주요 수출업종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수출업종이 동북 3성 각 지역의 주요 산업이거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01년 평균과 비교하여 수출 비중이 크게 변화된 업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랴오닝성은 1차 금속 제조업(10.2%p)과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8.1%p)에서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13.1%p)과 의복·모피·가죽·신발 제조업(-8.5%p)에서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지린성의 경우 자동차·기타 운송장비 제조업(6.3%p)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목재·나무제품 제조업(-5.6%p)과 식료품 제조업(-4.0%p)은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헤이룽장성은 식료품 제조업(9.1%p)과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7.6%p)의 비중이 상승한 반면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43.0%p)의 수출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동북 3성의 수출을 기술 수준별로 분석하기 위해 OECD(2003)의 산업분류 방법을 활용해 제조업 세부업종을 △첨단기술(high-technology) △중고위기술(medium-high-technology) △중저위기술(medium-low-technology) △저위기술(low-technology)의 4대 산업군으로 분류하였다.¹⁵⁾

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산업별 평균 연구개발(R&D) 집중도(intensity)를 기준으로 첨단기술산업, 중고위기술산업, 중저위기술산업 및 저위기술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 수준별 산업군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첨단기술산업: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중고위기술산업: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자동차·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중저위기술산업: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저위기술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모피·가죽·신발 제조업,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제품 제조업. OECD의 업종 분류에 관해서는 이문형, 김갑수, 박중구(2007), 「한중일 제조업의 기술 수준별 경쟁과 협력 분석」, p. 274,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표 2-2. 중국 및 동북 3성의 업종별 대세계 수출 구조

(단위: %, %p, 백만 달러)

	중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2015/ 2016년	비중 변화	2015/ 2016년	비중 변화	2015/ 2016년	비중 변화	2015/ 2016년	비중 변화
제조업 업종별								
식품 제조업	2.7	-1.9	9.2	-1.7	20.7	-4.0	18.2	9.1
음료 제조업	0.1	-0.1	0.1	0.1	1.0	0.5	0.2	-1.2
담배 제조업	0.1	-0.1	0.0	0.0	0.4	-0.2	0.1	-0.3
섬유제품 제조업	3.6	-1.2	1.1	-1.4	2.0	0.7	4.9	-0.4
의복모파가죽신발 제조업	11.2	-9.2	9.2	-8.5	11.5	-1.3	21.6	4.5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0.7	-0.4	1.5	-1.4	9.2	-5.6	4.6	-0.6
가구 제조업	2.7	0.7	1.2	0.0	1.4	-2.3	2.2	0.9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9	0.4	0.4	0.1	0.3	0.3	0.8	0.8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2	0.0	0.0	0.0	0.0	0.0	0.1	0.1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2	-1.1	10.0	8.1	0.2	-0.1	0.7	-43.0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6.0	-0.2	4.8	-0.4	9.7	-1.3	3.6	2.0
의료용 물질·약품 제조업	0.6	-0.1	0.5	-0.8	3.7	2.9	0.8	0.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2	0.3	2.3	0.5	2.2	0.6	1.1	0.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0.5	2.8	0.7	1.0	0.3	0.4	-0.1
1차 금속 제조업	3.8	0.9	16.7	10.2	4.2	-2.1	3.8	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0	0.3	4.8	1.8	1.5	1.1	6.0	5.7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6.6	2.6	9.4	6.1	2.4	1.4	9.5	7.6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	6.1	1.1	10.4	2.0	17.5	6.3	8.1	6.0
전기장비 제조업	8.3	0.8	5.2	-0.9	1.5	-0.3	7.1	5.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29.2	9.1	7.7	-13.1	5.1	0.2	2.3	-0.9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2.0	-0.4	1.7	-0.3	3.5	2.4	1.9	1.3
기타 제품 제조업	4.4	-2.0	1.0	-0.8	0.9	0.4	1.9	0.5
제조업 합계	100.0	-	100.0	-	100.0	-	100.0	-
제조업 수출액 합계	2,194,598		47,173		4,879		5,409	
기술 수준별								
첨단기술	31.8	8.6	9.8	-14.2	12.2	5.5	5.0	0.6
중고위기술	27.0	4.4	29.9	6.8	31.2	6.1	28.4	20.8
중저위기술	14.7	0.9	36.6	21.1	9.0	-0.1	12.0	-34.7
저위기술	26.5	-13.9	23.8	-13.7	47.5	-11.5	54.6	13.2
합계	100.0	-	100.0	-	100.0	-	100.0	-

주: 2015/2016년은 2015~16년 제조업 수출액 평균값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함; 비중 변화는 2000-01년 평균값 비중 대비 2015~16년 평균값의 비중 변화를 나타냄. 볼드체는 각 지역의 수출 상위 5개 업종(의 비중)을 표시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무역통계(검색일: 2017. 7. 4)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동북 3성의 기술 수준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로 중위기술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린성이 상대적으로 첨단기술산업에서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랴오닝성은 중위기술산업, 헤이룽장성은 저위기술산업에서의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과 비교했을 때 랴오닝성은 첨단기술산업에서의 수출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중위기술산업에서의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헤이룽장성은 중고위 기술산업과 저위기술산업 등 두 산업군에서의 수출 비중이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지린성의 경우 저위기술산업에서의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북 3성은 중국 전체 수출과 비교했을 때 첨단기술산업의 수출 비중이 매우 작고 증가율도 낮아서 대체로 기술 수준이 중간 이하인 산업에서의 수출에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표 2-3]에서는 동북 3성의 업종별 대세계 수입 구조를 정리하였다. 지역별 대세계 수입 상위 5개 업종을 살펴보면 동북 3성에서는 공통적으로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과 자동차·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랴오닝성은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식품 제조업, 지린성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헤이룽장성은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 지역 모두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은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각각 38.6%, 63.8%)에, 지린성은 자동차·기타 운송장비 제조업(58.6%)에 수입이 편중되어 있다.

지역별로 2000~01년 평균 수입 비중과 비교해보면 2015~16년 수입의 비중이 큰 업종에서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은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 각각 20.6%p, 59.7%p 증가했으

며 지린성은 자동차·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수입이 16.4%p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랴오닝성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13.2%p)과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3.3%p), 지린성은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10.4%p)과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5.6%p), 헤이룽장성은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16.9%p), 펠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11.6%p)에서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¹⁶⁾

표 2-3. 중국 및 동북 3성의 업종별 대세계 수입 구조

(단위: %, %p, 백만 달러)

	중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2015/2016년	비중 변화	2015/2016년	비중 변화	2015/2016년	비중 변화	2015/2016년	비중 변화
제조업 업종별								
식료품 제조업	3.6	1.1	7.4	2.8	2.8	1.9	1.9	0.5
음료 제조업	0.3	0.3	0.3	0.2	0.4	0.4	0.1	0.1
담배 제조업	0.1	0.0	0.1	0.1	0.1	0.1	0.0	-0.1
섬유제품 제조업	1.3	-2.4	0.8	-3.2	0.4	-1.2	0.8	-2.8
의복·모파·가죽·신발 제조업	1.4	0.4	2.1	1.3	0.9	0.9	0.4	0.4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1.4	-0.5	0.6	-0.3	0.7	-1.6	11.7	-1.4
가구 제조업	0.2	0.1	0.1	0.1	0.4	-1.5	0.1	0.1
펠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1.5	-0.9	0.3	-0.6	0.2	-1.9	2.3	-11.6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1	-0.1	0.0	-0.1	0.0	-0.1	0.0	0.0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3.3	5.5	38.6	20.6	0.8	-2.8	63.8	59.7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10.2	-7.8	14.4	2.1	2.5	-5.6	4.2	-16.9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1.5	1.0	1.4	1.0	0.0	0.0	0.0	-1.7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	-0.1	1.6	-0.6	1.6	0.8	0.2	-0.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	0.1	0.4	-0.2	0.2	0.0	0.1	-0.6
1차 금속 제조업	5.0	-4.9	3.5	-2.8	2.6	-3.4	2.2	-9.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	-0.3	1.6	0.0	2.9	0.6	0.3	-0.1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6.5	-4.8	8.2	-3.3	7.1	-10.4	6.3	-6.2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	8.4	3.1	8.5	-0.5	58.6	16.4	2.4	0.1

16) 수출 비중의 변화와 비교해보면 랴오닝성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과 지린성의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은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모두 감소한 업종인 반면 랴오닝성의 자동차·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린성의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헤이룽장성의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과 펠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은 수입 비중이 감소한 반면 수출 비중이 증가한 업종이었다.

표 2-3. 계속

	중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2015/ 2016년	비중 변화	2015/ 2016년	비중 변화	2015/ 2016년	비중 변화	2015/ 2016년	비중 변화
전기장비 제조업	3.7	-2.6	2.7	-2.4	2.9	-0.3	0.7	-1.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32.5	12.3	4.9	-13.2	8.0	4.7	0.3	-5.8
의료·정밀광학기기가시계 제조업	3.8	0.3	2.2	-0.5	6.9	2.9	1.9	-2.3
기타 제품 제조업	0.8	0.2	0.3	-0.3	0.1	0.0	0.1	0.1
제조업 합계	100.0	-	100.0	-	100.0	-	100.0	-
제조업 수출액 합계	1,411,538		46,909		12,967		8,668	
기술 수준별								
첨단기술	37.8	13.5	8.5	-12.7	14.8	7.5	2.2	-9.9
중고위기술	28.9	-12.1	33.8	-4.2	71.1	0.1	13.6	-24.3
중저위기술	22.6	0.4	45.6	16.9	8.1	-4.7	66.7	49.0
저위기술	10.8	-1.8	12.1	0.0	5.9	-2.9	17.5	-14.7
합계	100.0	-	100.0	-	100.0	-	100.0	-

주: 2015/2016년은 2015~16년 제조업 수입액 평균값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함; 비중 변화는 2000-01년 평균값 비중 대비 2015~16년 평균값의 비중 변화를 나타냄; 볼드체는 각 지역의 수입 상위 5개 업종(의 비중)을 표시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무역통계(검색일: 2017. 7. 4)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기술 수준별 수입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 전체적으로는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수입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고위기술산업에서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것과 달리 첨단기술산업에서의 비중은 13.5%p 증가하며 수입 고도화를 이끌었다. 동북 3성의 수입 구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첨단기술산업에서의 수입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고 저위기술산업에서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다만 지린성의 경우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에서의 수입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기술 수준이 높은 산업에서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지린성은 중고위기술산업, 랴오닝 성과 헤이룽장성은 중저위기술산업에서 수입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동북지역에서 첨단기술산업에서의 수입 비중이 감소하게 된 것은 이 지역에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부품 국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보다는 지역 내 첨단산업의 발전이 지체되면서 이에 대한 수입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2-4. 중국 및 동북 3성의 가공단계별 대세계 수입 구조

(단위: %, %p, 백만 달러)

	중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2015/ 2016년	비중 변화	2015/ 2016년	비중 변화	2015/ 2016년	비중 변화	2015/ 2016년	비중 변화
1차 상품	22.4	9.7	45.8	20.9	12.2	1.0	70.0	48.4
중간재	53.5	1.1	37.7	-6.4	54.2	-7.4	20.6	-34.2
자본재	15.8	-3.1	8.9	-8.9	13.5	-4.9	7.2	-10.8
소비재	7.9	4.1	7.3	1.5	19.6	17.0	1.5	0.7
미분류	0.4	-11.8	0.3	-7.1	0.5	-5.7	0.7	-4.1
수입액 합계	1,562,242	-	53,676	-	14,331	-	9,342	-

주: 가공단계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2015/2016년은 2015~16년 수입액 평균값에서 가공단계별 비중을 표시함; 비중 변화는 2000~01년 평균값 대비 2015~16년 평균값의 비중 변화를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무역통계(검색일: 2017. 7. 4)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가공단계별 수입 구조를 보면 중국 전체적으로는 중간재의 수입 비중(53.5%)이 가장 높았으나 2000~01년과 비교했을 때는 1차 상품과 소비재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 증대로 수입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북 3성의 경우에는 지린성만이 중간재의 수입 비중(54.2%)이 가장 크고 소비재에 대한 수입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중국 전체와 유사한 수입 구조를 나타냈다. 반면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의 경우 1차 상품의 수입 비중이 가장 컸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2000~01년과 비교해 가장 크게 증가한 수입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었다.

동북 3성의 업종별 대한민국 수입 상위 5개 업종은 대체로 대세계 수입 업종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참고). 다만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수입 비중이 56.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01년과 비교했을 때 수입 비중도 35.7%p 증가하면서 수입 집중도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로 대한민국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랴오닝성은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지린성은 1차 금속

표 2-5. 중국 및 동북 3성의 업종별 대한민국 수입 구조

(단위: %, %p, 백만 달러)

	중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2015/ 2016년	비중 변화	2015/ 2016년	비중 변화	2015/ 2016년	비중 변화	2015/ 2016년	비중 변화
제조업 업종별								
식품 제조업	0.4	-0.1	1.6	0.6	1.5	1.5	1.2	0.8
음료 제조업	0.1	0.1	0.5	0.5	0.2	0.2	0.0	0.0
담배 제조업	0.0	0.0	0.1	0.1	0.0	0.0	0.0	0.0
섬유제품 제조업	0.7	-4.8	2.3	-11.9	2.6	2.6	0.0	-0.4
의복모파가족신발 제조업	0.4	-0.6	0.4	-2.0	0.0	0.0	0.0	0.0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0.0	-0.3	0.0	-0.3	0.0	0.0	0.0	0.0
가구 제조업	0.1	0.1	0.4	0.4	0.0	0.0	0.0	0.0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2	-1.6	0.3	-1.1	0.9	0.9	1.2	1.2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0	-0.1	0.0	-0.1	0.0	0.0	0.0	0.0
코르크·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3.9	2.4	2.7	2.6	0.0	0.0	14.8	13.1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14.7	-20.5	61.5	38.4	19.2	-14.7	8.6	-42.9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1	-0.1	0.0	-0.2	0.0	0.0	0.0	-15.3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0.0	1.8	-1.4	3.9	-1.5	0.0	-1.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8	-0.2	0.1	-0.1	0.4	0.4	0.0	0.0
1차 금속 제조업	3.9	-9.3	3.0	-7.9	25.0	5.3	16.0	12.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	-0.4	1.6	-0.4	3.7	3.7	2.5	2.5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5.8	-1.3	6.7	1.4	10.7	-10.7	33.3	22.4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	4.5	3.2	6.3	3.4	6.3	6.3	4.9	4.1
전기장비 제조업	2.6	-2.6	3.8	0.5	8.9	-7.2	2.5	-2.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56.2	35.7	5.7	-20.9	13.9	13.0	7.4	0.4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2.0	1.2	0.8	0.2	2.8	0.1	3.7	2.4
기타 제품 제조업	0.2	-0.7	0.3	-1.7	0.2	0.2	3.7	3.7
제조업 합계	100.0	-	100.0	-	100.0	-	100.0	-
제조업 수출액 합계	166,156		4,700		271		41	

기술 수준별

첨단기술	58.3	36.8	6.5	-20.8	16.6	13.1	11.1	-12.5
중고위기술	27.5	-21.2	78.4	43.6	45.1	-26.3	49.4	-19.2
중저위기술	12.0	-7.6	9.3	-7.1	32.9	7.9	33.3	26.3
저위기술	2.1	-8.0	5.9	-15.7	5.4	5.4	6.2	5.3
합계	100.0	-	100.0	-	100.0	-	100.0	-

주: 2015/2016년은 2015~16년 제조업 수입액 평균값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함; 비중 변화는 2000~01년 평균값 비중 대비 2015~16년 평균값의 비중 변화를 나타냄. 볼드체는 각 지역의 수입 상위 3개 업종(의 비중)을 표시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무역통계(검색일: 2017. 7. 4)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제조업과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하이롱장성은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제품이 주요 수입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01년과 비교했을 때 랴오닝성은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에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서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지린성의 경우에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에서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하이롱장성의 경우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에서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에서의 수입은 42.9%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동북 3성의 대한민국 수입은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입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무관하게 대체로 각 지역의 주도산업과 관련된 업종에서의 수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¹⁷⁾

기술 수준별 대한민국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 전체적으로는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대한민국 수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한국의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수입 비중(58.3%)이나 비중 변화(36.8%p)가 대세계 수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달리 동북 3성에서는 첨단기술제품보다 중고위기술 제품에 대한 수입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01년과 비교할 때 랴오닝성은 중고위기술제품, 지린성은 첨단기술제품, 하이롱장성은 중저위기술제품에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단계별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은 중간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동북 3성의 대한민국 수입 역시 중간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랴오닝성을 제외한 지린성과 하이롱장성은 상대적으로 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며 절대적인 수입 규모는 작지만 중국 전체에 비해 소비재의 수입 비중이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주도산업(leading industry)은 경제발전 각 단계에서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분석에서는 제조업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위를 차지하는 업종을 주도산업으로 정의한다. 동북 3성의 주도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동북지역 산업 구조' 내용 참고.

표 2-6. 중국 및 동북 3성의 가공단계별 대한민국 수입 구조

(단위: %, %p, 백만 달러)

	중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2015/ 2016년	비중 변화	2015/ 2016년	비중 변화	2015/ 2016년	비중 변화	2015/ 2016년	비중 변화
1차 상품	0.5	0.0	0.6	-0.4	1.8	1.8	0.0	0.0
중간재	79.0	12.5	87.5	25.0	68.8	24.8	57.3	-18.4
자본재	18.0	7.3	6.2	-8.8	16.1	-0.8	21.9	11.2
소비재	2.5	0.2	4.0	0.0	4.3	4.3	5.2	4.4
미분류	0.1	-20.1	1.8	-15.8	9.0	-30.2	15.6	2.7
수입액 합계	166,526	-	4,797	-	302	-	48	-

주: 가공단계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2015/2016년은 2015~16년 수입액 평균값에서 가공단계별 비중을 표시함; 비중 변화는 2000~01년 평균값 비중 대비 2015~16년 평균값의 비중 변화를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무역통계(검색일: 2017. 7. 4)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 외국인직접투자(F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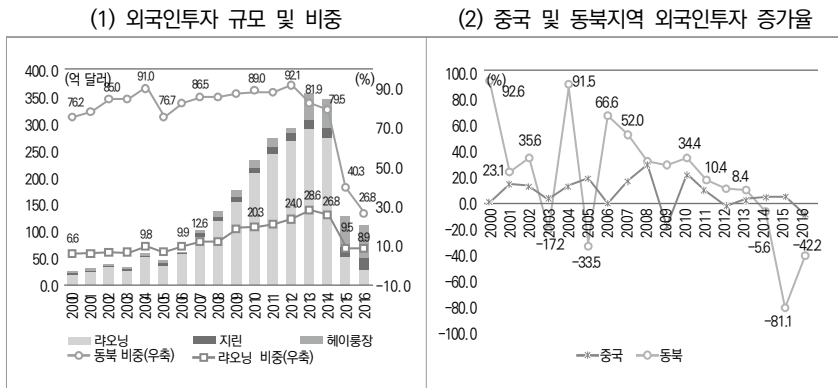
동북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0년대 들어서 특히 200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신창타이가 본격화된 2013년 이후부터는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증가율이 중국 평균을 하회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28.6%로 최고치를 보인 후 2016년 8.9%까지 빠르게 감소하였다. 2016년에는 하락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동북지역의 외국인투자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랴오닝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랴오닝성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가속화되면서 동북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92.1%로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랴오닝성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동북지역에서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고 동북지역 외국인투자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랴오닝성 데이터로 동북지역에 대한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홍콩이 52.9%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9.1%)과

한국(6.6%), 미국(3.9%)이 주요 투자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2005년 및 2008~15년 누적액 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45.2%)에 대한 외국인투자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동산(25.0%), 전력·가스·물 생산 및 공급업(4.2%), 교통·운수·창고·우편업(3.4%)이 뒤를 이었다.¹⁸⁾

그림 2-12. 동북 3성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비중 및 증가율



주: 동북 비중은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랴오닝성 비중은 동북에서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CEIC(검색일: 2017. 7. 24)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다.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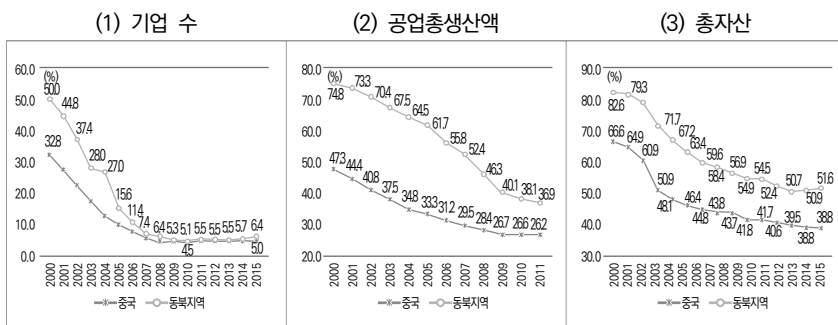
동북지역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국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중국은 비국유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65%에 달했고 일부 지역은 80~90%에 달했다. 그러나 동북지역은 국유 부문의 비중이 아직까지 5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동북지역에서 주도산업 내 선도기업은 거의 대부분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다.¹⁹⁾ 이처럼 동북지역 경제

18) 『2016 辽宁统计年鉴』(<http://www.ln.stats.gov.cn/tjsj/sjcx/ndsjsj/otherpages/2016/indexch.htm>, 검색일: 2017. 7. 24). 헤이룽장성 통계국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3~14년(누계)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을 계산한 결과 홍콩(66.9%), 버진군도(6.3%), 싱가포르(5.1%), 영국(4.3%) 등이 주요 투자국이었던(헤이룽장성 통계국(<http://www.hlj.stats.gov.cn/tjnj>), 검색일: 2017. 7. 24). 지린성은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대해 국가별·업종별 세부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는 국유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민영경제는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전국공상연합회(中华全国工商业联合会)에서 2016년에 발표한 중국 500대 민영기업 리스트에는 랴오닝성의 기업이 7개 포함되었으며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은 1개씩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그림 2-14]는 동북지역 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공업 부문에서의 국유기업 비중을 표시하였다.²¹⁾ 공업기업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기업 수 기준)은 2000년에 동북지역이 50.0%로 절반을 차지했으나 이후 국유기업 개혁이 진행되면서 동북지역의 국유기업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중국 평균(4.5%)에 근접한 5.1%까지 하락하였다. 동북진흥 12·5 규획이 시행되었던 2011~15년에는 국유기업 개혁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국유기업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소폭 상승하여 2015년 6.4%를 차지하였다.

그림 2-13. 공업 부문에서의 국유기업 비중



자료: CEIC(검색일: 2017. 7. 1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19) 瞭望(2015. 11. 20), 「东北振兴再出发」, http://mp.weixin.qq.com/s?__biz=MjM5NzUzNjE2MwA=&mid=400871396&idx=2&sn=39543f2dfefd24002f1ca2c4ae28e79a&scene=21#wechat_redirect(검색일: 2017. 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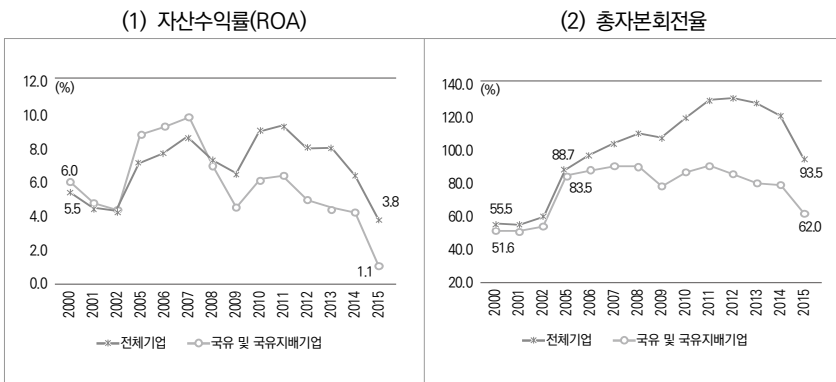
20) 가장 많은 민영기업을 포함한 지역은 저장성(134개)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장쑤성(94개), 광둥성(50개), 산둥성(48개) 등의 순이었다. 中华全国工商业联合会(2016), 「2016中国民营企业500强榜单」(http://www.aicc.org.cn/web/c_000000010003000100010002/d_46979.htm, 검색일: 2017. 8. 2).

21) 부가가치 기준으로 동북지역에서 GRDP 대비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14년 평균 43.7%였고, 2015년에는 37.1%를 기록하였다. CEIC(검색일: 2017. 7. 10).

동북지역의 공업총생산과 공업 부문 총자산 가운데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비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공업기업 중 50%를 차지한 국유기업이 공업총생산액의 74.8%와 총자산의 82.6%를 차지한 반면 2011년에는 5.5% 비중의 국유기업이 공업총생산액의 36.9%, 2015년에는 6.4% 비중의 국유기업이 총자산의 51.6%를 차지해 국유기업 수는 감소했으나 점차 대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북지역 국유기업이 중국 전체 평균에 비해 대형화되었으나 비효율성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은 자산수익률(ROA)과 총자본회전율(또는 총자산회전율)로 확인할 수 있다. 이윤총액을 총자산으로 나눠서 구하는 자산수익률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의상 자산 1단위당 얼마만큼의 이윤을 얻었는지 표시하기 때문에 그 값이 클수록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²²⁾ 그러나 동북지역 공업 부문 국유기업의 자산수익률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자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8년

그림 2-14. 동북지역 공업기업의 자산수익률 및 총자본회전율



주: 2003년과 2004년도에는 관련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음.

자료: CNKI, 『중국공업통계연감』(<http://tongji.oversea.cnki.net>, 검색일: 2017. 8. 1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2) 매일경제-용어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931&cid=43659&categoryId=43659>, 검색일: 2017. 7. 20).

이후 동북지역 전체 공업기업의 자산수익률에 비해 그 값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유기업의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눠서 구하는 총자본회전율(또는 총자산회전율)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정의상 그 값이 작을수록 매출액에 비해 투자나 설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다함을 표시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낮아짐을 의미한다.²³⁾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총자본회전율이 2011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효율성이 낮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전체 공업기업보다 총자본회전율이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유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긴밀한 관계로 국유기업 경영에 지방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동북지역에서 생산능력과잉과 많은 비이성적 투자행위가 출현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²⁴⁾ 또한 동북지역 경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국유기업에 대해 2011년 이후 개혁이 진행되면서 양적인 측면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은 크게 낮아졌으나 국유기업의 이윤율 저하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²⁵⁾

23) 한경 경제용어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4946&cid=42107&categoryId=42107>, 검색일: 2017. 7. 20).

24) 瞭望(2015. 11. 20), 「东北振兴再出发」, http://mp.weixin.qq.com/s?__biz=MjM5NzUzNjE2MA==&mid=400871396&idx=2&sn=39543f2dfefd24002f1ca2c4ae28e79a&scene=21#wechat_redirect(검색일: 2017. 6. 13).

25) 이상훈, 허유미(2016b), 「중국의 지역별 산업고도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라오닝성」, 지역 기초자료 16-10, pp. 7~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동북지역의 산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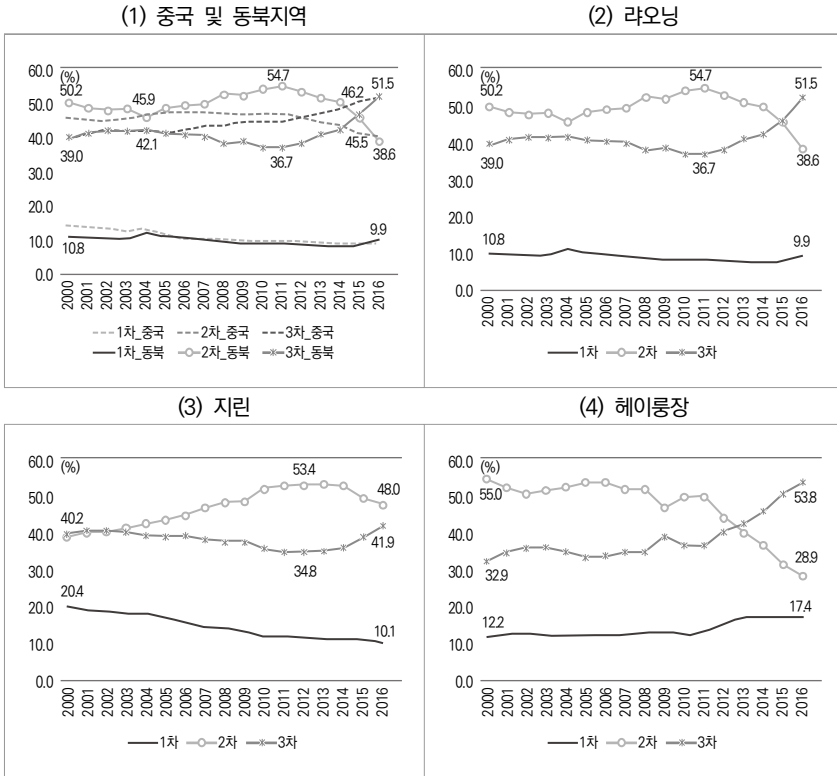
가. 산업별·업종별 구조

1) 산업별 구조

동북지역은 건국 초기 공업분야에 집중된 프로젝트의 추진과 자원 우위를 토대로 발전한 원자재와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중공업이 발전하면서 2차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며 성장해왔다. 특히 2003년부터 동북진흥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여타 부문을 상회하면서 동북지역의 2차 산업이 전국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2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2011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던 2차 산업의 비중은 2011년 54.7%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이후에는 급락세를 보이며 2016년 그 비중이 38.6%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2차 산업과 정반대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3차 산업의 비중은 2011년 36.7%로 최저점에 이른 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6년 51.5%의 비중을 나타냈다.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상반된 추이를 나타내며 동북지역은 2015년부터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을 상회하는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 전체적으로는 2012년을 기점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을 초과한 반면 동북지역은 산업 구조의 변화가 다소 늦게 나타났다. 이는 동북지역의 경제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컸기 때문에 산업 구조의 전환이 그만큼 더디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5. 중국 및 동북지역의 산업별 비중 추이



자료: CEIC(검색일: 2017. 7. 1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지역별 산업 구조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면 헤이룽장성은 세 지역 가운데 2차 산업과 3차 산업 간의 구조 변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져 2013년에 3차 산업 주도의 경제로 돌아섰으며 랴오닝성은 2016년이 되어야 산업 구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동북지역에서도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는 1차 산업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으나 헤이룽장성은 1차 산업의 비중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지린성의 경우 2012년을 기점으로 산업별 비중에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나 2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2차 산업 주도의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2차 산업은 48.0%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동북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 업종별 구조

최근까지도 2차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동북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비교우위를 보유한 업종은 무엇인지, 산업 내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제조업 세부업종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2-7 참고).

1997년과 비교해서 업종별 매출액 비중이 크게 증가한 업종은 1997~2015년 사이에 해당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신흥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랴오닝성에서는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8.2%p)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6.1%p) △식료품 제조업(4.8%p)이, 지린성에서는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28.8%p) △식료품 제조업(11.2%p)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7.5%p)이, 헤이룽장성에서는 △식료품 제조업(20.0%p)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4.6%p)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1.5%p)이 신흥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었다. 식료품 제조업과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세 지역에서 모두 빠르게 성장한 업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세 지역에서 신흥 성장 산업으로 분류된 업종들은 대부분 기술 수준이 낮은 것이 특징적이다.

반대로 1997년과 비교해서 업종별 매출액 비중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1997~2015년 사이에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랴오닝성에서는 △1차금속 제조업(-11.5)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3.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2.4)이, 지린성에서는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33.6)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8.9) △1차금속 제조업(-4.7)이, 헤이룽장성에서는 코크

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6.5)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4.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3.6)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도태된 업종이었다. 이들 업종은 비교적 기술 수준이 높은 업종들이어서 1997~2015년 사이에 동북지역 제조업은 고도화가 많이 지체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2-7. 중국 및 동북지역의 업종별·기술 수준별 비중

(단위: %)

	전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2015	비중 변화	2015	비중 변화	2015	비중 변화	2015	비중 변화
제조업 업종별								
식료품 제조업	8.8	0.3	11.1	4.8	17.3	11.2	37.3	20.0
음료 제조업	1.8	-1.0	1.1	-0.4	2.7	-0.1	3.6	-0.6
담배 제조업	0.9	-1.5	0.3	0.0	0.7	-0.2	1.2	-1.0
섬유제품 제조업	4.8	-4.5	0.9	-2.7	1.1	-2.4	1.0	-3.1
의복모파가족신발 제조업	3.7	-1.2	1.9	-0.6	0.7	-0.2	1.2	0.2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1.4	0.4	1.0	0.3	4.4	2.6	5.1	0.9
가구 제조업	0.8	0.3	0.6	0.3	0.7	0.2	0.9	-0.2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1.4	-0.6	0.7	-0.5	0.7	-1.2	0.8	-1.6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7	-0.2	0.3	-0.5	0.4	-0.3	0.3	-0.5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3.5	-1.3	11.3	-4.2	0.9	-1.8	11.3	-6.5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8.5	0.5	6.9	-1.4	7.2	-8.9	5.9	1.2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2.6	0.4	2.1	0.6	8.1	4.7	4.4	1.5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1	5.4	10.9	8.2	9.3	7.5	7.7	4.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4	0.3	11.2	6.1	2.7	-2.6	1.6	-3.6
1차금속 제조업	9.0	-0.6	6.5	-11.5	2.7	-4.7	2.2	-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8	1.4	7.6	4.2	2.3	0.9	3.8	0.8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10.8	2.8	14.2	3.5	33.1	28.8	5.2	-3.3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	1.9	-5.5	3.5	-3.8	1.9	-33.6	2.3	-4.5
전기장비 제조업	7.0	1.3	4.6	-0.3	1.9	0.6	2.5	-0.9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9.3	2.4	2.1	-2.4	0.4	-0.8	0.3	-1.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0.9	-0.2	0.5	-0.1	0.2	-0.2	0.3	-0.2
기타 제품 제조업	1.9	1.1	0.5	0.4	0.4	0.4	1.1	0.8
합계	100.0	-	100.0	-	100.0	-	100.0	-

표 2-7. 계속

	전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2015	비중 변화	2015	비중 변화	2015	비중 변화	2015	비중 변화
기술 수준별								
첨단기술	12.8	2.5	4.7	-1.8	8.8	3.7	5.0	-0.4
중고위기술	28.2	-0.8	29.3	-2.0	44.1	-13.1	15.9	-7.4
중저위기술	32.7	5.3	47.6	2.8	18.0	-0.6	26.6	-7.0
저위기술	26.3	-7.0	18.4	1.1	29.1	10.0	52.5	14.9
합계	100.0	-	100.0	-	100.0	-	100.0	-

주: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기술 수준 구분은 OECD(2003)의 분류기준을 따름; 비중 변화는 1997년 대비 2015년 비중의 변화를 나타냄. 볼드체는 각 지역의 매출액 상위 3개 업종(의 비중)을 표시함. 자료: CNKI, 『중국공업통계연감』(1998년, 2016년)의 데이터(검색일: 2017. 8. 10)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동북지역에서 산업 고도화가 이루어졌는지는 기술 수준별 비중의 변화를 통해서도 관찰해볼 수 있다.²⁶⁾ 1997~2015년 사이에 중국 전체적으로는 첨단기술산업과 중저위기술산업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저위기술산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급격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고도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북 3성에서는 기술 수준이 높은 산업(첨단기술+중고위기술)에서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반면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에서의 비중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산업 고도화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린성이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가 진행되었으며 헤이룽장성은 이와 반대로 기술 수준이 제일 낮은 저위기술산업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산업 고도화를 이해하려면 중국이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즉 중국이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은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고 어떠한 공정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하지만 이 분석에서는 통계자료의 입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 고도화를 기술 수준별 산업군의 비중 변화로 파악하였다.

3) 주도산업²⁷⁾

[표 2-8]에서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 주도산업을 정리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식품 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세 지역 모두에서 주도산업으로 분류되었다. 1997년에는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이 모든 지역에서 주도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2015년에는 세 지역 모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주도적’ 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상위 5개 업종에 대한 산업집중도는 1997년에 비해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랴오닝성을 제외하고 지린성이나 헤이룽장성에서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동북 3성의 지역별 주도산업

	1997년		2015년	
	업종명	비중(%)	업종명	비중(%)
랴오닝	1차 금속 제조업	18.0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14.2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5.5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1.3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10.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2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8.3	식품 제조업	11.1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	7.3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9
	(상위 5개 업종 소계)	59.8	(상위 5개 업종 소계)	58.7
지린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	35.5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3.1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16.1	식품 제조업	17.3
	1차 금속 제조업	7.4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3
	식품제조업	6.0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8.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3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7.2
	(상위 5개 업종 소계)	70.3	(상위 5개 업종 소계)	75.0

27) 주도산업(leading industry)은 경제발전 각 단계에서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분석에서는 각 지역(省)의 제조업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위 5개 업종을 주도산업으로 정의하였다.

표 2-8. 계속

	1997년		2015년	
	업종명	비중(%)	업종명	비중(%)
헤이룽장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7.8	식품 제조업	37.3
	식품제조업	17.3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1.3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8.5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7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	6.8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5.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2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5.2
	(상위 5개 업종 소계)	55.6	(상위 5개 업종 소계)	67.4

주: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볼드체는 1997년과 2015년 모두 주도산업에 포함된 업종을 표시함.

자료: CNKI, 『중국공업통계연감』(1998년, 2016년)의 데이터(검색일: 2017. 8. 10)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나. 지역별 비교우위산업²⁸⁾

동북 3성 지역별로 세부적인 비교우위산업 또는 특화산업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산업의 상대적인 비중을 나타내는 입지계수(LQ)를 활용하였으며²⁹⁾ 계산 결과는 [표 2-9]에 정리되어 있다.

지역별로 비교우위산업을 살펴보면 헤이룽장성이 8개의 업종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랴오닝성이 7개의 업종에서, 지린성은 6개의 업종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이는 1997년과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를 갖는 업종이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 각 2개씩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북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비

28) 비교우위산업(또는 특화산업)은 한 지역의 특정 산업이 다른 지역의 해당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하며 이 분석에서는 업종별 매출액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지계수를 계산함으로써 특화산업을 선정하였다.

29) 일반적으로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 coefficient) 값이 1을 초과할 경우 특정 지역의 해당 산업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1과 같을 때는 전국과 동일한 산업구성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한다. 입지계수가 2 이상일 경우 특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입지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LQ_{ij} = \frac{X_{ij}/X_j}{X_i/X} = \frac{j \text{지역에서 } i \text{업종의 비중}}{\text{전국에서 } i \text{업종의 비중}} \quad \text{단 } LQ_{ij} \text{는 } j \text{지역 } i \text{산업의 입지계수, } X \text{는 전국 제조}$$

업의 총매출액, X_i 는 전국 i 업종의 매출액, X_j 는 j 지역 제조업의 총매출액, X_{ij} : j 지역 i 업종의 매출액을 의미함.

교우위가 다소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북지역의 주도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표 2-8]과 [표 2-9]를 비교하였더니 2015년을 기준으로 랴오닝성의 주도산업들은 모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린성은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이룽장성은 주도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만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표 2-9. 동북 3성 각 지역의 업종별 입지계수(LQ)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2015	입지계수 변화	2015	입지계수 변화	2015	입지계수 변화
식료품제조업	1.26	0.52	1.95	1.25	4.22	2.20
음료 제조업	0.62	0.07	1.51	0.52	2.05	0.55
담배 제조업	0.31	0.19	0.78	0.38	1.24	0.33
섬유제품 제조업	0.19	-0.19	0.22	-0.14	0.22	-0.22
의복모파·가죽신발 제조업	0.50	-0.01	0.19	0.00	0.33	0.12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0.73	0.00	3.11	1.28	3.59	-0.62
가구 제조업	0.81	0.21	0.88	-0.03	1.09	-1.09
펠트·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51	-0.10	0.52	-0.41	0.56	-0.62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35	-0.39	0.52	-0.20	0.44	-0.3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3.23	-0.03	0.26	-0.32	3.22	-0.52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0.81	-0.24	0.86	-1.18	0.70	0.11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80	0.15	3.13	1.57	1.68	0.37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0	0.47	1.03	0.54	0.85	0.0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76	0.92	0.43	-0.44	0.25	-0.61
1차 금속 제조업	0.73	-1.17	0.30	-0.48	0.25	-0.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60	0.58	0.48	0.07	0.81	-0.0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1.32	-0.02	3.06	2.53	0.48	-0.58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	1.82	0.83	0.97	-3.82	1.21	0.29
전기장비 제조업	0.66	-0.21	0.27	0.04	0.35	-0.24

표 2-9. 계속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2015	입지계수 변화	2015	입지계수 변화	2015	입지계수 변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0.22	-0.42	0.05	-0.14	0.03	-0.26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0.61	0.07	0.28	-0.09	0.38	-0.09
기타 제품 제조업	0.25	0.10	0.23	0.15	0.59	0.22

주: 입지계수 변화는 1997년 입지계수 대비 2015년 입지계수가 얼마만큼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내며 그 값이 양(+)이면 비교 우위의 개선을, 그 값이 음(-)이면 비교우위 약화를 의미함.

자료: CNKI, 『중국공업통계연감』(1998년, 2016년)의 데이터(검색일: 2017. 8. 10)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1997년과 2015년의 입지계수를 비교했을 때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된 업종이 있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랴오닝성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지린성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헤이룽장성은 △담배 제조업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이 비교우위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3. 최근의 정책 동향

가. 동북진흥 13·5 계획

2013년 이후 중국경제가 신창타이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경우 2013년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둔화와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라는 중국경제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점 외에도 구조적이고 체제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중국 내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되었다. 즉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세계적인 경

기둔화세에도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끝난 후 동북지역에서는 대규모 투자에도 경기가 급락하는 ‘성장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동북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역 내 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이 요구되었다.³⁰⁾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최근 동북지역의 경기둔화 원인으로 대외적 요인 외에 대내적 요인으로 구조적·체제적 모순의 심화에 주목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북지역의 경기진작을 목표로 한 새로운 정책들을 2014년 이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집대성하여 2016년 11월에는 「동북진흥 13·5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2020년까지의 중기적 발전목표와 지원정책을 구체화하였다.³¹⁾

동북진흥 13·5 계획(이하 ‘신동북진흥정책’)은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의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데 4대 기본 요구사항으로 체제기제 완비, 구조조정 추진, 혁신·창업 장려, 민생 보장 및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체제기제 개혁과 혁신, 발전방식 전환 등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소강사회 전면 건설이라는 목표와 함께 경제의 건강한 발전 혁신주도형 발전능력의 강화, 구조조정, 주민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 생태환경 보호 등 5개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발전목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 대비 도농 주민소득 2배 증대,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6.2% 달성, GRDP 대비 R&D 투자 비중 2.1% 달성, 인구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 6.9건 달성, 농촌지역에서의 6차 산업화 발전, 공업 부문 중점 업종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서비스업 비중 47.4%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30) 중국사회과학원 공업연구소 관계자와의 현지 인터뷰(2017. 6. 30).

3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동북진흥사 관계자와의 현지 인터뷰(2017. 6. 28).

표 2-10. 동북지역의 경기 진작과 관련한 주요 정책

정책명	발표시기	발표기관	주요 내용
동북진흥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중요 정책 조치에 관한 의견	2014.8	국무원	· 동북지역 경제발전의 성과 확산을 공고히 하고 발전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내생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 · 시장 활력 강화, 국유기업 개혁 심화, 혁신주도 발전 추진 등 11개 중점 추진 정책 제시
동북노후공업기지 혁신 창업발전 촉진 및 새로운 경쟁우위 조성에 관한 실시의견	2015.6	발전개혁 위원회, 과기부, 인사부 등	· 동북 노후공업기지의 발전방식을 요소의존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지역 경쟁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 발표 · 혁신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체제기제 완비, 시장지향형 기술혁신체계 수립, 산업의 경쟁우위 조성, 인재 육성 등을 강조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전면 진흥에 관한 몇 가지 의견	2016.4	중공중앙, 국무원	·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의 중요성과 2020년까지의 주요 발전 목표 제시 · 체제기제 완비, 구조조정 추진, 혁신과 창업 장려, 민생 보장 및 개선 등에 관한 정책 제시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 추진 3개년 실시방안 (2016~2018년)	2016.8	발전개혁 위원회	·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의 전면 진흥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역의 2018년까지의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 임 무완성 시기 제시 · 2018년까지 추진될 137개 중점 업무와 연도별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명기
새로운 동북진흥전략의 심화 추진 및 동북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전 가속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중요 조치에 관한 의견	2016.11	국무원	· 새로운 동북진흥전략의 심도 있는 추진과 동북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 구체화 · 개혁 심화, 혁신주도형 발전방식으로서의 전환, 개방협력의 확대 등 14개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와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제시
동북진흥 13·5 계획	2016.11	발전개혁 위원회	· 2020년까지 진행될 동북진흥전략의 중기적 발전목표와 주요 정책조치 집대성 · 5대 발전 목표와 10개 분야 39개 세부 정책을 제시

자료: 国务院(2014), 「关于近期支持东北振兴若干重大政策举措的意见」; 国家发展改革委·科技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中科院(2015), 「关于促进东北老工业基地创新创业发展打造竞争新优势的实施意见」; 中共中央·国务院(2016), 「关于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 国家发展改革委(2016), 「推进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三年滚动实施方案(2016-18年)」; 国务院(2016b), 「关于深入推进实施新一轮东北振兴战略加快推动东北地区经济企稳向好若干重要举措的意见」; 国家发展改革委(2016), 「东北振兴“十三五”规划」.

그 밖에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발전의 신동력 육성 조화 △농업현대화 제고 △지역발전의 신공간 개척 △특수지역 발전모델의 전환 촉진 △지역 인프라 네트워크의 완비 △생태환경 보호 △주민복지 증진 등 10개 주요 분야에서 추진될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투자환경 개선, 국유기업 개혁의 심화, 산업 구조 고도화, 대외개방 플랫폼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신동북진흥전략은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경제 활력의 증대, 경제 성장의 동력 강화, 개방 확대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내재적인 활력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정체제의 개혁, 철강·석탄 등 생산과잉업종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공급 측 개혁의 추진,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육성과 창업·혁신의 강화, 구조전환의 가속화, 중점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으로 교통 및 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개방과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동북지역과 중국의 연해지역 간의 상호 협력 강화, 자유무역시범구와 같은 개방 플랫폼 건설 촉진, 동북아 경제협력과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동북진흥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동북지역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 장비제조업기지, 중요 기술장비 전략기지, 북방 지역의 중요한 생태공간, 동북아를 대상으로 한 중요한 개방 창구, 중국의 중요한 식량생산기지로 발전시켜 새로운 핵심 성장지역으로 삼으려 한다.³²⁾

1) 중점 투자분야

동북지역은 중앙정부의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행정절차의 복잡성, 기업의 자산운용 비효율성 등 투자유인책이 부족하여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제약요건이 있다. 특히 투자 중심의 성장방식은 투자구조와

3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동북진흥사 관계자와의 현지 인터뷰(2017. 6. 28).

투자의 효율성이 개선되어야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으나 동북지역의 경우 자산수익률(ROA)이나 총자본회전율 등 투자의 효율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 또는 국유부문의 투자 외에도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북지역에서의 민간투자는 최근까지도 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지역에서는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정부부문의 투자 위축을 초래했고 이는 또다시 동북지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재정수입 감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³³⁾ 동북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부문과 서비스부문에서의 투자 활성화가 관건이나 아직까지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 유인도 미약한 수준이다.³⁴⁾

중국은 2016년 8월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 진흥 추진 3개년 실시방안」(이하 '실시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6~18년 동북지역에서는 체제기제 완비, 구조조정, 혁신·창업, 민생 보장 및 개선의 4대 핵심임무를 중점으로 연도별로 추진할 137개 중점 업무를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전면 진흥에 관한 몇 가지 의견」과 「동북진흥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중요 정책 조치에 관한 의견」에서 제시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실시 방안'에 따르면 동북지역 경제의 취약점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과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에 관련된 127개의 중요 투자 프로젝트가 착공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부터 각각 62개, 33개, 32개의 항목이 착공될 것이며 투자 분야는 철도·고속도로·공항·궤도교통 등 교통 인프라, 에너지, 수리, 공업, 농업, 도농 건설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³⁵⁾

동북지역은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의 조성, 기업의 용자난 해소를 위해 2017년 6월 이전에 최소 한 개 이상의 민영은행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동북지역 최초의 민영은행인 지린이렌(吉林

33) 上证观察家(2017), 「求解东北投融资困局」(1月 10日).

34) The diplomat(2017), "Can Russia Save Northeast China's Economy?"(4. 8).

35) 华尔街见闻(2016), 「靠什么拯救东北经济? 靠投资? 靠国企?」(10月 27日).

亿联)은행이 창춘(长春)에서 설립되어 지난 5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기존 은행들과의 상호발전으로 융자난을 해결하고 금융환경 개선을 모색하고자 한다.³⁶⁾

그 밖에 동북지역은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 간소화, 정부기능 투명화, 리스크 관리 강화, 조세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심각한 투자 부진을 겪고 있는 랴오닝성은 투자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12월 동북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의 규범화를 위해 지방조례를 발표한 바 있다.

2) 국유기업 개혁의 확대

「동북진흥 12·5 계획」(이하 ‘구동북진흥정책’)에서도 국유기업 개혁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었는데 국유기업의 시장화와 국유자산 분포의 최적화, 중점산업 육성 및 부실기업 퇴출,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 국유기업 육성 및 경영효율화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정책의 추진에도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지배구조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혁신능력 부족과 경영리스크 회피 경향으로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에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³⁷⁾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구동북진흥정책의 주요 내용을 계승하고 △국유경제 전략적 분포의 최적화 △혼합소유제의 발전 △국유자산 관리 체계의 완비 등을 제시하였다.

국유경제 전략적 분포의 최적화를 위해 현대농업, 전략적 신흥 산업, 현대 서비스업 등의 영역에서 선도기업의 혁신발전을 추진하고 국유경제의 경쟁력 우위를 강조하였다. 또한 교통·에너지·장비제조 등 주요 인프라 및 전통제조업에서의 국유기업 간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경쟁력을 갖춘 우위기업으로 국유자

36) 上海证券报(2017), 「东北首家民营银行昨开业」(5月 17日).

37) 瞭望(2016b), 「东北振兴遭遇这“两大流失”」(11月 22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6. 13).

본이 집중되도록 할 예정이다. 석탄·철강 등 과잉생산 영역에서는 적자생존의 시장기제를 수립하여 과잉생산 시설을 점진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인수합병(M&A)으로 산업 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혼합소유제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국유경제의 활력과 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전략적 투자자 유입, 기업의 상장 추진, 사원주주제 실시 등으로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북지역의 국유기업이 먼저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기업과 민영자본이 동북지역 중앙기업 및 그 자회사의 재산권제도 개혁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중앙기업과 지방간 융합발전, 지방발전을 견인하는 산업과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기업의 국유자산 관리체제 완비를 위해 자본 관리 위주로 국유자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권력·자금·자원·일자리가 집중된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유자산 출자인의 감독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경영성 국유자산에 대한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하며 국유자본 경영예산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3) 산업 구조 고도화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동북지역의 제조업 효율 향상과 분업 및 협력 발전을 유도하고 현대 서비스업의 제조업 고도화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하며 인터넷의 심도 있고 광범위한 응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장비제조업의 고도화 추진, 전통산업구조의 조정 및 최적화, 신산업과 신업태의 적극 발전, 서비스업의 효율적인 발전 촉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11. 동북지역의 산업 구조 고도화 추진 상황

구분	업종/지역	주요 내용
장비제조업 고도화	전력장비	· 원자력발전 장비, 대형고효율의 석탄발전 장비, 초대용량 수력발전 장비, 초고압 송전 장비, 스마트그리드 장비 등
	우주항공장비	· 헬리콥터, 일반항공기, 경량 다용도 항공기, 무인기, 인공위성, 우주선 장비, 신형 항공엔진, 항공기 동력전달시스템, 핵심부품 등
	궤도교통장비	· 고속철 전동차, 신형 내연기관자동차, 화물기차, 궤도전차, 도시고속 궤도열차 등 궤도교통장비 · 도시궤도교통통제시스템, 자동차신호설비 등 핵심 설비 및 부품
	스마트제조장비	· 고정밀 · 고성능 측정설비, 고정밀 디지털제어장비, 3D프린터 설비, 로봇 및 핵심 부품
	농기계장비	· 종합수확탈곡기계, 정밀파종 · 시비기계, 정지기계, 축산업용 기계, 대형농기계제어시스템 등
	선박 · 해양공정장비	· 고기술선박, 대형원양선박, 호화형 크루즈, 해양광산자원개발장비, 심해탐사 · 측정장비, 해상작업장비 등
	신에너지장비	· 풍력발전장비, 고성능 태양에너지 전지, 분포식 태양광발전
	석유화학 산업장비	· 대형석유화학제품 관련 생산라인, 대형천연가스액화 생산라인, 대형 석탄화공 생산라인, 대형 고품질석유정제장비, 석유채굴장비 등
	야금산업장비	· 대형고효율 금속내열기, 철강고효율정밀설비, 철광석 정제설비, 첨단압연장비 등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 육성	랴오닝성	· 민용항공산업클러스터(선양), 로봇산업클러스터(선양-다렌), 해양공정장비산업클러스터(다렌-판진), 신에너지자동차산업클러스터(선양), 바이오의약산업클러스터(다렌-번시), 레이저응용산업클러스터(안산), 정보기술 및 서비스산업클러스터(다렌), 집적회로 디자인 및 제조산업클러스터(다렌)
	지린성	· 바이오의약 산업클러스터(창춘, 통화, 연변), 전자제품제조산업클러스터(창춘-지린), 고성능화학섬유복합소재산업클러스터(지린-통화), 인공위성 및 응용산업클러스터(창춘), 궤도차량제조산업클러스터(창춘), 자동차전자산업클러스터(창춘)
	헤이룽장성	· 바이오의약산업클러스터(하얼빈-다칭-무단징), 클라우드 컴퓨팅산업클러스터(하얼빈), 흑연신소재산업클러스터(지시), 로봇산업클러스터(하얼빈), 청정에너지장비산업클러스터(하얼빈-치치하얼), 첨단 석유화학산업클러스터(다칭)

자료: 国家发展改革委(2016), 「东北振兴“十三五”规划」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우선 장비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첨단 장비제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정보화와 산업화의 긴밀한 융합을 촉진하며 군민 융합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 장비제조업기지와 중요 기술장비 전략기지 건설을 목표로 장비제조업의 전환 및 고도화를 가속 추진하고 장비제조업 혁신센터 설립으로 핵심 부품, 선진적인 기초기술 등 공업 분야의 기초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써 동북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자주혁신체계를 완비하고 기초연구 및 관건기술연구를 강화하며 내연기관 및 항공기 엔진 등 영역에서의 중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신동북진흥정책은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적극 추진하되 이를 동북지역의 산업 구조 고도화정책에 적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도산업 중에서도 장비제조업의 고도화를 중시하여 선진 장비제조 및 주요 장비제조 기지를 조성하고 CNC선반·공업로봇 등의 스마트제조장비 분야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전통산업 분야에서는 공급과잉 설비의 효과적인 해소와 정밀가공 수준의 향상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전통제조업 부문에서의 기술 개조와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 제조·친환경 제조·정밀 제조·서비스형 제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소모·환경보호·안전생산에 대해 표준에 이르지 못했거나 품질 불합격 제품에 대해서는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점진적으로 생산 정지 및 시장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정책 지원과 불량자산 처리, 잉여노동력 배치, 장려금(또는 보조금)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의 M&A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화 방법에 의거하여 중비기업을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출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현대 물류업,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을 첨단화하고 컨벤션 산업 등의 생산자 서비스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며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하는 국가서비스업 종합개혁시범사업

을 전개할 계획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공업기업이 제품 R&D와 디자인의 발전, 솔루션 디자인 등 첨단 서비스업의 발전을 장려하여 생산 제조형에서 생산 서비스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소비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되 여행·문화·건강·양로·의료 등 새로운 소비성장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나. 지역별 13·5 계획

중국경제가 신장타이에 접어든 이후 경기침체에 빠진 동북 3성은 모두 안정적인 성장을 13·5 계획 기간의 가장 긴박한 임무로 삼고 있다. 동북지역이 직면해 있는 경기하방압력을 해소하고 산업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각 성정부는 13·5 계획으로 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산업생산 증가율 둔화는 억제하고자 하며 비교우위를 갖춘 부문을 찾아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민간소비를 적극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책목표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13·5 계획 기간 동북지역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혁신을 제시하였으며 중점업무로 국유기업 및 행정관리체계의 개혁, 시장화 개혁 등 정부직능과 국유부문의 개혁 및 효율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지역별 13·5 계획은 주요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1) 랴오닝성³⁸⁾

랴오닝성은 13·5 계획에서 주요 발전목표로 △중점영역 개혁 △구조조정 △혁신·창업 장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유부문에 의해 구조전환이 지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경제구조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과 효율성 제고에 주력

38) 이상훈, 허유미(2016a),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동북지역」, 지역 기초자료 16-04, pp. 12~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

함으로써 경제의 합리적인 구간 내 성장, 즉 6% 내외의 성장률 달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수리·전력·통신 등의 인프라 건설과 함께 투자유치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랴오닝성은 13·5 계획 기간 제도개혁 추진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를 개선하고 산업고도화를 진전시킬 계획이다. 정부, 국유기업, 시장화, 농촌, 대외개방 등과 관련한 제도를 개혁하여 무역·투자·기술혁신을 활성화하고 내수시장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또한 경제의 수급구조와 지역간 조화발전 등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고 산업의 정보화와 고도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제조 2025’, 혁신 주도형 성장 등 중앙정부가 제시한 발전전략을 지역에서 적극 추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표 2-12. 랴오닝성의 산업 구조 고도화 관련 주요 정책

분야	주요 내용
전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제조업의 첨단화 발전 추진, 차세대 정보기술(IT)과 장비제조업 융합 · 국가 첨단·스마트 장비 제조 전략기지 및 핵심 클러스터 건설 · 원자재산업 구조 최적화: 가공 수준 제고, 산업 사슬 연장 · IT산업 발전: 인터넷과 실물경제의 융합발전, 인터넷 플러스(+) 전략 추진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 우위산업 클러스터 발전, 산업 집중도 및 경쟁력 제고
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제조, 스마트 서비스 프로젝트 적극 추진 · 중점 산업: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첨단공작기계, 로봇, 바이오의료,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 육성 산업: 소프트웨어, IT서비스업, 집적회로, 에너지 저장기술, 해양 플랜트 등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서비스업 발전: 연구 설계, 물류, 정보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 소비자 서비스업 발전: 사회 서비스업, 부동산, 관광 등 · 금융산업 발전: 금융 기구·상품·수단 다양화, 선양·다렌 지역금융센터 건설 · 서비스업 개방 확대: 현대 서비스업 클러스터 건설

자료: 이상훈, 허유미(2016a),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동북지역』, 지역 기초자료 16-04, p. 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재인용.

2) 지린성³⁹⁾

지린성은 13·5 계획에서 5대 발전이념을 토대로 △중속성장 유지 △지역 균형발전 △경제구조의 실질적인 전환 △민생 개선 △전면적인 개혁개방 심화라는 5대 발전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공업 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3대 주력산업과 4대 우위산업 및 신산업의 발전, ⁴⁰⁾ 요소공급 보장 강화, 중점기업의 역량 강화, 소비재에 대한 유효공급능력 개선, 비용 감축 및 효율 증대, 제조업 고도화, 과잉생산설비 해소, 한계기업 퇴출 등을 제시하였다.

지린성은 러시아·북한과 접경하고 중국 내륙을 동해와 연결하는 요충지이나 낙후된 물류산업 및 교통 인프라로 그동안 발전이 지체된 지역이다. 동북 지역과 지린성은 원자재·중화학공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로 원활한 자원 조달과 안정적인 투자 유치가 성장의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으나 지린성은 동북지역 가운데 교통 인프라가 가장 낙후되어 성장의 병목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린성은 13·5 계획에서는 도로 및 철도를 연장하고 항구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 구축과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창지투(长吉图)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주변 지역 및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⁴¹⁾

특히 지린성은 13·5 계획 기간 창지투 개발계획을 확대해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고 중국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역내외 물류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훈춘을 통해 동해로 연결되는 해양경제권을 형성하고 옌지(延吉)·룽징(龙井)·투먼(图们) 지역을 포괄하는 옌룽투 삼각지를

39) 이상훈, 허유미(2016a),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동북지역」, 지역 기초자료 16-04, pp. 15~17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

40) 3대 주력산업에는 △자동차 △석유화학 △농식품가공, 4대 우위산업에는 △의약품 △장비제조 △건축 △관광, 신산업에는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신소재 △공업용 로봇 △3D 프린터 △인공위성응용 데이터산업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41) 창지투 개발계획에는 창춘(长春), 지린(吉林), 투먼(图们), 옌지(延吉), 룽징(龙井), 훈춘(珲春) 등이 포함된다.

적극 활용하여 한국·일본과 연결되는 육상·해상 국제 물류항로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히 라오닝성의 단둥·다롄·잉커우(营口), 네이멍구의 만저우리(满洲里), 헤이룽장성의 쑤이펀허(绥芬河) 등과 우선적으로 통관 절차의 일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3) 헤이룽장성⁴²⁾

헤이룽장성은 혁신·조화·녹색·개방·조화의 5대 발전이념하에 △경제 효율성 제고 △경제구조 전환 △민생 개선 △생태문명 건설 △개혁 심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중점추진할 업무로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중몽려 경제회랑 구축을 제시하고 △러시아와 과학기술·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인프라 건설 및 상호 연계 추진 △중·러 간 송유관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러시아 내 해외경제협력구 건설로 에너지·화공·농업·임업 등에서의 국경간 산업체인 구축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건설 참여 추진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헤이룽장은 성장 둔화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방형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3·5 계획 기간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룽장 실크로드경제벨트’ 구축을 적극 추진해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교류협력 확대, 투자 유치, 시장 확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자 한다.

13·5 계획 기간은 룽장 실크로드경제벨트 사업의 2단계(2016~20년)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대동로’ 구축사업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대러시아 협력 강화 △인프라 연계 △경제구 조성 △변경지역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개방 범위

42) 이상훈, 허유미(2016a),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동북지역」, 지역 기초자료 16-04, pp. 17~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

를 더욱 확대한 대외개방 플랫폼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질 계획이다. 특히 이 시기에 헤이룽장성은 하얼빈공항공경제구(哈尔滨临空经济区), 하얼빈종합보세구(哈尔滨综合保税区), 초국경경제합작구(跨境经济合作区) 등 다양한 경제협력구를 조성하여 무역을 촉진하고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비제조업·광업·화학공업·농업·임업에 역점을 둔 산업체인과 초국경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대외개방 플랫폼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 주요 개방정책

13·5 계획 기간 동북지역은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국제생산능력과 장비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전방위적인 대외개방 전략을 최적화하여 동북지역을 북방지역 개방의 중요한 창구이자 동북아시아 협력의 허브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1)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적극 참여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및 유라시아 대통로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전략과의 정책적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러시아·몽골과 함께 도로·철도·항공·항구 등 기초 인프라 구축사업을 공동으로 계획하여 국제물류통로·국경지역 기초 인프라 및 국경간 물류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 나라 간 정기적인 국제컨테이너물류 정기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및 광산자원·첨단기술·제조업·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실크로드펀드 등 금융기관과의 소통과 연계를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동북지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동북진흥전략과 러시아 극동개발전략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러시아 간 협력을 완비하고자 한다. 또한 러시아의 초국경 발전구와 자유항 건설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중러

지역협력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철도·전력·현대농업·임업·광업 등의 영역에서 투자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중·러간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환경보호산업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중·러 국제협력시범구의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하얼빈 대러시아 협력중심도시, 무단장 중·러 지역 우호협력 시범도시 건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2)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업 협력 추진

동북지역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과 함께 우위산업을 선도 분야로 삼아 기업의 직접(green-field) 투자, M&A 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원개발·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건축자재·기계제조·농산물가공·목재가공·경방직 등의 업종에서 국제생산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외투자, 설계-조달-시공의 일괄수주(EPC), 대외원조, 대외무역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장비제조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발전소 설비, 철도차량, 신형 농기계, 석유화학, 디지털제어선반, 궤도교통, 자동차, 원자력 발전, 선박·해양 프로젝트, 우주항공 등 우위영역에 중점을 두고 동북지역 장비제조업의 해외투자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완성차 조립기지 와 궤도교통 장비생산기지 건설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3) 다원화된 개방협력 플랫폼 조성

동북지역은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산업단지 건설, 중독(선양)기업협력기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다렌 한·중·일 순환경제 시범기지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를 건설하는 등 개방형 경제협력 플랫폼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얼렌하하오터, 만저우리, 수이펀허, 헤이허, 훈춘, 허룽, 단둥 등 변경경제협력구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건이 성숙된 지역에서 새롭게 변경경제협력구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계기로 체제기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동북 노후공업기지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대외개방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동력원으로 삼고자 한다.⁴³⁾ 2017년 3월 발표된 「중국(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이하 ‘총체방안’)에 따르면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는 선양시·잉커우시·다렌시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며 총면적은 119.89km²에 달한다. 선양은 동북지역의 과학 기술혁신 수준 제고, 잉커우는 국제 해운 및 철도 복합운송로의 주요 허브 건설, 다렌은 동북아 개방 협력의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선양시는 공항·철도·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어 대외개방에 유리한 조건을 지녔고 대표적인 자원·중공업 의존형 산업 구조를 지닌 지역이어서 향후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의 발전방식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표 2-13.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역별 주력산업

지역	주력산업
선양지역	장비제조, 자동차 및 부품품, 항공장비 등 첨단제조업, 금융·과학기술·물류 등 현대 서비스업
잉커우지역	물류·전자상거래·금융 등 현대 서비스업, 차세대정보기술·첨단장비제조업 등 전략적 신흥 산업
다렌지역	해운·항공물류, 금융 비즈니스, 첨단장비제조 등 산업

자료: 国务院(2016a), 「中国(辽宁)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라. 평가: 구동북진흥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2014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발표

43) 자유무역시험구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는데 2013년 1개 지역(상하이시)과 2014년 3개 지역(광둥성·톈진시·푸젠성)을 선정한 데 이어 2016년 7개 지역(랴오닝성·저장성·허난성·후베이성·충칭시·쓰촨성·산시성)을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하였고 이러한 정책들이 집대성된 「동북진흥 13·5 계획」이 발표되면서 신동북진흥정책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동북진흥 13·5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새롭게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징진지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등의 지역발전전략이 주목을 받으면서 동북지역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나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동북진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신동북진흥정책의 주요 내용은 「동북진흥 12·5 계획」으로 대표되는 구(舊)동북진흥정책과 대동소이한 모습이다. 주요 추진 정책의 내용에서도 두 정책들은 10대 주요 정책 과제를 담고 있고 세부적인 정책의 내용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동북진흥정책과 비교했을 때 신동북진흥정책이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내생적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있다. 즉 구동북진흥정책이 피를 수혈하는 방식이었다면 신동북진흥정책은 자체적인 조혈기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과거에는 동북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던 반면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내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을 예로 들면 과거에는 국유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재산권제도 개혁, 혼합소유제 개혁, 현대적 기업제도 발전 등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북지역이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내생적인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공업 부문에서의 혁신과 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신산업 육성, 창업과 R&D, 특허활동 등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구동북진흥정책에서는 국유기업의 낮은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신동북진흥정책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공급 측의 개혁을 많이 강조하고

44)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동북진흥사 관계자와의 현지 인터뷰(2017. 6. 28).

있으며 이에 따라 철강·석탄 등 일부 효율이 낮고 발전수준이 낮은 생산과잉 산업이나 환경오염이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을 중단시키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아울러 공업·서비스업과 관련해서 효율이 높은 산업이나 첨단장비제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며, 특히 혁신기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경제가 발달한 연해지역(광둥·푸젠·장쑤·산둥 등)과 동북지역 간의 협력(対口)을 추진함으로써 연해지역의 성공적인 성장모델을 동북지역에 이식하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⁴⁵⁾ 이러한 지역간 협력의 추진은 2000년부터 시작된 ‘서부대개발’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동부 연해지역이 서부지역에 일대일 지원을 하던 정책이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일대일 지원은 서부대개발에서 진행했던 방식과 조금 다른 면이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주로 정부기관 관료(간부) 사이의 인적 교류로 일정 기간 교환 근무를 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성장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부 연해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던 산업단지 운영 경험을 동북지역에서 유사한 형태로 개발·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재육성을 위해 동북지역과 동부 연해지역의 연구기관·대학교 사이에 혁신 관련 협력을 추진한다거나 기술성과 전환과 관련한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도 추진하고자 한다. 기업 차원의 지원으로는 동부 연해지역에 있는 기업이 동북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부 연해기업과 동북기업이 공동으로 제3국 시장을 개척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45) 중국사회과학원 공업연구소 관계자와의 현지 인터뷰(2017. 6. 30).

표 2-14. 동북진흥 12·5 계획 및 13·5 계획의 주요 내용 비교

	12·5 계획 (2011~15년) (구동북진흥정책)	13·5 계획 (2016~20년) (신동북진흥정책)
주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경제발전: 비공유경제발전, 서비스업 비중 40%, 농업현대화 실현 · 산업 전환 및 고도화: 과학기술 혁신능력 제고, GRDP 대비 R&D 비중 2%, 전통산업 고도화, 신산업 규모화 발전 · 자원형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다원화된 산업체계 형성 추진 · 개혁개방에서의 새로운 발전 실현 ·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장비제조업기지, 국가 신형 원자재 및 에너지보장기지, 국가 중요 식량생산기지, 국가 중요 R&D 및 혁신기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2010년 대비 GRDP 2배 확대, 노동생산성 연 6.2% 성장 · 혁신주도형 발전능력의 강화: GRDP 대비 R&D 비중 2.1%, 인구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 6.9건 · 실질적인 구조조정: 신산업 및 산업태의 지속적인 성장, 서비스업 비중 47.4% ·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장비제조업기지, 중요 기술장비 전략기지, 국가 신형 원자재기지, 현대농업생산기지 구축
주요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농촌 건설 · 현대적 산업체계 완비 · 지역 혁신능력 강화 · 지역협조발전 · 자원형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 인프라 개선 · 생태환경 보호 강화 · 민생 보장 및 개선 · 체제기체 개혁 심화 · 대외개방수준의 전면적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 심화: 발전의 신체제 구축 · 혁신발전: 발전의 신동력 육성 · 인프라 강화: 농업현대화 제고 · 구조 고도화: 현대적 산업체계 구축 · 협조발전: 지역발전의 새로운 공간 확장 · 특수지역의 발전방식 전환 촉진 · 지원강화: 지역간 인프라 연계 완비 · 녹색발전 · 개방발전: 북방지역 중요 개방창구 구축 · 공유발전: 민생복지 증진
주요 발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화율: 57% → 60% · 인구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 수: 0.9 → 1.7 · 에너지소모율: 국가가 제시한 목표 달성 · 노동 1인당 소득 15,882위안 및 6,320위안 · 도시 일자리 창출: 5년간 750만 개 · 노동 의료보험참가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중 10% → 13.3% · 도시화율: 60.5% → 65.8% ·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6.5% 이상 · 도시 일자리 창출: 5년간 620만 개 · 노동인구 평균교육연수: 10.5년 → 11.1년 · 에너지소모율: 5년간 15% 저감

자료: 国家发展改革委(2011), 「东北振兴“十二五”规划」; 国家发展改革委(2016), 「东北振兴“十三五”规划」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 밖에 신동북진흥정책이 갖는 차별성은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에서도 나타난다. 과거 구동북진흥정책에서는 농업과 농촌에 관한 문제를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반면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동북지역의 경기 침체 원인을 경제 운영시스템에 대한 미진한 개혁과 혁신의 부재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체제기제 완비를 동북진흥의 핵심 정책으로 견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개혁과 혁신을 동북진흥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동북진흥정책은 기존 정책과 달리 계획을 구체화하고 관련된 주요 목표의 달성 기한을 설정하였으며,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산학연 간 혁신체계 구축이나 혁신·창업 플랫폼 구축 등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등의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동북진흥정책 역시 많은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택개조, 궤도교통, 도시 종합 상하수관, 공항 등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주요 프로젝트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소비수요를 형성하고 자생적인 발전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투자항목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신동북진흥정책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고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에 의존했던 과거의 성장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⁴⁶⁾

46) 瞭望(2016a), 「政策再发力, 东北经济能否走出艰难岁月」(8月23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6. 13).

1. 무역 · 투자 현황

이 절에서는 한·동북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증속성장이 시작된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중 무역, 투자의 변화와 비교하면 어떠한지, 성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앞으로도 동북 3성의 증속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역·투자의 변화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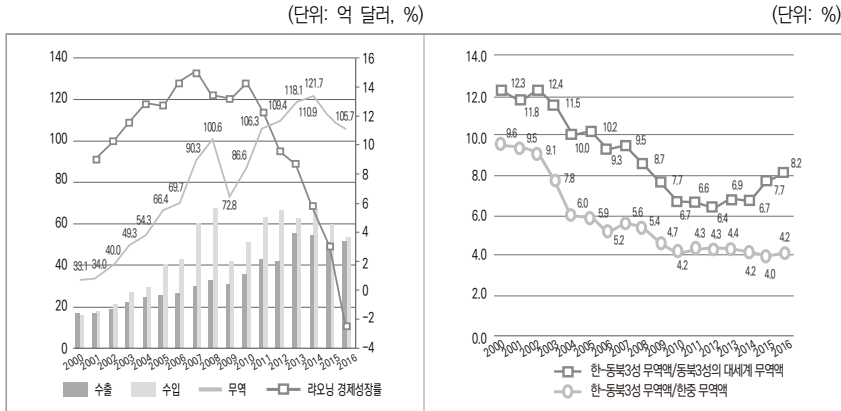
한·동북 무역은 2000년 33억 1,000만 달러에서 2016년 105억 7,000만 달러로 3.2배 증가하였다. 연평균 7.5% 성장이다(수출 7.2%, 수입 7.8%). 같은 기간 한·중 무역이 연평균 13.3% 성장(345억 달러에서 2,545억 1,000만 달러로 7.4배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성장률이 크게 낮다. 그 결과 한·동북이 대중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6%에서 2014년대 4.2%로 감소했다. 동북의 인구·GDP 비중인 8%의 절반에 불과하다(그림 3-1, 3-2 참고).

특히 증속성장이 시작된 2012년 이후 한·동북 무역은 연평균 0.86%씩 감소했다. 양자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랴오닝성의 GRDP 성장률이 2012년 9.5%, 2014년 5.8%, 2016년 -2.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그림 3-1 참고). 다만 같은 기간 한·중 무역도 하락해서 한·동북 비중은 4%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동북의 대외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6.6%에서 2016년 8.2%까지 상승하였다. 한·동북의 무역 감소에도

동북의 전체 대외무역 감소율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림 3-1. 한국의 대동북 무역 추이

그림 3-2. 한·동북 상호 무역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검색일: 2017. 7. 20)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한·동북 무역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랴오닝성에 집중되어 있다. 2016년 기준 한·동북 무역의 89.7%(수출 92.7%, 수입 86.7%)를 차지한다. 반면 지린성은 7.8%, 헤이룽장성은 2.6%에 그쳤다. 랴오닝성의 비중은 2000년 76.4%, 2008년 86.3%에서 계속 상승하였는데 그동안 지린성·헤이룽장성과의 무역이 정체되면서 나온 결과다(표 3-1 참고). 따라서 한·동북 무역은 랴오닝성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표 3-1. 한국의 대동북 수출입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	동북 3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0	16.9	16.2	15.0	10.3	0.8	3.9	1.2	2.0
2001	16.5	17.5	14.0	10.8	1.1	4.4	1.5	2.2
2002	18.7	21.3	16.3	12.9	1.0	6.1	1.4	2.3

표 3-1. 계속

연도	동북 3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3	22.3	27.0	19.1	16.1	1.4	7.6	1.9	3.3
2004	24.5	29.8	20.7	23.6	1.5	3.7	2.3	2.4
2005	25.6	40.7	21.7	30.7	1.7	6.3	2.3	3.7
2006	26.9	42.8	23.4	33.7	1.7	5.2	1.9	3.9
2007	30.0	60.4	26.7	47.9	2.1	7.1	1.1	5.4
2008	33.0	67.6	29.8	57.1	1.9	6.0	1.3	4.5
2009	30.7	42.1	27.5	33.8	1.9	4.3	1.3	4.0
2010	35.5	51.1	32.2	41.3	2.2	4.8	1.1	5.0
2011	42.9	63.4	39.5	50.9	2.7	5.2	0.7	7.2
2012	42.5	66.9	38.7	57.1	3.1	4.2	0.7	5.6
2013	55.3	62.8	50.8	54.7	3.8	3.9	0.7	4.2
2014	54.7	67.0	50.4	57.8	3.5	4.8	0.7	4.4
2015	51.1	59.8	47.9	51.2	2.8	4.8	0.4	3.8
2016	51.8	53.9	48.0	46.8	3.2	5.0	0.5	2.2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홈페이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7. 7. 20)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2007~16년 대동북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유기화학품(HS 29)이 27.1%로 1위, 보일러·기계류(HS 84)가 13.9%, 전기·전자기기(HS 85)가 11.9%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2007~16년 누적액 기준, 표 3-2 참고). 전체 대중 수출과 비교할 때 전기·전자기구나 광학·의료·정밀기기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고⁴⁷⁾ 유기화학품, 보일러·기계류, 철강(HS 72) 등의 비중이 높았다. 유기화학품, 보일러·기계류의 수출은 동북 3성 지역에 석유화학산업, 장비제조업 등 중공업이 발달했고, 노후공업기지 구조조정에서 기계류 수출이 증가했으며 추운 날씨로 난방용 보일러 수출이 꾸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위인 유기화학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의 수출이 최근 동북의 경기침체와

47) 이는 전기·전자나 광학·의료·정밀기기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주로 동북이 아닌 연해 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함께 급감하고 있다.

대동북 수입은 대중 수입과 달리 철강, 비편물외류, 광물성연료·물질, 곡물류, 어패류의 수입 비중이 크다. 주로 동북의 비교우위 품목들이다. 철강은 라오닝성의 안산(鞍山) 등에서 한국으로 오는 중·저급 철강재이다. 의류의 경우 라오닝성에 진출한 한국계 의류기업에 의한 환매(buy-back)의 영향이 크다.⁴⁸⁾ 곡물류, 어패류는 농수산물 자원이 풍부한 지린성, 헤이룽장성에서 들어온다. 대지린성·헤이룽장성 10대 수입품목에는 곡물, 어패류, 종자·과실·인삼, 채소, 조제사료, 목재·목탄, 음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 3-2 참고).

2011년과 2016년의 성별 10대 수출품목을 보면 대랴오닝성 품목에는 변화가 없다(표 3-3 참고). 다만 2011년에 비중 7.9%로 4위를 차지한 유기화학품(HS 29)이 2016년에 58.1%로 1위로 급부상하였다. 대지린성 품목은 편물제 의류(HS 60), 각종 화학공업생산물(HS 38), 고무제품(HS 40), 인조스테이플 섬유(HS 55)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철강제품(HS 73), 화장품류(HS 33), 종이류(HS 48), 비금속제품(HS 83) 등이 추가되었다. 헤이룽장성은 종이류(HS 48), 비금속제품(HS 82), 고무제품(HS 40), 철강(HS 72)이 순위에서 밀려난 대신, 광물성연료물질(HS 27), 철강제품(HS 73), 잡품(HS 96), 화장품류(HS 33) 등이 추가되었다. 몇몇 품목의 변동이 있었으나, 최상위 수출품목들은 증속성장기에도 모든 성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상위3개 품목 집중도(CR₃)⁴⁹⁾도 2016년 랴오닝성 74.0%, 지린성 60.3%, 헤이룽장성 69.8%를 기록하면서 2011년 43.9%, 58.3%, 57.9%에서 각각 30.1%p, 2.1%p, 11.9%p 높아졌다. 대동북 수출품목 집중도에 변화가 별로 없는 일본·독일 등 다른 국가들과 다른 점이다(그림 3-3 참고). 유기화학물(HS 29)을 제외한 랴오닝성 주요 품목들의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출품목의 변동이 아닌 주로 품목별 수출액의 감소와 집중도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표 3-3, 3-4 참고).

48) 김부용, 임민경(2012),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동북 3성」, p.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9) 수출 집중도 CR(Concentration Ratio)는 전체 수출에서 몇몇 상위 품목들의 비중을 합한 것으로 수출 품목 집중의 정도를 보여줌. CR_n는 상위 3개사의 비중 합계를 의미함.

표 3-2. 한국의 대동북 3성 10대 수출입품목(2007~16년)

(단위: %)

수출 순위	중국 전체			동북 3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HS	품명	비중	HS	품명	비중	HS	품명	비중	HS	품명	비중	HS	품명	비중
1위	85	전기·전자기기	39.3	29	유기화학품	27.1	29	유기화학품	29.5	72	철강 ⁽⁵⁰⁾	24.1	84	보일러·기계류	36.0
2위	90	광학·의료·정밀기기	13.8	84	보일러·기계류	13.9	84	보일러·기계류	13.6	85	전기·전자기기	16.3	72	철강	11.3
3위	84	보일러·기계류	9.7	85	전기·전자기기	11.9	85	전기·전자기기	11.7	39	플라스틱	14.9	85	전기·전자기기	9.1
4위	29	유기화학품	7.6	39	플라스틱제품	6.4	39	플라스틱	5.9	84	보일러·기계류	12.3	27	광물성연료·물질	6.7
5위	39	플라스틱제품	7.0	72	철강	6.0	27	광물성연료·물질	5.9	90	광학·의료·정밀기기	5.4	74	동	5.1
6위	27	광물성연료·물질	5.8	27	광물성연료·물질	5.5	90	광학·의료·정밀기기	5.1	38	화학공업생산물	3.1	87	일반차량	3.6
7위	87	일반차량	2.7	90	광학·의료·정밀기기	5.1	72	철강	4.7	87	일반차량	2.2	48	제지	3.5
8위	72	철강	2.7	87	일반차량	3.6	87	일반차량	3.7	29	유기화학품	1.8	73	철강	3.4
9위	74	동제품	1.5	73	철강제품	2.2	73	철강	2.2	73	철강제품	1.8	40	고무	3.2
10위	71	귀금속	0.9	54	인조장식유	1.7	54	인조장식유	1.8	60	편물제 의류	1.5	39	플라스틱	2.8
수입 순위	중국 전체			동북 3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HS	품명	비중	HS	품명	비중	HS	품명	비중	HS	품명	비중	HS	품명	비중
1위	85	전기·전자기기	32.8	72	철강	18.2	72	철강	20.2	85	전기·전자기기	11.6	10	곡물	27.2
2위	84	보일러·기계류	10.4	62	비(非)편물제 의류	11.5	62	비(非)편물제 의류	13.3	12	총자·과실·인삼	10.4	12	총자·과실·인삼	10.0
3위	72	철강	9.2	27	광물성연료·물질	9.2	27	광물성연료·물질	10.9	10	곡물	10.1	72	철강	8.0
4위	90	광학·의료·정밀기기	4.1	85	전기·전자기기	8.2	85	전기·전자기기	8.5	3	에베류	9.4	84	보일러·기계류	6.6
5위	73	철강	3.3	84	보일러·기계류	7.0	84	보일러·기계류	7.5	72	철강	7.2	61	편물제 의류	5.9
6위	27	광물성연료·물질	2.7	3	에베류	4.4	89	선박	4.4	7	채소	6.3	28	무기화학품	5.2
7위	29	유기화학품	2.7	89	선박	3.7	3	에베류	4.3	23	조제사로	5.5	39	플라스틱	4.4
8위	62	비(非)편물제 의류	2.4	10	곡물	3.4	61	편물제 의류	3.0	22	음료	4.0	44	목재·목단	4.3
9위	61	편물제 의류	2.2	61	편물제 의류	3.3	29	유기화학품	2.8	61	편물제 의류	3.6	7	채소	3.6
10위	28	무기화학품	1.9	29	유기화학품	2.7	73	철강	2.6	44	목재·목단	3.2	23	조제사로	3.5

주: 1) 품목별 무역액 기준. 2) 비중은 해당 지역의 총수입·총수출액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홈페이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7. 7. 20)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50) 대지린성 수출품목 1위가 철강인 것은 중국제1자동차그룹(FAW, 一汽大众)의 자동차용 고급 철강재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표 3-3. 대동북 3성 주요 수출품목의 비중 변화

(단위: %)

지역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			
	2011		2016		2011		2016		2011		2016	
순위	HS	비중	HS	비중	HS	비중	HS	비중	HS	비중	HS	비중
1	84	21.7	29	58.1	72	28.3	85	23.7	84	39.3	84	40.8
2	85	14.3	85	8.1	39	17.4	72	19.8	74	11.0	27	17.5
3	90	7.9	84	7.8	85	12.6	39	16.8	85	7.7	74	11.5
4	29	7.9	87	4.3	84	7.5	84	14.2	48	7.7	85	7.4
5	72	7.8	39	3.5	90	7.0	87	3.9	82	4.0	90	6.4
6	39	7.2	72	2.4	60	2.5	73	2.8	40	4.0	73	2.8
7	27	5.4	27	2.0	38	2.3	90	2.5	87	3.8	87	2.6
8	73	3.2	73	1.2	87	2.2	33	1.4	72	3.0	96	1.8
9	87	2.6	54	1.1	40	1.9	48	1.3	90	2.9	39	1.6
10	54	2.2	90	1.1	55	1.6	83	1.1	39	2.8	33	1.3

주: 비중은 총수출액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검색일: 2017. 7. 20)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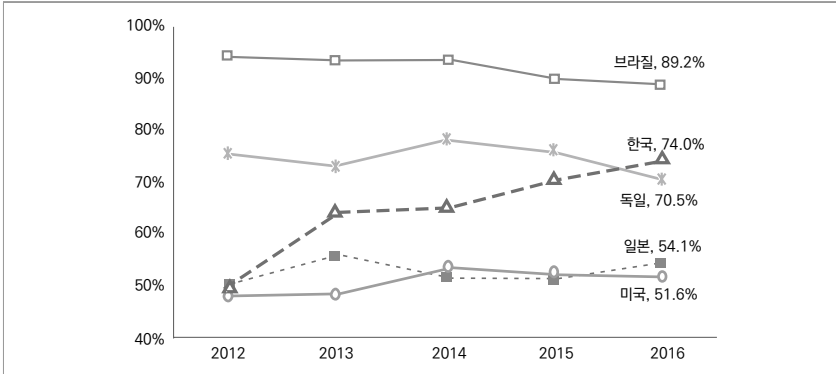
표 3-4. 대동북 3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2016			2016			2016		
순위	HS	금액	2011 대비	HS	금액	2011 대비	HS	금액	2011 대비
1	29	2,791	8.94	85	77	2.26	84	21	0.75
2	85	388	0.68	72	64	0.85	27	9	9
3	84	373	0.43	39	54	1.17	74	6	0.75
4	87	206	2.03	84	46	2.30	85	4	0.66
5	39	167	0.58	87	12	2.0	90	3	1.50
6	72	116	0.37	73	9	2.25	73	1	0.50
7	27	97	0.45	90	8	0.72	87	1	0.33
8	73	56	0.44	33	4	4	96	1	1
9	54	52	0.58	48	4	1	39	1	0.50
10	90	51	0.16	83	4	1	33	1	1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검색일: 2017. 7. 20)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그림 3-3. 주요국의 대략오닝성 수출품목 집중도 추이(CR₅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검색일: 2017. 7.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HS CODE 4단위 기준으로 2011년과 2016년의 성별 10대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2011년 대략오닝성 수출품은 환식탄화수소(HS 2902), 내연기관(HS 8408), 액정디바이스(HS 9013), 열연강판(HS 7208), 에틸렌중합체(HS 3901) 등이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3-5 참고). 이후 5년 동안 환식탄화수소(HS 2902)의 수출이 연평균 56.6%씩 증가하면서 2016년 전체 수출의 57.9%를 차지한 반면 다른 품목들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하였다. 2011년 10대 수출 품목 중 2016년에도 남아 있는 품목은 환식탄화수소, 자동차부품(HS 8708), 가공유(HS 2710), 전동축(HS 8483),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HS 5407)이고 전선 및 광케이블(HS 8544), 아연도금강판(HS 7210), 전기회로기기(HS 8536), 밸브류(HS 8481), 전동기·발전기(HS 8501)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2011년 대지린성 상위 수출품은 아연도금강판(HS 7210), 에틸렌중합체(HS 3901), 자동제어기기(HS 9032), 냉연강판(HW 7209), 전선 및 광케이블(HS 8544) 등이었다. 2016년에도 아연도금강판(HS 7210), 에틸렌 중합체(HS 3901), 냉연강판(HW 7209)은 높은 순위를 유지했고 단조(鍛造)용 금속가공기계(HS 8462), 전기제어용 기반(基盤)(HS 8537)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표 3-5. 대동북 3성 주요 수출품목의 변화

(단위: 천 달러)

수출 순위	리묘양성						자립성						하이투자성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HS	금액	CAGR	HS	금액	CAGR	HS	금액	CAGR	HS	금액	CAGR	HS	금액	CAGR	HS	금액	CAGR
1	2902	295,166	56.6	2902	2,779,052	56.6	7210	53,024	7210	37,735	-6.6	7404	5,516	7404	5,516	2713	9,055	.
2	8408	293,167	19.7	8708	206,495	19.7	3901	26,031	3901	25,949	-0.1	8410	5,246	8410	5,246	7410	5,744	24.0
3	9013	237,232	0.9	8483	80,419	0.9	9032	16,892	8462	21,521	109.4	8481	3,534	8479	3,668	8414	2,925	17.7
4	7208	155,723	-4.0	2710	73,089	-4.0	7209	11,106	7209	20,529	13.1	8483	2,956	8414	2,925	8414	2,925	1.3
5	3901	109,298	-2.6	8544	66,795	-2.6	8544	9,066	8537	12,406	174.2	4813	2,782	8542	2,727	8542	2,727	-0.4
6	8542	92,909	19.7	7210	65,069	19.7	7219	6,618	8708	11,796	15.5	8414	2,747	8486	2,581	8486	2,581	22.0
7	2710	89,756	6.7	8536	55,722	6.7	8536	6,324	8504	10,973	107.2	8207	2,726	8406	2,375	8406	2,375	5.1
8	8708	84,028	0.1	8481	47,384	0.1	8708	5,746	8536	10,252	10.1	4002	2,624	9031	2,282	9031	2,282	13.3
9	5407	79,358	-10.3	5407	46,184	-10.3	3926	5,449	8542	9,591	13.2	8708	2,599	8481	1,897	8481	1,897	4.4
10	8483	76,881	32.4	8501	44,733	32.4	3824	5,445	8414	8,321	37.6	8542	2,527	8457	1,880	8457	1,880	-11.9
총계		3,947,822			4,801,886			266,318		322,706			72,054		72,054		52,326	

주: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는 해당 품목의 2011~16년 연평균 성장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검색일: 2017. 7. 20)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헤이룽장의 경우 2011년 구리 웨이스트·스크랩(HS 7404), 수력터빈 및 조정기(HS 8410), 벨브류(HS 8481) 등의 비중이 높다가 2016년에는 석유코크스(HS 2713), 구리의 박(箔)(HS 7410), 기타 기계류(HS 8479)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석유코크스는 2011년 수출이 전혀 없다가 대폭 증가하면서 1위로 올라섰다.

2016년 기준 환식탄화수소(HS 2902)는 대략오닝성 수출의 58.1%, 대동북 수출의 53.7%를 차지한다. 또한 환식탄화수소(HS 2902) 수출의 대부분은 PET 포장, 폴리에스터 섬유 등 생산에 필요한 기초 화학 원료인 파라자일렌(PX, HS 290243)이다. 즉 중속성장기의 대동북 수출은 단일 품목에 심하게 편중되고 있다. 만약 중국 기업이 파라자일렌 생산에 본격 진출해서 공급을 늘린다면 경쟁격화 및 가격하락으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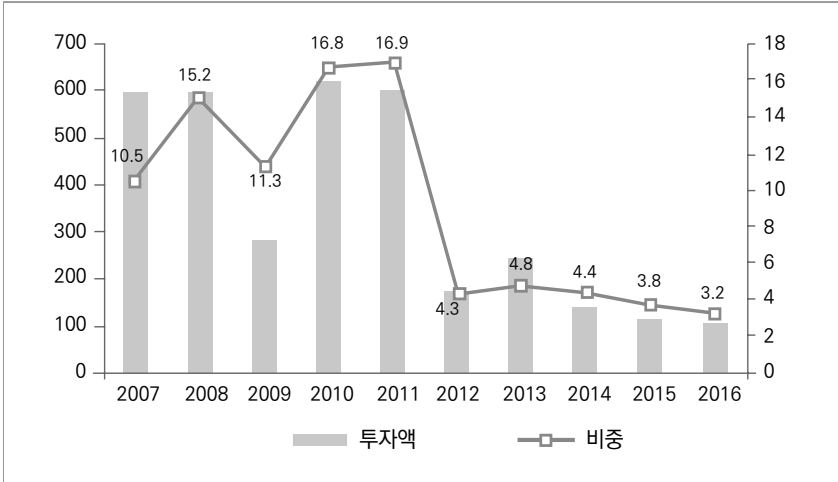
나. 투자

한국의 대동북 직접투자는 2007년 5억 9,000만 달러에서 2016년 1억 달러(1/6 수준)로 급감하였다. 같은 기간 대중국 투자도 56억 8,000만 달러에서 33억 달러(3/5 수준)로 줄어들었지만 동북의 하락률이 더 커서 비중이 10.5%에서 3.2%로 떨어졌다. 중속성장이 본격화된 2012~16년 총투자액은 7억 7,000만 달러(연평균 1억 5,000만 달러)로 2007~11년 총투자액 26억 9,000만 달러(연평균 5억 4,00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같은 기간 대중국 총투자액이 193억 2,000만 달러에서 186억 6,000만 달러로 소폭 감소한 것과 다른 흐름이다. 중속성장기 동북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전체 대동북 직접투자가 2014~16년 3년 연속으로 각각 -5.6%, -81.1%, -42.2% 하락한 것을 보여주는 2장의 [그림 2-12]와 일치하는 결과다.

51) 매일경제뉴스(<http://news.mk.co.kr/newsRead.php?no=890105&year=2016>, 검색일: 2017. 7. 20).

그림 3-4. 대동북 3성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stats.koreawexim.go.kr, 검색일: 2017. 7. 20)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2007~11년 대랴오닝성 총투자액은 20억 9,000만 달러였으나 2012~16년에는 1/6 수준인 3억 9,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지린성은 5억 달러에서 3억 8,000만 달러로 다소 줄어들었으며 헤이룽장성은 1억 1,000만 달러에서 8백만 달러로 급감하였다(표 3-6 참고). 2007~11년 랴오닝성의 비중은 77.5%에 이르렀으나 2012~16년에는 50.5%로 떨어졌다. 한·중 수교 이후 랴오닝성은 동북 3성 중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고 있는 성으로 한국 기업의 세계 수출을 위한 임가공 생산기지로 투자되거나 비교적 발달된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시장 축소, 심각한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표 3-6. 동북지역 성별 직접 투자 및 비중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중국 전체	동북 3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투자액	투자액	대중국 비중	투자액	대동북 비중	투자액	대동북 비중	투자액	대동북 비중
2007	5,689.0	599.8	10.5	505.4	84.3	38.8	6.5	55.6	9.3
2008	3,934.8	596.6	15.2	546.7	91.6	23.9	4.0	26.1	4.4
2009	2,485.3	281.6	11.3	250.5	89.0	19.4	6.9	11.8	4.2
2010	3,665.0	617.5	16.8	280.6	45.4	327.9	53.1	9.1	1.5
2011	3,547.4	601.3	16.9	506.5	84.2	90.1	15.0	4.8	0.8
2012	4,051.0	173.3	4.3	121.5	70.1	51.4	29.7	0.5	0.3
2013	5,166.1	245.5	4.8	142.9	58.2	96.7	39.4	6.0	2.4
2014	3,182.6	138.7	4.4	48.6	35.0	89.4	64.5	0.8	0.6
2015	2,957.6	112.4	3.8	40.4	35.9	71.4	63.5	0.8	0.7
2016	3,301.2	104.5	3.2	37.7	36.1	66.1	63.3	0.7	0.7
2007~11	19,321.5	2,696.8	14.0	2,089.7	77.5	500.1	18.5	107.4	4.0
2012~16	18,658.5	774.4	4.2	391.1	50.5	375.0	48.4	8.8	1.1
합계	37,980.0	3,471.2	9.1	2,480.8	71.6	875.1	25.2	116.2	3.3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stats.koreawexim.go.kr, 검색일: 2017. 7. 20)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보면 2007~11년 제조업 총투자액은 11억 9,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3억 7,000만 달러였으나 2012~16년에는 제조업 6억 5,000만 달러, 서비스업 1억 2,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표 3-7 참고). 제조업의 비중이 44.0%에서 83.7%로 39.3%p 증가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50.7%에서 15.3%로 35.4%p 감소하였다. 제조업 투자가 절반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서비스 투자가 1/12 수준으로 급감해서 생긴 변화다. 업종을 막론하고 투자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같은 기간 대중국 투자에서는 업종별 투자액과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다.

표 3-7. 한국의 대동북 3성 업종별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중국 전체				동북 3성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7	4,004.9	70.4	1,481.2	26.0	344.3	57.4	234.5	39.1
2008	2,508.6	63.8	1,146.1	29.1	326.1	54.7	204.4	34.2
2009	1,732.8	69.7	676.2	27.2	141.0	50.1	106.5	37.8
2010	2,757.1	75.2	854.9	23.3	131.4	21.3	466.7	75.6
2011	2,679.7	75.5	800.7	22.6	242.6	40.3	356.1	59.2
2012	2,692.0	66.5	1,338.1	33.0	137.7	79.5	32.7	18.8
2013	4,440.3	85.9	713.8	13.8	221.8	90.4	19.7	8.0
2014	2,563.8	80.6	614.8	19.3	111.1	80.1	27.3	19.6
2015	2,363.5	79.9	587.1	19.8	87.3	77.6	24.6	21.9
2016	2,410.6	73.0	826.2	25.0	90.1	86.2	14.2	13.6
2007~11	13,683.1	73.4	4,959.1	26.6	1,185.4	44.0	1,368.2	50.7
2012~16	14,470.2	78.0	4,080.0	22.0	648.0	83.7	118.5	15.3
총계	28,152.8	74.1	9,038.7	23.8	1,832.9	52.8	1,486.3	42.8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stats.koreawexim.go.kr, 검색일: 2017. 7. 20)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2007~16년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에서 기타 기계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투자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3-8 참고). 기계장비 제조업은 1994년 이후 계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 투자가 시작된 음료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졌다(4위). 반면 수교 초기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의류·섬유제조업의 비중은 최근 상당히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료닝성은 기타 기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지린성은 음료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헤이룽장성은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순으로 투자되었다.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는 대·소흥안령, 장백산, 산장(三江) 평원, 쑹닌(松嫩) 평원 등 자연자원(농산물자원·수자원·산림자원)이 풍부하여 식료품, 음료 제조업의 투자 비중이 높다.⁵²⁾

표 3-8. 한국의 대동북 3성 상위 5대 제조업 투자업종(2007~16년)

(단위: %)

순위	중국 전체		동북 3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1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	28.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7	음료 제조업	48.4	식료품 제조업	44.0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6	식료품 제조업	29.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3
3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3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3.1
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2	음료 제조업	5.8	금속가공제품 제조(기계·가구 제외)	11.9	전기장비 제조업	4.6	기타 제품 제조업	7.6
5	1차 금속 제조업	3.5	금속가공제품 제조(기계·가구 제외)	5.0	1차 금속 제조업	10.2	금속가공제품 제조(기계·가구 제외)	2.1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	5.8

주: 업종 중분류 기준이며 2007~16년 누적 투자액 기준.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stats.koreawexim.go.kr, 검색일: 2017. 7. 20)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2007~11년, 2012~16년 랴오닝성의 5대 제조업 투자업종은 큰 변화가 없다(표 3-9 참고). 2007~11년에 포함된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1차 금속 제조업(C2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이 순위 변동은 있었으나 2012~16년에도 5대 투자업종에 포함되었다. 다만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가구 제외·C25)이 화학제품제조업(C20)으로 대체되었다. 단 랴오닝성의 경우 2012~16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조 업종에서 투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이다. 대지린성 투자는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전기장비제조업(C28)이 2012~

52) 김부용, 임민경(2012),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동북 3성」, p.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표 3-9. 대동북 3성 제조업 주요 투자업종의 변화

순위	리요업종						지린성						헤이룽장성					
	2007~11		2012~16		2007~11		2012~16		2007~11		2012~16		2007~11		2012~16			
	업종	금액	비중	업종	금액	비중	업종	금액	비중	업종	금액	비중	업종	금액	비중			
1	C29	250.8	24.2	C30	139.3	40.9	C10	38.6	33.1	C11	166.1	55.2	C10	16.8	52.4	C30	5.2	81.8
2	C31	222.5	21.5	C29	47.4	13.9	C11	35.8	30.8	C10	82.8	27.5	C20	4.8	15.1	C27	0.6	9.8
3	C25	153.1	14.8	C31	33.1	9.7	C25	8.7	7.4	C30	32.3	10.7	C33	2.9	9.1	C20	0.2	3.2
4	C24	110.5	10.7	C24	30.4	8.9	C28	7.9	6.8	C28	11.1	3.7	C26	2.2	7.0	C14	0.1	2.3
5	C30	92.9	9.0	C20	29.5	8.7	C16	5.1	4.4	C22	4.8	1.6	C16	1.8	5.6	C28	0.1	1.6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이며 누적 투자액 기준. C10: 식료품제조업, C11: 음료제조업, C14: 의복 관련제조업, C16: 목재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C20: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제외), C22: 고무, 플라스틱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기공제품제조(기계·가구 제외), C26: 전자통신음향기기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stats.koreavexim.go.kr, 검색일: 2017. 7. 20)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16년에도 투자가 증가하면서 두 시기 모두 5대 업종에 들었다. 반면 목재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C16),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가구 제외)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고무·플라스틱 제조업(C22)으로 대체되었다. 헤이룽장은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제외, C20)을 제외한 주요 업종이 모두 바뀌었으나 투자액이 작아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2007~16년 누적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비제조업 중 금융 및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3-10 참고). 특히 금융업의 비중이 28.4%로 1위인데 2010년 하나은행이 지린성에서 3억 1,0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지린은행 지분 18.5%를 인수한 것과 연관이 있다. 비제조업 투자업종은 수교 초기의 도소매업, 건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 단순 중소 업종에서 점차 금융업·전문서비스업 등으로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이다. 성별로 보면 랴오닝성은 전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지린성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헤이룽장성은 부동산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순으로 투자되었다.

표 3-10. 한국의 대동북 3성 상위 5대 비제조업 투자업종(2007~16년)

(단위: %)

순위	중국 전체		동북 3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1	금융 및 보험업	33.3	금융 및 보험업	28.4	전문 서비스업	29.2	금융 및 보험업	66.8	부동산업 및 임대업	64.9
2	도매 및 소매업	23.5	전문 서비스업	2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5	도매 및 소매업	10.7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8	금융 및 보험업	11.1	도매 및 소매업	7.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1
4	전문 서비스업	9.6	건설업	7.7	건설업	9.6	숙박 및 음식점업	1.0	농업, 임업 및 어업	0.7
5	건설업	4.3	도매 및 소매업	6.6	숙박 및 음식점업	7.2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업	0.5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업	0.5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이며 2007~16년 누적 투자액 기준.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stats.koreawexim.go.kr, 검색일: 2017. 7. 20)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표 3-11. 대동북 3성 비제조업 주요 투자업종의 변화

순위	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2007~11		2012~16		2007~11		2012~16		2007~11		2012~16		2007~11		2012~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M	380.2	36.1	L	13.0	25.7	K	320.9	83.7	L	64.4	87.4	L	62.1	82.8	G	1.4	64.4
2	L	148.5	14.1	G	10.8	21.4	G	30.5	8.0	G	4.7	6.3	G	8.8	11.7	N	0.3	13.5
3	K	141.5	13.4	H	9.4	18.5	L	19.9	5.2	R	1.0	1.3	D	2.0	2.7	I	0.2	7.6
4	F	124.1	11.8	R	4.5	8.9	I	4.0	1.0	S	1.0	1.3	A	0.7	1.0	F	0.2	7.0
5	I	93.2	8.9	A	3.1	6.1	J	2.1	0.6	I	0.9	1.2	J	0.5	0.7	E	0.1	6.1

(단위: 백만 달러, %)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이며 누적 투자액 기준.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stats.koreawexim.go.kr, 검색일: 2017. 7. 20)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2007~11년, 2012~16년 랴오닝성의 5대 비제조업 투자업종은 많이 달라졌다(표 3-11 참고). 2007~11년에 포함된 부동산업 및 임대업만이 2012~16년에도 포함되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대체되었다. 다만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랴오닝성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투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대지린성 투자는 전반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 금융 및 보험업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대신 부동산 및 임대업 투자가 증가하면서 후반기 1위로 등장하였다. 다른 업종들은 모두 투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헤이룽장은 전반기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투자를 주도하였으나 후반기에는 모든 업종에서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기업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동북은 2012년 중속성장 시작, 세계경제 침체, 원자재 가격 하락, 철강·석탄 등 설비 과다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들로 타 지역에 비해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런 상황을 돌파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1절에서 보았듯이 최근 한국의 대동북 무역·투자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동북의 경기 불황으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한 생산기지로서의 이점 상실, 중국 로컬기업들의 부상으로 인한 경쟁 격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은 현지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절에서는 동북지역에 진출한 주요 한국 기업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향후 중국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동북진흥정책 등으로 현지 사정이 개선되고 새로운 국제협력이 전개되면 기회가 다시 열릴 수도 있다. 따라서 동북의 한국 기업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 장애 요인을 분석하여 재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가. 진출 기업의 경영 현황

현지 출장에서 기업 관계자들과의 심층면담으로 파악한 동북 3성 주요 진출 기업들의 대략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관계자의 요청으로 정확한 기업명 대신 영문 이니셜로 표시하였다.

지역 주요 산업인 대형 자동차 제조사의 벤더업체로 진출한 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한 자동차부품업체 M사·H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들은 내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정상적 경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선양에서 테마파크와 아파트, 백화점, 호텔 등 대형 복합 콤플렉스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K사는 건설 공기 지연, 아파트 분양 저조, 한·중 간 정치적 문제로 인한 매출 부진에 빠져 있다. K사는 사업 초기 아파트 건설 붐을 타고 아파트 분양사업에 성공하였으나 추가 사업부지 조성 시 발생한 문제로 관련 기관과의 분쟁을 겪고 있다. 랴오닝성에 진출한 R사도 여러 지방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면세창고사업, 터미널사업, 아스콘, 부동산개발, 주유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분양시장 저조, 자산 매각 지연, 자산 매각자금 회수 지연 등의 시장 리스크와 공동 지분참여자인 지방정부의 협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랴오닝성에 대거 진출한 임가공 위주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사업을 접거나 베트남 등 제3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례가 많다.

또한 지린성에 일찍 진출한 G사는 생산라인 증설 지연, 노사분규 발생, 본사의 자금지원 부족 등으로 힘겨운 상황이며 2015년 진출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인 N사는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정상적 생산이 어렵다. 지린성 훈춘 지역에 진출한 Z사도 1기 물류창

고를 완성하고 2기 창고 확장 과정이나 중국-북한 나선경제특구 공동개발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지연되어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엔지지역에 인삼가공공장을 진출시킨 T사는 사업 초기 중국의 복잡한 식품위생기준을 극복해야 했으며 향후 중국 내 자체 브랜드를 출시하였으나 낮은 지명도, 시장 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지린성의 B방직 또한 사업지의 재개발계획에 따라 적정한 이전지를 찾는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2004년 헤이룽장에 최초로 진출한 비료업체인 D사는 2010년 철수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동북 진출 기업의 경영 현황은 [표 3-12]와 같다. 물론 전자공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중소 진출 기업이 대부분이기에 [표 3-12]가 진출 기업 모집단을 적절히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표 3-12]의 기업들은 대개 역량 있는 대기업들이기에 이 기업들이 동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 가능성이 높다. [표 3-12]를 보면 2016년 기준 롯데마트·CJ·KT&G·금호타이어 등 대표적인 동북 진출 기업들의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제재 등 외교정치적 문제가 겹쳐서 손실을 크게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식품품 제조업에서 오리온, 자동차 부품제조업에서 만도의 경영 성과가 나은 편이다.

표 3-12. 동북 진출 주요 한국 기업의 경영 현황(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위안, %)

지역	업체명	연도	업종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랴오닝성	롯데마트	2012	판매업	60,000	52,213	▼25,363
	SK투자	2008	투자관리	203,357	68	▼4,335
	농심식품	2000	식품품	22,843	60,568	73
	한라레미콘	2002	레미콘	9,067	11,573	▼2,427
	우성전자	1997	LED 부품			철수
	CJ 바이오텍(심양)	2011	라이신	93,770	227,700	▼15,636
	CJ 사료(심양)	2005	사료	10,492	22,590	▼561

표 3-12. 계속

지역	업체명	연도	업종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라오닝성	오리온식품유한공사	1995	식품제조	91,724	94213	13,384
	만도자동차부품	2012	자동차부품	833,507	146,168	5,434
지린성	금호타이어	2006	타이어제조	112,985	127,518	▼787
	삼성 SDI(SCPB)	2015	자동차배터리	7,150	2,943	▼602
	길림한정인삼KT&G	2011	건강식품	3,816		▼7,311
	길림트라이방직	1995	의복제조	15,695	45,808	84
	코휘드(cofeed) 사료	2011	사료제조			CJ매각
헤이룽장성	동부한농화공	2004	비료제조			철수

주: USD 환율 1,170원, RMB 환율 170 적용(2016년 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fss.dart.or.kr>, 검색일: 2017. 6. 20).

나. 발전 장애 요인

동북 3성은 ‘신동북진흥정책’, ‘일대일로 구상’ 등 중국의 새로운 전략 추진, 한국과의 지역적 근접성, 풍부한 지하자원, 중국 최대의 곡창지대, 오랜 역사의 중공업지대, 현지 기업의 낮은 경쟁력, 중국 연해 지역에 비해 높은 한국 자본의 경쟁력, 다수의 중국동포로 인한 언어·문화적 동질성 등을 갖춘 지역으로 한국 기업에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지이다. 또한 최근 동북 3성 지방정부에서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고, 현지 기업들을 자극하여 기업의 체질 변화를 유도하며 인구 유출을 막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필수라고 생각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정책 강화와 지역적 장점에도 우리 진출 기업들이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오랜 현지 은행 근무로 얻은 현지 경험과 진출 기업인 심층 인터뷰로 한국 기업의 발전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동북 3성 자체의 문제로는 ① 자원(석유·석탄·철강) 중심, 중공업 위주의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 시장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부족 및 기

업 경영 환경 열악 ② 타 지역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고 서비스업이 미발달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투자가 별로 없는 등 경제의 역동성 부족 ④ 금융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 부족 ⑤ 각급 지방정부 정책의 임의성·가변성이 높아 정책 실행 단계의 간소화·표준화·투명화 정도가 낮으며 체계적·통일적 서비스 지원 부족 ⑥ 대외 개방도가 낮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도적·체계적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동북의 경영 환경 문제와 더불어 한국 기업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국·동북의 경영·정책 환경 변화에서 오는 과제들이 있다.

1) 현지 문화·제도·정책에 대한 이해(현지화)

중국 및 동북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현지화를 통한 발전을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현지 문화·제도·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현지화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중국 내 사업 환경의 규범화·개방화·투명화 정도가 한국과 다른 상황을 리스크로 받아들여 과감한 투자와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중국 시장의 성장에 편승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현지화를 강조하면서도 우리식의 시각과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근본적인 현지화에 실패한 것이다. 앞으로도 ‘진정한’ 현지화는 진출 기업이 봉착하게 될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 우대정책의 약화 및 규제의 강화

과거 중국정부는 외자 도입과 선진기술 유입을 위해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노무 편의 등의 적극적 우대책을 제공했으나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자국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각종 우대정책이 축소 또는 폐지되었다. 이 변화는 그간 우대정책에 길들여져 온 여러 한국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현지 정책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주었다. 그러나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도움 없

이 주체적·지속적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극복해야 한다.

3) 원가율(원료비·인건비)의 상승

낮은 임금과 원자재 가격은 과거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진출 요인이었으나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원가율이 상승하면서 중국 진출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인건비는 지난 12차 5개년계획 중 최저임금을 연 13%씩 인상하는 소득재분배정책 때문에 많이 올랐다. 그 결과 2016년 중국 제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3.6달러까지 오르면서 브라질(2.7달러), 멕시코(2.12달러)를 추월하였고 중국에서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운영하는 외자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

4) 자국 기업 우대 및 중국 기업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저하

경제 성장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날로 제고되고 있다. 이미 중국 기업은 IT·백색가전·자동차·선박·철강 등에서 가성비 높은 우량제품을 생산하면서 한국이 보유했던 품질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 기업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과감한 광고 투자와 마케팅 활동으로 자체적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브랜드의 시장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5) 중국 내 유관 정책 실행의 일관성 부족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31개 성, 직할시 단위별로 개별 지위와 자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경제발전 정도, 개방화 정도, 동일한 정책·법령·제도에 대한 해석 및 실행방식, 행정절차·공공 서비스 시스템 수준 등이 달라서 기업을 경영할 때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북 3성 지역은 경제발전 정도

가 상대적으로 낮고 개방화 정도나 시스템적 지원도 다른 발전된 지역에 비해 뒤떨어져 현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자기업들은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 운영에서 피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

6) 경제 외적(정치적) 문제의 영향

과거 조어도 문제나 최근의 사드 문제 등 정치적 문제로 한국·일본계 진출 기업들은 중국 내 영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국에서는 경제 외적인 문제로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적인 리스크가 상존한다. 이는 기업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 리스크로 보아야 한다.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은 한국 브랜드의 위상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는 중국에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고 대외 개방 정도가 높아져 글로벌 표준이 수용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으므로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최대한 현지화로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런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7) 금융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현지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 8) 자체적인 중국시장 진출전략 및 시장개척 능력 부족 등도 발전저해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진출 지역 상황⁵³⁾

상술한 한국 기업의 상황과 발전 장애 요인 외에도 동북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동북의 각 지역·도시가 각각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동북 3성은 한국의 8배에 달할 정도로 넓고 지역마다 현지 사정 및 한국 기업의 진출 상황이 다르다. 이 절에서는 한국 기업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동북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53) 본 연구진은 랴오닝성 다롄, 선양, 단둥, 지린의 창춘, 연변 등 동북의 주요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함.

1) 다렌

최근 다렌에서는 STX 다렌 조선소의 파산으로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후 사드 문제까지 더해져 한국 기업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다렌은 동북 최대의 수출입 관문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 등을 포함하여 한국 기업 3,000여 개가 진출해 있으나 상술한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렌의 3대 대형 행사의 하나인 '아카시아 행사'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었던 '한국의 날' 행사가 올해에는 취소될 정도로 대한국 정서가 좋지 않다.

다만 중국 진출 기업의 사업 활동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과연 사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다렌의 기업인들은 주먹구구, 판시 문화에 기반을 둔 중국 비즈니스 모델이 이젠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지적하였다. 진출 기업들의 소방, 안전, 환경 위생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중국 당국에서 몇 년 전부터 시정을 권고해오고 있었다. 사드 문제로 중국 당국이 검열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드 문제를 계기로 한국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 모델도 새롭게 수립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렌의 경우에도 과거 진출했던 현대·대우도 모두 사업을 중국 측에 할애했다며 매각하고 철수했다. 중국 비즈니스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엄정한 고려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 선양

선양의 중국 측 현지 관계자는 사드 문제가 한국의 대랴오닝 투자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다. 사드 문제로 한국 내 중국정부 및 선양에 대한 지나친 비난여론의 형성을 염려하기도 하였다. 중·일 간의 조어도(센카쿠) 갈등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당시 랴오닝성에서 철수한 일본 기업은 정치적 보복 조치보다는 노동비용의 증가로 나간 한계 기업들이었다고 강조하였다.

13·5 계획 기간 랴오닝성은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해가면서 신형 제조업, 신

흥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독일과 협력하여 중·독 산업협력구를 신설하고 신형 제조업을 육성하며 다렌·선양 등에 하이테크 산업단지 등 고부가가치 신흥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초국경 전자상거래 등 ICT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존의 농수산물 산업도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위해 라오닝성 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과는 초국경 전자상거래, 농산물 가공기지 등에서 협력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라오닝성에서 비교적 발전하지 못한 장비제조업·화장품·항공정비·금융 등에서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3) 단둥

단둥의 경우 어느 지역보다 남·북·중 경협이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그러나 한국의 5.24 조치 이후 기존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철수하였고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로 우회무역까지 중단된 상황이다. 또한 북·중 경협도 제재로 침체되면서 한국 기업의 단둥 진입 유인은 한층 저하된 상황이다. 과거 기대를 모았던 신(新)압록강 대교 개통과 배후 지역인 단둥 신규 개발도 지연되면서 한국 기업은 물론 중국 현지 기업의 진출 유인도 크게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 상황에 따라 단둥의 사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중장기 차원에서 단둥 진출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창춘

지린성의 중국 측 관계자는 한국은 지린성 및 창춘의 중요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사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을지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낙후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외 경제협력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농산물가공, 전자상거래를 한·지린성 협력 분야로 제시하였다. 지린성은 농업의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대외협력으로 이를 잘 발전시켜 수출 혹은 내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지린성 지린시의 지린·싱가포르 협력 회사 등이 농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한편 장춘 신구(훈남(渾南) 신구) 등에 초국경 전자상거래 지역을 신설하면서 중한 국제합작시범구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융합 플랫폼을 건설하고 있기에 향후 이를 통한 초국경 전자상거래 협력도 제안하였다.

한국과 단계적으로 백두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백두산의 강점인 여행업, 제약업, 농산물 가공업 등이 대표적인 협력 분야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 개발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나 이를 단계적으로 극복해나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5) 연변⁵⁴⁾

현재 연변 측 관계자들은 사드 문제로 인한 한국의 대(對)연변 비즈니스가 별로 위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연변의 중국 측 기업 관계자들은 높은 기술력, 선진 서비스, 고품질 상품 등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었다(임수호 외 2017).

관심을 끄는 또 다른 분야는 관광업이다. 현재 연변에 고속철이 운행되면서 한국 관광객과 중국 내륙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⁵⁵⁾ 한국 관광객이 성수기에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관광 인프라 개선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4)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협력의 연변 관계자의 자세한 평가와 전망 등에 대해서는 임수호 외 (2017)를 참고할 것.

55) 연변은 매해 중국 내 피서 가고 싶은 도시 10위 안에 들고 백두산은 중국 내 피서 가고 싶은 산 5위 안에 드는 등 중국 내에서도 연변 관광은 크게 증가하는 상황임(길림신문, http://www.jlcn.com.cn/travel/content/2017-06/21/content_188424.htm, 검색일: 2017. 7. 30).

현재 연변 관광업은 크게 백두산 관광, 연변 두만강 관광, 북한 관광으로 구분된다. 백두산·두만강 관광 협력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하나는 백두산·두만강이 중국·북한 변경(邊境)에 있어서 중국 당국이 한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측면은 최근 중국이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있기에 개발과 환경보호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하면서 한국이 진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다만 이 지역의 관광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관련 인프라·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기에 한국의 협력 공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북한 관광이 활성화될 경우 북한 동해를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은 매우 풍부하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연변을 경유한 대북 관광산업에 관심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3. 은행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이 절에서는 중국과 동북 3성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들의 현황과 발전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속성장기를 맞이한 중국은 서비스업을 제조업에 이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금융업 발전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도 비록 느리지만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 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은행들에도 중국 진출은 지속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러나 그간 한국계 진출 은행들은 현지화 실패, 수익성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절에서는 한국계 은행의 중국·동북 3성 진출 현황과 발전 장애 요인을 분석해 향후 한국 금융업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중국 진출 경영 현황

1997년 금융위기 후 금융업 구조조정(4대 금융지주 중심의 재편), 경제성장을 정체, 시장경쟁 격화 등 국내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많은 상업은행들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하였다. 2016년 말 현재 10개 한국계 은행이 중국에 현지법인(우리·하나·신한·기업·국민)과 지점(산업·대구·부산), 영업소(수출입·농협)를 두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외국 금융기관 유입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중국 내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중국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하였다.

진출 후 많은 은행들은 현지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및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나의 축으로, 중국인 대상 영업(현지화)을 다른 한 축으로 추진하면서 현지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015년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KEB하나은행(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법인 전환 초기에 투입한 자본금에 변화가 거의 없으며 여수신 실적의 뚜렷한 증가나 이를 통한 자산 증가의 레버리지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부 중국 진출 은행은 적자를 기록하거나 평균 3%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얻고 있다. 중국 10대 상업은행의 자본수익률(ROE, 15~20%)은 물론이고 한국 내 시중 은행들의 자본수익률(5.5~7.5%)보다도 낮다. 수십 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기록했고 2012년 신창타이(新常态) 정책을 채택한 후에도 연평균 6.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에서 정기예금 이율에도 못 미치는 투자수익률을 거둔 것은 그간 한국계 은행이 중국 현지화(현지화)는커녕 정상적인 상업은행으로서의 자리매김(positioning)조차 안 되어 있다는 증거다.

한국계 은행들의 예금·대출 국적별 고객의 비율은 한국계 70%, 중국계 30% 수준이며 비교적 현지화에 성공한 KEB하나은행(중국)의 경우도 55%:45%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현지 시장을 개척하여 중국 내에서의 발전을 모색

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한국계 은행의 진출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10개 한국계 은행이 약 100개에 육박하는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 말 총자산 기준 중국 은행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7%에 불과하다. KB국민은행의 2016년 중국 내 당기순이익은 1,700만 위안으로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으나 여전히 부진하다. 당기순이익 기준 2013년 1억 600만 위안 적자, 2014년 1,300만 위안 흑자, 2015년 2,200만 위안 적자로 4년간 총 9,800만 위안 적자이다. 신한은행도 2014년 9,200만 위안 흑자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기업은행도 2015년에 2,200만 위안의 적자를 보았다. 중국 내 영업점의 책임자(분행장)를 모두 중국인으로 교체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KEB하나은행은 2013년 3,200만 위안, 2014년 4,500만 위안, 2015년 외환중국은행 합병 효과로 1억 6,400만 위안, 2016년 8,300백만 위안의 흑자를 시현하여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KB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은행이 불량률(NPL, non-performing loan)을 중국 상업은행 평균(2016년 상반기 불량률 1.7%)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계 은행의 자산 분류가 중국보다는 정확하고 투명하다는 현실(중국의 실제 불량률은 5~8% 정도로 예상)을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현지고객 발굴이나 자산 증가 등의 측면에서 보면 리스크 회피에 중점을 두면서 현지화 추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비단 한국계 은행만이 아니라 현재 중국에 진출한 많은 외자은행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홍콩계로 광둥성 지역을 주영업구역으로 성장한 동아은행(東亞銀行),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 HSBC 등도 소매금융 부문에서 모두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영국계 RBS은행이 법인을 청산하고 철수하였고 2007년 진출한 CITI은행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금융 부문에서만 3억 5,0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하였다. 세계적인 상업은행들조차 중국 소매금융시장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중국 내 외자은행들의 총자산은 7,000억 위안으로 시장점유율이 1.89%였으나 2013년에도 외자은행의 총자산이 2조 6,000억 위안, 시장점유율이 2%로 큰 변화가 없다. 현재까지는 외자은행이 중국 현지은행과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서 발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표 3-13.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주요은행의 경영 현황

(단위: 백만 위안, %)

	연도	총자산	자본금	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
우리은행 2007. 10. 22.	2013	19,848	2,415	34	1.41
	2014	21,482	2,433	23	0.94
	2015	22,204	2,745	7	0.25
	2016	28,596	2,814	66	2.34
신한은행 2008. 4. 30.	2013	19,087	2,189	24	1.09
	2014	23,135	2,280	92	4.03
	2015	27,565	2,326	48	2.06
	2016	33,895	2,330	63	2.70
국민은행 2012. 11. 19.	2013	6,590	2,240	▼106	적자
	2014	6,967	2,280	13	0.57
	2015	9,195	2,408	▼22	적자
	2016	10,577	2,427	17	0.70
기업은행 2009. 6. 22.	2013	11,607	2,039	57	2.79
	2014	14,910	2,099	38	1.81
	2015	18,098	2,196	▼35	적자
	2016	19,667	2,234	60	2.68
하나은행 2007. 12. 24.	2013	25,240	2,460	32	1.30
	2014	43,543	5,112	45	0.88
	2015	33,715	5,234	164	3.13
	2016	45,783	5,377	83	1.54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fss.dart.or.kr>, 검색일: 2017. 6. 30).

나. 동북 3성 진출 현황

1992년 외환은행(현재 KEB하나은행)이 동북 최초의 한국계 외자은행으로 진출한 후 2004년 하나은행 선양지점, 창춘 분행(2008년), 하얼빈 분행(2009년)이 차례로 설립되었고 이후 KB국민은행(하얼빈), 기업은행(선양), 산업은행(선양), 우리은행(선양) 순으로 동북 3성에 조직을 개설하였다. 2014년 KEB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 합병한 후 동북 3성의 거점도시(다롄·선양·창춘·하얼빈) 모든 곳에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하나은행(4개 영업점)을 제외하면 동북 3성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들은 동북 경제 중심지인 선양을 중심으로(KB국민은행은 하얼빈) 한 개의 영업점만을 운영하여 전국적 은행으로서 동북지역에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는 소극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영업 성과를 살펴볼 때 동북지역 영업점의 예금·대출 등 기반영업 실적이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은행별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부분 예금 5%(하나은행 11.8%), 대출 6%(하나은행 17.2%)를 넘지 못하면서 자체 생존을 위한 최소 규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동북지역의 발전 한계를 잘 보여주는 이런 영업 성과는 동북지역의 투자 매력을 계속 떨어뜨려 은행들이 투자를 점점 더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다. 발전 장애 요인

1) 현지은행으로서의 자리매김(positioning) 및 현지화의 한계

본질적으로 은행업은 지명도·신뢰성·안전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먼저 중국 현지고객이 자행(自行)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믿을 수 있게 폭넓은 지명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계 은행은 지명도 제고를 위한 광고·선전 활동이 지극히 미미하다. 게다가 작은 현(縣)급 지방은행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협소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불편함, 적은 자본금과 시스템 부족에 기인

한 다양한 업무처리 능력 및 제공 서비스 부족, 현지은행과의 경쟁에서 외자은행으로서의 특색을 찾지 못하는 전략 부재 등으로 현지 고객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결국 일반 상업은행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해야 현지인(기업)이 한국(외자)계 은행과 거래하려는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또한 모행(母行)에서 현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지 금융 문화나 관행에 대한 이해와 각종 유관 기관과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부족하며 현지 금융제도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주도적이고 시의적절한 서비스나 상품의 개발과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KEB하나은행은 1990년대 초반부터의 오랜 중국 진출 경험을 보유한 외환은행을 합병한 후 '현지인을 통한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전 지역의 영업점 책임자를 중국인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하여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KEB하나은행도 상술한 근본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그 밖의 은행들은 아직 현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2) 중국 시스템 리스크 수용의 어려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중국은 사회주의적 특색과 정부통제력이 강한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이기에 외국기업이 중국적 문화와 거래 관행을 이해·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존하고 있다. 더불어 정책 수립과 정책 시행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지역마다 해석과 방향 등에 차이가 많다. 은행업의 경우 여신이나 투자 심사에 필수 자료인 기업의 회계나 결산 자료 등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들 간의 불투명한 거래가 많다. 또한 대외공보자료의 가공이나 회계분식 등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리스크가 많다. 그러나 한국계 은행은 이런 리스크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금융개방 정도도 글로벌 기준에 많이 부족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제무제표 보고기준(IFRS) 회계기준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 은행 자산분류(5급 분류)의 부정확성, 중앙 정부의 거시경제 지표를 맞추려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노력에서 파생되는 통계의 부정확성, 이에 대한 금융 감독 기관의 묵인과 방조 등 글로벌 기준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많은 불합리와 임의성이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계 은행이 기업의 경영, 환경, 산업, 신용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사업의 타당성·발전성·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중국적 현실과 지역, 정책, 문화적인 특색은 통제가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이므로 기준과 문화가 다른 한국계(외국계)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중국의 (국가)시스템 리스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험감수(risk taking)와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본질인 은행업에서 한국의 리스크 관리기준(한국 모행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한국계 은행들은 중국 시장에서 자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3) 엄격한 감독기관의 규제 및 관리정책

금융의 경제전반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과 공익성으로 금융이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나 중국 금융 감독 기관의 외자은행에 대한 감독은 더욱 엄격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과 자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계를 지닌 외자은행들에 전년 말 대비 대출총액 증가를 규제하는 ‘대출 총액 한도제’, 전월 평균 예금액과 비교하여 3% 이상의 예금총액변동을 제한하는 ‘예금 편리도 규제’, 운영자금의 해외 조달 한도를 제한하고 예금 자산의 75%를 넘을 수 없는 ‘예대비율 규제’ 등은 외자은행들이 현실을 극복하고 도전적인 확장을 시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1년에 1개로 제한한 분행 신설 정책, 신용카드 업무의 제한, 1가구 1주택 담보 취득의 제한, 위안화(RMB) 취급 업무 및 소매금융(retail) 업무의 자격 규제 등 한국과 많이 다른 각종 규제와 정책들을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4) 한국계 기업의 축소 및 진출 감소

중국의 원가 상승, 각종 혜택 축소, 홍색 공급망 확대 등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이 다수 이탈하고 신규 진출 기업이 감소해 한국계 은행 영업의 한 축인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에 대한 영업을 정체되고 있다. 특히 동북지역은 상대적으로 한국 진출 기업이 적고 이미 진출한 기업들의 경영 상황도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때 한국계 은행의 영업 범위 확대와 성과 획득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한국계 기업들도 자금 조달 등에서 현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현지 대형 은행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데 자금 조달의 원가율을 고려한 한국계 은행들의 엄격한 리스크 요구기준과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수익률 등은 한국계 은행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조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4. 동북지역의 국제 경제협력: 일본과 러시아의 사례

이 절에서는 동북에서의 일본·러시아의 국제경제협력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전 장과 절에서 한국과 중국 동북 3성의 경제협력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연구방법을 모두 활용했는데 이 절은 전문가 간담회, 현지조사, 문헌연구 등 정성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일본의 대동북 3성 경제협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요 선행연구와 전문가 간담회, 현지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요 국내 선행연구로 최수용(1994), 이형근, 임민경(2010)이 있다. 이들 연구는 각각 1990년대, 2000년대 일본과 동북 3성의 경제협력 현황을 분석했다. 또한 일본환동해경제연구소(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의 미무라 미쓰히로 박사를 초청하여 ‘조어도(센카쿠) 갈등 이후 최근 일본의 대중국 경제외교 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

담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동북 3성 현지조사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협력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평가를 추가하였다.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선행연구,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현지조사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의 경우 최장호 외(2016), 최영진(2013), Изотов(2011), Изотов(2014) 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들은 주로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 접경 인프라, 공동 산업단지(특구) 추진 현황과 특징,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의 최영진 교수를 초청하여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협력 성과와 한계점: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러시아 극동지역 현지 관계자들과의 개별 면담으로 입체적으로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 경제협력의 현 상황을 고찰하였다.

가. 일본

1) 특징

일본·동북 경제협력의 역사는 만주국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과거 제국주의 시기 일제가 구(舊)만주지역에서 운영하던 군수공업, 중화학공업 관련 설비는 신중국 성립 후 소련의 공업 시설로 거의 교체되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그나마 남아 있는 도로·교량도 일부 노후화된 상태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동북 3성 경제협력은 라오닝성, 특히 다롄에 특히 집중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대환동해 경제권(일본은 환일본해경제권이라고 지칭)’을 표방하며 일본, 동북 3성, 러시아 극동, 한국, 북한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경제권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동북 3성의 최대 항구도시인 다롄은 동북의 관문이자 일제 식민지 거점으로서 여러 장점을 갖고 있었기에 일본의 투자가 집중되었다(최수용 1994, p. 10).

일본의 동북 3성 경제협력에서는 민간협회인 '일·중 동북개발협회'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중 동북개발협회는 과거 만주국 시대와 연관되는 개인 및 기업들로 구성된 일본 내 민간협회로 동북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일본의 동북 3성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⁵⁶⁾ 2000년대 중후반에는 동북진흥전략의 중점 사업과 관련된 환경·에너지 효율 분야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또한 선양경제기술개발구나 훈춘 변경경제합작구 등 동북 산업단지에 일본 공단을 건설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본의 동북 3성 경험은 다롄과 랴오닝성 일부에 치우쳐 있고 지린·헤이룽장에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동북 3성의 경제가 중국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었고 정부 내에 만연한 관료주의, 복핵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 등이 있기 때문이다(미무라 미쓰히로 2017).

일본의 다수 기업이 철저히 경제적인 계산에 맞춰 중국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동북 3성 경제협력 전망은 밝지 않다.⁵⁷⁾ 산업 집적과 부품 산업의 입지, 조립 공장의 위치 등 산업적 기반, 내수 시장 규모, 일본 상품 선호도 등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동북 3성은 중국의 타 지역에 비해 매력이 낮다. 가령 내수시장의 규모, 중요 생산 거점과의 거리, 수출입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주강삼각주나 장강삼각주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미무라 미쓰히로 2017). 따라서 동북 3성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동북 경험 전망 역시 밝지 않다. 1990년대에도 일본의 동북 진출 가능성 전망이 밝지 않다고 평가되었는데(최수용 1994) 이런 평가와 전망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56) 일·중 동북개발협회의 최초 명칭은 다롄경제개발협력회이고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었으며 현재 본부는 도쿄에 있음. 일본 경제계와 중국 동북지역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일본 기업의 대동북지역 투자 촉진, 일본에서 참여하는 공단 건설 추진,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다롄의 다야오원(大窯灣) 신항 건설, 헤이룽장성의 삼강(三江)평원 개발, 지린 종합개발조사 등을 수행함. 일·중 동북개발협회는 상위 단체인 일·중 경제협회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일본의 대중 경제외교 전략과 대동북 경제외교 전략을 구분지어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이형근, 임민경(2010)을 참고할 것.

57) 일본정부의 대(對)동북지역의 주요 이슈는 과거 전쟁고아 문제, 남아 있거나 폐기된 화학무기 문제 등이 있었고 현재는 주선양 일본총영사관을 중심으로 동북지역 내 일본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중국 동북 3성과 한반도 접경지역 및 북한에 대해 동향 파악을 핵심 업무로 하고 있음.

2) 시사점

일본·동북 경제협력의 핵심 유인은 동북 자체의 경제 여건 개선 여부이다.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대외개방 역시 실제로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 일본의 대(對)동북 3성 무역, 투자 및 기타 경제 교류는 다룬을 중심으로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2010년대 전후 조어도(센카쿠)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일본의 대(對)동북 3성 경제외교 전략이나 협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미무라 미쓰히로 2017). 다시 말하면 기존의 경제협력이 낮은 수준에 불과하여 외부의 정치외교적 요인에도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향후에도 현재 수준과 비슷한 것이라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정치외교적 이슈에도 중국 비즈니스를 철저히 검토하여 한층 발전했다는 지적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일 관계의 정치적 악화에도 비즈니스와 민간을 철저히 분리해 관리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조어도(센카쿠) 문제 이후 재중국 일본 기업들 중 중국의 변화된 비즈니스 여건에 철저히 대응한 기업들이 현재 한층 중국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변모했다는 지적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⁵⁸⁾

나. 러시아

1) 특징

러시아의 대(對)동북 3성 경제협력은 주로 지린성·헤이룽장성과 러시아 극동지역 접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동북 3성은 구(舊)소련에서 전수받은 설비·기술들이 집약된 중화학 공업기지가 활발히 운영되던 대표적인 중·러 협력 지역이었다. 그러나 중소 분쟁과 중국의 개혁개방, 소련의 해체 등

58) 동북 현지조사 및 관계자 심층 면담(2017. 6).

을 겪으면서 동북지역의 중·러 경제협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헤이룽장 쉰이펀허(绥芬河)와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지린성 훈춘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구간 등 양국 접경지역에서 중소 규모의 교역이 유지되고 있을 뿐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린성·헤이룽장과 러시아 극동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중국과 러시아 각국이 동북지역과 극동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경제협력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쩌우추취(走出去)’ 전략에 따라 중국의 해외 진출이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지린성의 창지투 전략이 추진되어 동해로의 출로를 찾는 과정에서 러시아 극동, 북한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러시아 역시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아태지역과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표방하는 가운데, 러시아 극동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결실은 2000년대 후반에 산업공단, 교통 인프라 등에서 구체적인 경협 사업 추진으로 나타났다.

중·러 경협 산업공단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는 우수리스크 경제무역합작구(중·러 합작구, 俄罗斯乌苏里斯克经贸合作区)이다.⁵⁹⁾ 2006년 중국 상무부의 8대 역외 경제무역협력지구로 선정되어 추진되었고 현재도 일대일로 대표적 인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거론되고 있는 산업단지이다. 당초 이 공단은 총 3단계(1단계: 2006~08년, 18개 기업·8억 위안 유치, 2단계: 2009~10년, 26개 기업·8억 위안 유치, 3단계: 2011년 16개 기업·4억 위안)에 따라 총 60개 기업, 20억 위안(이 중 7억 위안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유치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나 현지 실태조사 결과 불과 18개 기업만이 운영되고 있고 러시아인·중국인·북한인들로 이루어진 노동자들의 단순 노동에 따른 의류가 공업이 주종이며 그마저도 사업 규모가 영세한 상황이었다(최영진 2017). 즉

59) 중국 국경 내에도 허룽변경경제협력구(和龙边境经济合作区), 쉰이펀허변경경제협력구(绥芬河边境经济合作区) 등이 운영되고 있다.

산업공단이 현재까지 발전 성과가 미미하고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4. 우수리스크 중국 산업공단

	주요 내용
정식 명칭	우수리스크 경제무역합작구(俄罗斯乌苏里斯克经贸合作区)
위치 및 규모	우수리스크 공업구(구 소련 시기 서부공업구), 규모: 2.28km ² (건물 1.63km ²)
추진 배경	·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에 따라 중·러 양국 경제협력 강화에 공감대 형성 · 2006년 중국 상무부의 8대 역외 경제무역협력지구로 선정되어 추진됨
추진 계획	· 총 3단계에 따라 기업 유치·총 60개 기업을 유치하여 총 20억 위안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음(이 중 7억 위안은 정부 지원에 따른 인프라 건설, 기업은 13억 위안) · 공단 내 생산, 가공, 상업, 물류, 창고 등 공단 설비 구축 · 생산한 상품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유럽 등지로 수출할 계획이었음
주요 산업	· 경공업, 전기기계 공업(가전, 전자), 임업 등 공업
실제 현황	· 2014년 기준 실제투자액 미화 약1억 6,600억 달러가 투자됨 · 2014년 기준 생산업체 18개 업체(의류가공·파이프·철근 등) · 현지조사 시, 러시아인, 중국·북한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음
특징	· 영세한 업체들 위주로 공단 사업이 운영되어 공단의 발전 가능성 크지 않음 · 개별 업체들의 수익 역시 영세한 편이라 외부 기업의 진입 유인이 낮은 편

자료: 비공개 간담회 자료(최영진, 2017. 6) 및 中国经济网, 「俄罗斯乌苏里斯克经贸合作区」, http://intl.ce.cn/zhuanti/2015/jwjm/oz/201511/23/t20151123_7094755.shtml(검색일: 2017. 7. 14).

한편 중·러 접경지역 경험의 또 다른 공간은 지린성 훈춘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이다. 산업공단,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 분야, 호시무역구 등이 대표적인 경험 사업이다. 산업공단으로는 훈춘 국제합작시범구(珲春国际合作示范区)가 있긴 하나 이 공단은 비단 러시아 극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한국·일본은 물론 북한과도 협력하고 있다.⁶⁰⁾ 또한 이를 중심으로 훈춘-마하린노 철도, 훈춘-블라디보스토크 고속도로, 중·러 호시무역여행구(中俄

60) 자세한 소개는 최장호 외(2016)를 참고할 것.

互市贸易旅游区) 등이 운영 혹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 극동에서 수입되는 목재·수산물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 구간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의 경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의 경협을 독려함에도 실제로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⁶¹⁾ 중·러 경제협력이 진전되지 않은 원인은 다양하다. 중국의 대(對)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투자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기대보다 상당히 적고 투자가 연해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수준도 낮다. 중국에서는 임업·수산업에 소규모로 투자하고 목재·수산물 등을 중국 국경 내로 수입·가공하여 중국 내륙에 판매하는 구조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 연해주에 큰 규모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국 측에서 대(對)러시아 경제협력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음에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역시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러시아 고위급 관료들이 대외적으로 극동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실제 극동 지역 현지 실무진 차원에서는 극동개발의 유인이 크지 않고 중앙에서의 지원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외국기업들이 러시아 자체의 극동개발 추진 의지와 잠재성에 기대어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도 실제 극동지역 관료들의 의지가 중앙 관료들과 다른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한편 중국 측은 러시아 극동 지역이 대(對)중국 경제협력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최장호 외 2016). 우선 중국의 대규모 자금이 러시아 극동에 유입되어 러시아 극동의 중국화(化)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러시아 측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막상 러시아 측이 공동 경제협력을 진행하자고 협의해도 실제 극동 지역의 관료들의 추진 의지가 낮고 러시아 극동 지역 특유의 낙후된 비즈니스 여건으로 경제협력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61) 오랜 기간 중·러 접경지역 경제협력을 연구해온 러시아 극동경제아카데미의 Izotov 박사와 경협 현황과 시사점, 전망 등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함(러시아 극동경제아카데미, 2017. 2. 10). Izotov (2011), Izotov(2014)는 Izotov박사의 중·러 변경 경제합작구를 비롯한 중러 경협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평가한 논문임(러시아어로 작성됨).

종합하면 중국 헤이룽장성·지린성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변경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양국 정부의 기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 지역의 경제적인 낙후성으로 향후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크지 않은 편이다.

2) 시사점

중국 동북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협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볼 여지가 있다.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대통령 간의 빈번한 정상 회담, 긴밀한 고위급, 중앙정부 관계에서 최상의 중·러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중·러 협력과 경제협력이 부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중·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별다른 마찰이 없다면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이고 중국 동북·러시아 극동 접경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와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2년부터 푸틴 대통령이 신동방정책과 극동개발에 대한 기치를 표방한 후 러시아 극동지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가령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연해주 선도개발구 신설, 외자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 자루비노항 개발 등 여러 개발정책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신규 정책에 대해 선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 실무 관료들과 기업인들 차원에서는 중·러 변경 경제협력에 따른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중앙에서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만큼 지원이 크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중국 동북의 접경지역이나 러시아 극동 지역 모두 낙후된 지역이라 상호 보완성이 크지도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측 담당자와 러시아 담당자 간의 상호 신뢰가 크지 않고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 번번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신뢰가 공고해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적어도 헤이룽장성·지린성과 러시아 극동지역 변경 경제협력의 발

전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 지역의 경제협력이 각 지역의 경제발전에 별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화된 경제협력으로 진전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 소결

중국 동북 3성에 대한 기존의 일본·러시아·한국의 경제협력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갖고 있다. 모두 경제협력 수준이 낮은 편이고 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어 집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다롄에 경제협력이 집중된 가운데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러시아는 헤이룽장성·지린성과 러시아 극동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은 다롄·선양·창춘·하얼빈·옌지 등 여러 지역에서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이 지역에 대해 별다른 경제외교 전략을 갖지 못하였으나 러시아는 신동방정책과 극동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 동북이 접목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일본과 러시아의 대(對)동북 3성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북방 협력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2016년 5월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는 동북 3성에서 각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전략을 접목하자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2017년 한국 신정부는 신북방정책을 수립하고 ‘동북아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동북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동북 3성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전략을 수립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대(對)중국, 동북 3성 경제협력 방향

2, 3장에서 파악한 동북의 경제·산업과 한·동북 무역, 투자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중속성장기에 동북은 중국 내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경험하고 있으며 기술 및 산업 구조 혁신도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한·동북 무역, 투자 협력도 매년 줄어들며 저점을 갱신하고 있다. 동북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은행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사드 및 북한 문제로 인한 정치적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한·동북 경제협력은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에 봉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듯이 현재 동북 경제의 침체 국면은 한국에 새로운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동북 경제의 침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2015, 2016년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 중국의 최고위급 지도자가 잇달아 동북 3성의 거점을 방문하였고 이어서 2016년 신(新) 동북진흥정책의 종합판인 13·5 규획이 제시되는 등 동북의 침체 국면 타개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 경제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는 외부와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고 한국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중국정부가 동북지역의 진정한 진흥을 희망한다면 한국 등 국제사회와의 폭넓은 협력이 필요하다. 과거 동북 진흥정책이 결국 개혁 동력을 상실한 것도 동북 특유의 폐쇄적인 구조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한국도 동북 경제협력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기존의 대(對)동북 경제협력 방식이 점차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동북이 지향하는 발전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동북이 추진하는 신(新)정책과 실제 개혁 추진 정도를 예의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협력 분야를 찾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新)북방정책 등을 새로 제시하는 가운데 단순히 동북지역만이 아닌 한반도 남북과 러시아 극동, 나아가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간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 북한 등을 단일 지역으로 분절적인 전략을 수립해왔다면 우리 정부의 새로운 기조에 따라 동북, 러시아 극동, 북한의 각 지역에 대한 동향과 협력 여건을 고찰하고 보다 큰 틀에서 조율해갈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다만 이 연구는 한국의 대(對)동북 3성 경제협력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중국의 경제·경영 환경 변화에 발맞춘 대(對)중국 협력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동북도 중국의 일부이고 중국 전반의 변화가 동북에도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속성장기의 도래, 주요 성장동력 변화, 산업 구조 고도화 등 최근 중국경제가 질적으로 변하면서 외국과의 무역·외자 유치 정책 등의 측면에서도 기존과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크게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존 대(對)중국 경제협력 접근법도 변해야 할 당위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외교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련 문제 해결에 경제 문제를 결부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과의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전이되는 현상이 상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대비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전반적인 대(對)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점검해보고 이어서 동북지역에 부합하는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대동북·대중국 무역·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다루지는 않는다. 무역·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한·중 FTA 활용, 소비재 수출 촉진, 전자상거래 활용 방안 등이 제시되어 왔다. 오히려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최근 급변하는 중국의 경제 환경에서 한국 기업·정부가 어떤 입장과 전략을 갖고 중국 진출을 고민해야 하는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 제시가 구체적인 무역·투자 전략 연구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 한국의 대(對)중국 협력 접근법 혁신

우선 중국 경제·산업 발전은 ① 전통산업의 혁신과 ② 신흥 산업의 성장으로 분리해서 각각의 협력전략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⁶²⁾ 최근 중국 내 전통 산업의 혁신과 신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신흥 서비스 산업은 빠르게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터넷+(互联网+)’ 등으로 경제 전체와 ICT와의 접목을 독려하고 있기에 향후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업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⁶³⁾

또한 한국 기업은 중국 내 경제 환경에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경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18기 4중 전회를 기점으로 ‘의법치국(依法治国, 법으로 국가를 다스림)’ 기조를 한층 강조하고 있다.⁶⁴⁾ 과거

62) 향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크고 5년 내 한국이 중국의 제1위 수입국에서 하락할 가능성 상존함. 따라서 양평섭, 박민숙(2017)는 한국의 주력 대중 수출품목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대중 수출품목의 다양화, 중국 내 새로운 수요 확대 분야에 대한 한국의 공급능력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참고자료: 양평섭, 박민숙(2017)

63)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전체 GDP의 30%를 점하고 있고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음. 중국경제는 향후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해 관련 인프라 개선, 각종 산업에 디지털 경제 접목을 추진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오종혁(2017)을 참고할 것.

64) 참고: 人民网(2014. 10. 23). ‘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四次全体会议公报’. <http://cpc.people.com.cn>

정부 당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관행적으로 해결된 많은 일이 이제는 규범에 따라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런 기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에 중국정부의 엄격해진 규범 적용에 익숙해져야 한다.

또한 여러 산업에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 환경 기준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과거 외국에서 도입하는 기술에 대한 별다른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중국은 자국에 필요한 외국 기술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 자국의 기술적 발전 수준까지 한층 높아져 외국에서 체감하는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환경 기준도 국내외 기업 모두에 점차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 내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 등을 비롯한 각종 환경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에서 환경 관련 규정을 한층 엄격하게 정비하면서 집행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 유발형 사업의 진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운영되고 있던 기업들은 중국 밖으로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도 엄격해진 환경 기준을 철저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나. 정치외교 리스크 상시 대비

대(對)중국 경제협력을 진행하면서 정치외교 리스크에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 경제의 위상 제고와 함께 대외 영향력 역시 한층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오면서 중국은 대외 정치외교안보 이슈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령 중국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수단으로 이익을 관철하려는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복잡한 한반도의 역학관계로 인한 정치외교 리스크가 대(對)중국 경제협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항시 상존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변동성도 크고 한국과 중국의 이익이 서로 다르며 한·중 관계, 미·중 관계, 동

com.cn/n/2014/1023/c64094-25896724.html, 검색일: 2017. 7. 1)

북아, 글로벌 정치에서도 다양한 정치외교 이슈별로 한·중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한 정치외교 리스크가 경제협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 한국 비즈니스 프렌들리 문화 퇴색

과거에 비해 중국 내 한국 경제주체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우호적인 성향이 퇴색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992년 수교 당시 한국은 중국에 선진적인 개발도상국이었으나 현재 중국은 세계 각국과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즉 과거에 비해 한국이 중국의 매력적인 경제협력 파트너가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 당국의 자국 산업과 기업 육성 기조 역시 한국 비즈니스 프렌들리 문화 퇴조의 중요한 이유이다. 과거 중국 시장에서 비교적 선호되던 한국 상품들은 현재 중국 기업의 상품들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중국 기업이 주도하는 신흥 분야가 계속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진출 공간 역시 협소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 한국 비즈니스 프렌들리 성향의 퇴조 현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라. 중국 전체-지역별 맞춤형 투 트랙 대응

중국 거시환경과 지역에 대해 각각의 맞춤형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각종 제도·정책 등이 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정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와 각종 변화 동향을 보다 기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 지역별로 내부화(In-frame)된 대응 역시 필수이다.⁶⁵⁾ 중국 각 지역의

집중 육성 산업과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협력에 차이가 있다. 또한 지역별 시장 규모나 특성, 기반이 되는 사회문화가 각기 달라 보다 현지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종합하자면 중국 전역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와 동향을 파악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대응하는 중국 맞춤형 투트랙 경제협력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대동북 경제협력 전략

한국의 대(對)동북 경제협력에는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최근의 사드 문제 등 정치외교 갈등이 한·중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새로운 동북진흥정책 역시 막 추진된 상황이라 성과가 충분히 나오고 있지 않다. 19기 전국대표대회 개최 이후 중국 국내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도 상존해 있는 여건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한국의 대(對)동북 3성 경제협력 역시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경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의 3단계 대(對)동북 3성 경제협력 전략을 제안한다. ‘1단계: 자강단계: 기동북 진출 기관 및 기업들의 경제협력 모델 및 플랫폼 업그레이드 및 정비’-‘2단계: 능동적 대응 단계: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성공에 따른 능동적 편승’-‘3단계: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 3성 발전 융합 단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동북 3성과 남북경협 연계’이다.

1단계 자강 단계에서는 우선 동북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관 및 기업들의

65) 자세한 내용은 월간 신용사회(2017. 7), 중한산업원 김내상 대표 인터뷰를 참고할 것(<http://www.ccksp.com/pcsite/news/view?id=411>, 검색일: 2017. 8. 1).

대(對)동북 3성 경제협력 모델 및 플랫폼을 개선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관·기업은 일본, 러시아나 그 밖의 국가에 비해 동북지역 곳곳에 비교적 많이 진출한 편이다. 또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을 포함하여 한민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경제협력 및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기진출 기관, 기업 및 인원들을 보다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 사드 문제로 인한 현재 중국 동북의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협력 분위기도 역시 필히 고려해야한다. 또한 동북진흥정책의 핵심 과제가 국유기업 개혁에 있으나 지난한 개혁 작업으로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성공 여부를 쉽사리 장담하기 어렵다. 한편 역사적으로 중국 동북 3성은 북한과의 유대감이 강한 친북 성향 지역으로 사드 문제, 한미동맹 등 정치외교안보 이슈로 한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정서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對)동북 3성 경제협력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진출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유관 기관, 기업 및 인원들은 이미 동북 각 지역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현재 동북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고 한국에 다소 비우호적인 상황으로 변한 상황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중국 경제 기조에 맞춰 기존 경제협력 방식과 플랫폼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자강(自強)'의 과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령 경제협력 주체별로 이를 적용해본다면 정부(공공기관 포함)는 중국과 동북 3성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점검해보고 과거 방식의 경제교류협력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안의 도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동북지역의 관행적인 업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진출 비즈니스와 전후방으로 연관된 신흥 육성산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며 진출 여건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2단계는 능동적 대응 단계이다. 중국 동북 3성의 대(對)한국 우호적 관계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동 연구진의 조사 결과, 중국 동북 3성에서 대(對)한국 경제협력 추진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정치외교안보 이슈로 한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입장을 갖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중국이 한·중 관계 개선 및 동북 3성의 대(對)한국 우호 입장으로 선회할 경우 한국의 대(對)동북 3성 경제협력도 한층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은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추진 과정을 면밀히 고찰하여 협력공간을 찾아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핵심 개혁 분야인 동북 소재 중앙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북에 있는 국유기업 중 중앙 국유기업은 지방 정부 소유의 국유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도 더 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 개혁이 어려운 편이다. 신(新)동북진흥전략은 중앙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동북 기업 개혁 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동북지역에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신흥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경제협력 공간을 살펴야 할 것이다. 동북지역은 중국 타 지역에 비해 신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양호하지 않다. 인프라는 물론이고 인재 유출이 고질적인 문제로 신흥 산업의 발전은 답보 상태에 있다. 만약 한국과의 경제협력으로 신흥 산업 분야를 육성할 수 있다면 동북 3성 입장에서 이러한 협력 모델을 한층 강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3단계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 3성 발전의 융합 단계이다. 한국과 동북 3성은 북한으로 인해 육로 소통이 사실상 단절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한국이 육로로 북한을 통해 동북 3성, 러시아 극동, 중국 대륙 및 유라시아로 이동할 수 있다면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신(新)동북진흥정책과 상호 접목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동북 3성과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을 범지역권으로 고려하여 각 지역의 잠재된 가능성을 집합적으로 활용할 경우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일대일로

전략 역시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을 활성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신(新)북방전략과의 정합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新)북방전략과 동북 3성 발전의 융합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가. 단기·중기 정책

1) 기존의 한국-중국 동북 경제협력 여건 점검 지원

한국의 대(對)동북 3성 경제협력의 첫걸음은 기존에 중국 동북에 진출해 있는 기관 및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다. 단기적으로 기존의 경제협력 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을 수행하고 여건이 악화되었다면 이를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진출 한국 기업에 대해 향후 대(對)동북 3성 경제협력의 지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동북 진출 한국 기업의 경영 활동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여 정치외교적 리스크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령 진출 기업들의 불투명한 내부거래를 제한하고 단위별로 건전한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IFRS 등 투명한 회계기준을 실행하며 공시제도를 더욱 규범화하여 각종 사회 기업들의 정확한 정보 공개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한다. 중국 동북지역의 변화된 규율·규정 등 일련의 기준이 있다면 관련 기관 관계자 혹은 베이징·상하이 등 발전된 지역의 전문가들과의 심층 간담회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책적으로 대(對)중국 동북 3성의 투자환경 변화 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역시 있을 수 있다. 가령 비즈니스 전문 자문 업체들의 멘토링 시스템을 지원하여 현재 동북 소재 기업이 사업 운영 방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북지역 내 신흥 산업과 기존의 한국 진출 기업 간 매칭 시스템을 보

다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 전반에 온라인·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 경제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동북지역 내 신흥 기업들과 한국의 관련 분야 기업들의 매칭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동북에서 선(先)제시한 한·중 국제협력 플랫폼을 한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점차 자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과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고 있고 중국 동북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동북에서 대(對)한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조성하고 있고⁶⁶⁾ 창춘 중·한 국제합작시범구 등은 최근 중국 동북 지방정부 차원에서 새로 제시한 대표적인 국제 경제협력 플랫폼 중 하나이다. 중·한 국제합작시범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소·창업기업들이 ICT를 기반으로 하여 협력할 수 있는 일종의 신개념 경제협력 플랫폼이다.⁶⁷⁾ 따라서 한국-중국 동북 3성 디지털 경제 분야의 창업 지원을 위한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한중 국제합작시범구 등을 인큐베이터로 하여 육성하는 방안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2) 기존 경제교류협력 플랫폼의 심화 구축 및 업그레이드

한국과 동북 3성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다층적 경제교류협력 플랫폼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간 한국의 기관, 기업 및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동북 3성의 다양한 주체들과 다층적인 경제교류협력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한·중 정부가 개최하는 ‘한국과 동북 3성 경제협력포럼’은 대표적인 교류협력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동북 3성 경제협력포럼’과 각종 경제교류협력 플랫폼은 형

66) 헤이룽장성에서 한·중 그래핀 산업단지 조성 등을 논의하는 등 특정 산업 분야와 관련한 한·중 시범구 조성 논의 역시 참고해볼 수 있다.

67) 다만 아직 개념만 제시되어 실질적인 추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긴 하나 중국 측에서 선(先)제시한 개념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지린성 및 중국 동북, 동북아 등 보다 넓은 지역을 포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중한산업원 발표자료(2017. 5. 23) 참고.

식적인 교류만 있고 실질적인 성과는 빈약하다는 평가가 있다.⁶⁸⁾ 즉 기존의 플랫폼이 양측의 상호 이익 실현의 '장(場)'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료 주의적 성향이 짙은 동북지역의 관(官) 주도 플랫폼은 형식에 치중하는 반면 중국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어 있는 민(民) 주도 플랫폼은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논의되었음에도 재원 문제나 구성원들의 지속적 참여가 어려워 진일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플랫폼을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제안한다. 관(官)과 민(民)에서 각기 주도하던 교류협력 플랫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민간 플랫폼이 주도하고 정부 당국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 플랫폼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발굴된다면 정부 측에서 이를 심사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중 동북경제협력협회' 등 1.5트랙의 반관반민 조직을 구성하여⁶⁹⁾ 실제 경제협력 성과 도출을 목표로 운영한다. 필요한 운영 자금의 경우 양국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협회가 추진하는 동북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3) 신(新)동북진흥전략 촉진 한·중 동북금융협력

신(新)동북진흥정책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한·중 동북 금융협력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한국 금융기업의 대(對)동북지역 진출이 아니라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윤희유 역할의 재원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방식의 금융협력을 의미한다.⁷⁰⁾

신(新)동북진흥정책이 수립되어 발표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중

68) 동북 현지 관계자 면담(2017. 6. 26~30).

69) 한·중 동북경제협력위원회는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1/0200000000AKR20170821046500002.HTML?input=1195m>, 검색일 2017. 8. 21) 참고.

70) 단 금융협력을 위해서는 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수단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할 것이다.

양 국유기업 개혁과 동시에 신항 산업 육성 과정에서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핵심 개혁조치인 대형 중앙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투자 기회 모색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동북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NPL)과 상업채권들의 불량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의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성 자산관리회사(AMC)들의 설립을 유도하고 있는바, 부실채권 처리와 불량자산 유동화 등에 경험이 많은 한국 자산관리회사나 금융기관들의 합작 진출방안 역시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중앙에서 조성한 '동북진흥기금'과 유사한 펀드를 운용하여 중국 동북지역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는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에 한국정부와 중국 동북 지방정부의 신뢰 관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형성될 경우에 추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중국 동북 민관협력(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아직 현재는 중국 동북의 PPP 사업의 수익성이나 사업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제도적으로도 미비한 상태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PPP 사업을 단순히 인프라 건설에 하나의 재원조달 방식을 차용했다는 의미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 사회 전반에 혼합소유제를 도입하는 핵심 수단으로 하나로 PPP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동북의 PPP 사업 제도 역시 점차 정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령 한국에서 전략적으로 북·중 접경지역 인프라 중 PPP 모델을 통한 투자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⁷¹⁾

71) 본 연구의 보론에 동북 3성 PPP 사업 현황, 전망, 한국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4) '동북경제 연구센터(혹은 협의회)' 설치를 통한 동북경제 모니터링 강화

한국과 중국 동북 3성의 경제협력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동북경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그룹이 필요하다. 이는 그간 대(對)중국 동북 3성 경제협력 연구 성과와 네트워크가 꽤 축적되어 있음에도 각기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관리 및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가령 '(가칭) 동북경제 연구센터(혹은 협의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동북경제 동향을 파악하고,⁷²⁾ 이러한 정보를 관련 기업 및 기관들에 제공하여 경제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5) 협력 가능한 세부산업 검토

중국 동북지역에서 집중 육성하는 신흥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산업은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중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가) 농업 및 농산물 가공: 동북지역은 중국 최대의 곡창지역으로 옥수수·대두·쌀 등의 생산량이 많으며 농업기술이 비교적 발달해 있다. 국가전략상으로도 식량산업은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발전된 농업이나 양식가공 기술을 가지고 진출을 모색해볼 수 있다.

나) 인프라 분야(교통·에너지·정보 인프라): 동북 3성의 PPP 프로젝트 중 70% 이상이 도시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운수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는 한국의 많은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방정부와 직접적인 투자협작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 사회 서비스(양로사업, 보안 업체, 의료): 중국의 인구 노령화는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1자녀 정책의 장기 실행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생

72) 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이나 산업은행·기업은행·KOTRA·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기존에 동북 3성의 경제 동향을 점검해온 기관에서 확대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활과 노후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실버산업 관련 업종 및 업체들에 한국과 유사한 사회문화를 갖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사회서비스 분야 비즈니스를 접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 가령 연변 등 한국 언어 사회문화가 강한 지역에서 양로사업, 헬스케어 사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다.

라) 제약, 의료업: 동북 3성은 전통적으로 약재 생산량이 많고 제약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다. 중국 내 인삼과 녹용의 최대 생산지이며 대형 제약 업체가 많은 지역이므로 한국인들과 유사한 체질을 갖고 있고 약에 대한 인식과 건강에 대한 문화가 유사한 이 지역에서 제약 업종의 협력 가능성이 큰 편이다. 또한 동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준과 미발견된 의료기관, 의료기술 등으로 발달된 의료 기술과 높은 서비스 수준을 보유한 한국의 의료사업자들과 협력할 가능성도 높다.

나. 장기 정책

1) 남·북·중 협력을 통한 북한 공동 개발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한국의 대(對)북 경제협력이 가능해질 경우 한국은 중국 동북 3성 경제협력 주체들과 공동 북한개발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미 동북 3성의 다수의 기업들은 북한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장기간의 대북 비즈니스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된다 할지라도 중국 동북 3성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대북 사업 리스크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 개발의 필요 재원을 중국 동북 3성의 중국 측과도 분담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북한 내 인프라 구축 사업, 자원개발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이 있다. 우선 북한의 대다수의 경제성·사회성 인프라가 낙후된 가운데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중 협력으로 중국 동북 3성과 한반도 북부의 평안북도·함경북도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개선 작업부터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나선특구의 현대화 작업 및 인프라 정비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북한 자원개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동북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협력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가령 동북 3성 기업 중 북한과 신뢰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과 광물 공동개발, 합작 회사 설립 및 운용 과정에서의 지분투자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에너지 사업 역시 중국 동북 3성의 대(對)북 에너지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구조를 고려해볼 수 있다. 가령 훈춘의 대북 송전 모델을 참고하여 중국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에너지를 보내고 이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사업 모델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사업의 북한 내 진출이 본격화되면 북한 내 에너지 사업을 위한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과 중국 동북 3성 관계 기업이 공동 진출하는 방안 역시 시도해볼 수 있다.

2) 한국의 대(對)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을 위한 교두보 정책

남북간 육로소통이 보다 자유로워지면 동북 3성은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을 육로로 진출하는 아태지역의 관문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산업의 재편과 관련 인프라의 재정비 과정에서 한·중 공동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현재 중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한국이 동북 3성을 연결고리로 협력해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동북 3성의 일대일로 관련 정책의 핵심은 북방지역으로의 진출이고 중·몽·러 경제회랑은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육로로 동북 3성과 연결된다면 중·몽·러 경제회랑을 한국까지 연장하여 유라시아 고속철도망을 구축한다든지 동북아 경제회랑을 신설·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⁷³⁾

산업의 경우 남북의 정치적인 관계와 북한의 개방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

73) 동북아경제회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원동욱 외(2015), 홍면기 외(2017)를 참고할 것.

어 있기는 하겠으나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개방에 따라 기존에 한국과 중국 타 지역에 있었던 산업들 역시 중국 동북 3성에 입지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단순 임가공산업들은 남북관계 개선 초기부터 동북 3성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환황해-압록강·환동해-두만강 국제관광지대

남북관계 개선 시 중국 동북 3성과 북한-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관광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환황해 지역과 두만강 유역 중심의 환동해 지역이 핵심 대상이 될 수 있다.

환황해권의 경우 랴오닝성 선양-다롄-단둥-북한 신의주-평양-개성-한국 서울-광주로 연결되는 국제관광벨트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다. 관광 인프라 건설을 비롯하여 각종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 정합성을 거치면서 북한의 관광 제도 등을 현대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환황해 한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랴오닝에서 허베이, 산둥, 장쑤, 상하이까지 연결되는 광역 환황해 국제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방안 역시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환동해권의 경우 두만강을 위시한 한국, 중국 동북 3성, 북한, 러시아 극동 등 보다 다자적인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관광지대 구축이 가능하다.⁷⁴⁾ 중국 측은 중국·러시아·북한 3국 접경지역인 훈춘의 방천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관광지대의 초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방천 부두에서 여행객이 승선하여 러시아 극동 연해 지역과 북한 나선 연해 지역을 유람하는 단순 유람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를 보다 발전시켜 단기·중기에는 중·북·러 3국 간 초국경 관광에 한국이 참여하는 상품을 개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국 여행객의 부분적인 북한 관광이 가능해질 경우 두만강 국제관광을 중심으로 환동해권 국제관광벨트로 확대해가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74) 이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D)이나 중국, 한국 연구기관에서 두만강국제관광지대 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4) 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산업벨트 구축⁷⁵⁾

초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통일 단계로 진입할 경우 한반도 북방지역에 초국경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방안 역시 구상해볼 수 있다. 비록 통일 이후 한반도 북방지역에 초국경 산업 클러스트 구축이 실제로 추진 가능할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통일 이후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와 동북 3성, 러시아 극동을 아우르는 산업협력을 구상해볼 필요성이 있다.

한반도와 동북 3성, 러시아 극동을 아우르는 3대 초국경 산업벨트의 경우
① 랴오닝 선양-단둥-북한 신의주 벨트 ② 지린 창춘-엔지-훈춘-러시아 극동 자루비노/북한 나선 벨트 ③ 헤이룽장의 하얼빈-쑤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 산업벨트를 구상해볼 수 있다.

① 랴오닝 선양-단둥-북한 신의주 벨트에서는 단둥과 신의주의 중·북 접경 지역에 섬유 의류 및 의류제조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하고 선양 등 내륙 거점에는 첨단장비제조 클러스트가 입지할 수 있다고 구상하였다. ② 지린 창춘-엔지-훈춘-러시아 극동 자루비노/북한 나선 벨트는 엔지-훈춘-러시아극동/북한 나선의 중·러, 중·북 접경지역에는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산업협력단지를 구축하고 창춘의 내륙 거점에는 바이오 산업 클러스트와 운송장비 산업 클러스트를 제안하였다. ③ 헤이룽장의 하얼빈-쑤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 벨트에서는 쑤이펀허와 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의 중·러 접경지역에 농수산물 가공 및 식품가공 산업협력단지, 목재가공 산업협력단지, 석유화학 산업협력단지 등을 조성하고 하얼빈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75) 국토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진은 공동으로 한반도 통일 이후 중국 동북과 러시아 극동 등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미래형 산업을 제안하였다. 초국경 산업벨트에 대한 정책 구상은 이 현주, 이상준, 이백진(2016)을 참고할 것.

제5장 | 결론

이 연구는 동북지역의 경제적·정책적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동북·대중국 진출전략을 새롭게 제안하여 한국정부의 신북방정책 구체화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동북의 거시경제, 산업 구조, 무역구조, 한국·동북의 무역 및 투자 상황을 각종 데이터 분석으로 파악하고 「동북진흥 13·5」 등 신동북진흥전략 정책을 문헌연구, 전문가 면담, 정책협의회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동북지역 진출 기업(은행 포함)의 경영상황을 기업인 심층면담, 재무제표 분석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파악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속성장기 동북지역에 대한 한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새롭게 도출하고자 하였다.

2·3장에서 살펴본 대로 중속성장 혹은 신동북현상이 본격화한 2014년 이후 발생한 동북 3성의 경제적 침체는 중국 타 지역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정부에서 제시한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게 낙관하기 어렵다. 동시에 한국과 동북 간의 무역, 투자, 경제교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중 간에 정치외교적인 긴장까지 고조되면서 한국의 대동북 경제협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대(對)동북 경제협력 유인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한·동북 협력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동북 협력전략을 제시하기 전에 대(對)중국 협력 접근법부터 혁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동북도 중국의 일부이기에 중국 전체의 변화가 동북에도 적용된다. 우선 한국은 중국 경제의 신흥 성장 분야에 대해 협력의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변화된 중국경제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보다 높아진 여러 산업의 기술적 기준, 환경적 기준도 유념해야 한다.

한편 향후 경제협력이 한·중 간의 정치 외교적 갈등에 언제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보다 한국 비즈니스에 대한 현지의 우호적인 인식이 퇴색했다는 점도 받아들여야 한다. 끝으로 대(對)중국 전략과 함께 중국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실천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대동북 경제협력 전략의 주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자강): 기동북 진출 기관 및 기업들의 경제협력 모델 및 플랫폼 혁신 및 정비’, ‘2단계(능동적 대응):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전개에 따른 능동적 편승’, ‘3단계(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 3성 발전 융합):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동북 3성과 남북경협 연계’로 나누었다. 단계별 전략에 기반을 두고 아래와 같은 세부 정책들을 강구했다.

단기적으로 대동북 경제협력의 우선 과제는 기존에 중국 동북에 진출해 있는 기관 및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대(對)중국 동북 3성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고안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 신동북진흥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북지역 내 신흥 성장 산업과 한국 진출 기업 간의 매칭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 당국에서 이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교류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아울러 신동북진흥전략 촉진을 위한 한·중 동북 금융협력을 모색하고 동북경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연구센터(혹은 협의회)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이후 한국-동북 3성의 육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보다 광역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남·북·중 협력을 통한 북한 공동 개발 방안, 동북지역을 한국의 대(對)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을 위한 교두보로 상정하여 협력

전략을 구상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발맞추어 환황해 지역과 환동해 지역에 각각 압록강·두만강 국제관광지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 후에는 한반도 북방지역에 초국경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작업도 시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은 동북경제가 침체되고 한·동북 경제협력이 난항에 빠졌으며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나 중국의 신동북진흥정책·일대일로 구상이 발표되고 있고 동북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 또한 동북은 한반도·러시아·몽골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요 접경 지역으로 미래 통일 한반도 구상을 위해서도 쉽게 협력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즉 현재 동북지역의 경제적 침체에도 한국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협력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물론 국익에 기반을 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의 신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고 한국-EAEU FTA를 추진하면서 에너지와 인프라 협력을 통한 한반도·유라시아의 연계성(connectivity)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다.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은 궁극적으로 무역, 투자, 산업 협력으로 이어져 역내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과거처럼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국제협력으로 나아가려면 충실한 지역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대동북 경제협력 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제안한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본 연구는 한국과 동북의 새로운 경제협력이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 동북아 지역에 어떠한 통합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찰하지 못했다. 또한 현재 난항에 빠져 있는 동북과의 무역·투자 협력을 품목별·분야별로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분석도 요구된다. 변화하는 글로벌 및 동북아 가치사슬에 부합하는 한국과 동북 3성의 신흥 산업 협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이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북방전략이 보다 구체화되면 중국 동북과 어떤 분야별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청와대.
- 김부용, 임민경. 2012.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동북 3성」. 『KIEP 중국 성별동향브리핑』, 제12-1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3.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10년 평가와 전망」. 『KIEP 중국성별동향브리핑』, 제13-0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시중. 2016.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률 가능성 평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필수. 2014. 「'3차 동북현상'의 특징과 시사점」. VIP 리포트 14-5(통권 556호), 현대경제연구원.
- 김천규, 이상준, 임영태, 이백진, 이진민. 2014. 「동북아 평화변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2017. 「최근 중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추진 현황 및 평가와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제17-01호.
- 양평섭, 박민숙. 2017.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 오종혁. 2017. 「중국 디지털 경제발전의 특징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7-1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문형, 김갑수, 박중구. 2007. 「한중일 제조업의 기술 수준별 경쟁과 협력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 이문형 외. 2015.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 산업별 진출 전략: 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 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산업연구원.
- 이상훈, 허유미. 2016a.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동북지역」. 『지역 기초자료』, 제16-0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6b. 「중국의 지역별 산업고도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랴오닝성」. 『지역 기초자료』, 제16-10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상훈, 허유미, 최지원. 2015. 「중국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랴오닝성」. 『중국

- 권역별 성별기초자료』, 제15-0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상준, 정여천, 김의준, 이백진, 이현주, 배은지. 2015. 「한반도 북방지역 미래 종합 발전 기본구상」. 『국토연구원』.
- 이현주, 이상준, 이백진. 2016. 「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산업벨트 구상 연구」. 국토연구원.
- 이현주, 이백진, 어은주, 김원배, 송쿠이. 2016.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이형근, 임민경. 2010. 「중국 동북지역과 일본 간 경제협력체널의 현황 및 시사점」. 『중국성별동향브리핑』, 제10-2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수호, 김준영, 박종상, 안국산, 박일봉. 2017.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 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연구자료 17-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원동욱, 강승호, 이홍규, 김창도. 2013.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연구보고서 13-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원동욱, 성원용, 김재관, 백준기. 2015.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전략지역심층연구 15-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윤미. 2016. 「중국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위기 요인 진단」. *INChinaBrief*, Vol. 324. 인천발전연구원.
- 제성훈, 나희승, 최필수. 2016.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전략지역심층연구 16-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2010.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1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진병진. 2008.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추진성과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48집.
- 최수용. 1994. 『日本の中國 東北3省 進出現況과 展望』. 정책자료 94-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영진. 2013.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환동해권 진출의 교두보: 훈춘과 쉰이펀허 통상구의 비교 연구」. 『중소연구』, 제37권 제1호.
- 최장호, 이보람, 김준영, 张慧智, 林英爰, 王箫轲. 2016.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자원조달: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16-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지원. 2017. 「중국 동북진흥정책 평가 및 신정책 방향 분석」. 『지역 기초자료』, 제 17-0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허 욱. 2016. 「중국정부의 민간자본 합작모델의 법률현황과 전망」.
- 홍면기, 송규진, 원동욱, 박동훈, 주용하오, 최영진, 김보라, 이송림. 2017. 『중국 동북 지역과 환동해지역의 관계성』.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중문 자료]

- 国家发展改革委. 2016. 「推进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三年滚动实施方案(2016-2018年)」.
- 国家发展改革委. 2011. 「东北振兴“十二五”规划」.
- _____. 2016. 「东北振兴“十三五”规划」.
- 国家发展改革委, 科技部, 人力资源社会保障部, 中科院. 2015. 「关于促进东北老工业基地创新创业发展打造竞争新优势的实施意见」.
- 国务院. 2016a. 「中国(辽宁)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 _____. 2016b. 「关于深入推进实施新一轮东北振兴战略加快推动东北地区经济企稳向好若干重要举措的意见」.
- _____. 2014. 「关于近期支持东北振兴若干重大政策举措的意见」.
- 上证观察家. 2017. 「求解东北投融资困局」. (1. 10)
- 上海证券报. 2017. 「东北首家民营银行昨开业」. (5.17)
- 张楠, 胡冰. 2013. 「中国图们江区域珲春国际合作示范区发展现状以及问题研究」. 《经济视角: 上》.
- 中共辽宁省委. 2015. 「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 中共中央, 国务院. 2016. 「关于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
- 华尔街见闻. 2016. 「靠什么拯救东北经济? 靠投资? 靠国企?」. (10. 27)

[영문 자료]

- The diplomat. 2017. “Can Russia Save Northeast China’s Economy?” (4. 8)

[노문 자료]

- ИЗОТОВ. 2011. “Cross-border cooperation as an object of scientific research.” *Ойкумена*, No. 4. (러시아어)
- _____. 2014. “The Problems of Economic Interaction between Neighboring Regions of Russia and China.” *Regionalistica[Regionalistics]*, Vol. 1, No. 1. (러시아어)

[온라인 및 통계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http://fss.dart.or.kr>(검색일: 2017. 6. 20, 30).
- 길림신문. 2017. 「연변 전국 10대 피서 삼림관광지로」. (6. 21). http://www.jlcnxw.com.cn/travel/content/2017-06/21/content_188424.htm(검색일: 2017. 7. 30).
- 매일경제뉴스. 2016. 「효자상품 PX 공급과잉에 빠지나... 국내 유희업체수출타격」. (12. 25). <http://news.mk.co.kr/newsRead.php?no=890105&year=2016>(검색일: 2017. 7. 20).
- 매일경제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931&cid=43659&categoryId=43659>(검색일: 2017. 7. 20).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stats.koreawexim.go.kr(검색일: 2017. 7. 20).
- 월간 『신용사회』. 2017. 중한산업원 김내상 대표 인터뷰. <http://www.ccksp.com/pcsite/news/view?id=411>(검색일: 2017. 8. 1).
- 연합뉴스. 2017. 「유라시아로 가자... 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8. 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1/0200000000AKR20170821046500002.HTML?input=1195m>(검색일: 2017. 8. 21).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7. 4, 20).
-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4946&cid=42107&categoryId=42107>(검색일: 2017. 7. 20).
- 瞭望. 2015. 「东北振兴再出发」. (11. 20). http://mp.weixin.qq.com/s?__biz=MjM5NzUzNjE2MA==&mid=400871396&idx=2&sn=39543f2dfef24002f1ca2c4ae28e79a&scene=21#wechat_redirect(검색일: 2017. 6. 13).
- _____. 2016a. 「政策再发力, 东北经济能否走出艰难岁月」. (8. 23). http://mp.weixin.qq.com/s?__biz=MjM5NzUzNjE2MA==&mid=2652111599&idx=1&sn=88fa6edd8f9135342516b3e6af48baab&scene=21#wechat_redirect(검색일: 2017. 6. 13).
- _____. 2016b. 「东北振兴遭遇这“两大流失”」. (11. 22). http://mp.weixin.qq.com/s?__biz=MjM5NzUzNjE2MA==&mid=2652114315&idx=1&sn=63ff8eec03dfa586d61015cd4174eae4&chksm=bd3825448a4fac525133993739aec847c48cb5d7abdcad1a31aff171aae4d0c3fd36813e0ccc&scene=21#wechat_redirect(검색일: 2017. 6. 13).
- 人民网. 2014. 「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四次全体会议公报」. (10. 23).

- <http://cpc.people.com.cn/n/2014/1023/c64094-25896724.html>
(검색일: 2017. 7. 1).
- 全国省市PPP情况分析系列报告, 中國PPP服務平台. <http://www.chinapppp.cn>
(검색일: 2017. 5. 1).
- 中国经济网. 「俄罗斯乌苏里斯克经贸合作区」. http://intl.ce.cn/zhuanti/2015/jwjm/oz/201511/23/t20151123_7094755.shtml(검색일: 2017. 7. 14).
- 中华全国工商业联合会. 2016. 「2016中国民营企业500强榜单」. http://www.acfic.org.cn/web/c_000000010003000100010002/d_46979.htm(검색일: 2017. 8. 2).
- 랴오닝성 통계국. <http://www.ln.stats.gov.cn>(검색일: 2017. 7. 13).
- 지린성 통계국. <http://tjj.jl.gov.cn>(검색일: 2017. 7. 13).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검색일: 2017. 7. 4, 20).
- 헤이룽장성 통계국. <http://www.hlj.stats.gov.cn>(검색일: 2017. 7. 13, 24).
CEIC(검색일: 2017. 7. 10, 13, 24, 26).
- CNKI. 『중국공업통계연감』. <http://tongji.oversea.cnki.net>(검색일: 2017. 8. 10).

[세미나 자료]

- 최영진. 2017.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협력 성과와 한계점: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6. 14). 비공개 간담회.
- 미무라 미쓰히로. 2017. 「조어도(센카쿠) 갈등 이후 최근 일본의 대중국 경제외교 전략 추진현황과 시사점: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6. 14)
- 중한산업원. 2017. 「중한국제합작시범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 (5. 23)

[인터뷰 자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동북진흥사 관계자 인터뷰(2017. 6. 28).
- 중국사회과학원 공업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7. 6. 30).
- 동북 현지 관계자 인터뷰(2017. 6. 28).
- 러시아 극동경제아카데미 Izotov 박사 인터뷰(2017. 2. 10).

1. 중국 PPP 사업의 개황

1980년대부터 발전한 PPP 사업모델은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건설 영역에서 정부-민간의 장기적인 합작관계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정부의 부담을 줄여서 프로젝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중국도 2014년 재정부의 ‘PPP 모델의 확대 운영과 관련한 통지(关于推广运用政府和社会资本合作模式有关问题的通知)’ 발표를 시작으로 신형 도시화, 일대일로, 징진지 개발 프로젝트 등 중국 전역에서 PPP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현재 PPP는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에서 약 8조 3,800 위안의 규모로 총 4,516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공공 서비스와 관련한 시정(市政) 공정, 교통, 생태 및 환경, 도시개발 등 4대 산업의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산둥·윈난·안후이·허베이성 등 상위 5개 지역이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⁷⁶⁾

중국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 기간 PPP 사업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의료·문화·교육·양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6년 10월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도 적극적인 PPP모델의 추진을 선언하였다.⁷⁷⁾ 중국정부는 장기적으로 PPP로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PPP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7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2017), 「최근 중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추진 현황 및 평가와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7-01, p. 2.

77) 허 욱(2016), 「중국정부의 민간자본 합작모델의 법률현황과 전망」, p. 46.

2. 동북 3성 PPP 현황(재정부 자료 기준)

2017년 1월 기준 동북 3성의 PPP 프로젝트 전체 건수는 692건, 총금액은 89,870억 위안이다. 전국 전체 프로젝트 건수 대비 6%, 총금액 대비 6.5% 수준이다. 그중 랴오닝성은 487건, 헤이룽장은 144건, 지린성은 61건이다.

초기 선별(识别) 단계 프로젝트가 457건, 준비(准备) 단계가 115건, 구매(采购) 단계가 41건, 집행(执行) 단계가 79건이다. 산업별로는 시정(市政) 공정이 45%, 교통운수가 12%를 차지하며 타 지역 대비 정부기초설비, 에너지, 농업 관련 프로젝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⁷⁸⁾

▷ 동북 3성의 PPP 정책 지원 문건

랴오닝성 정부는 2015년 PPP를 지원하기 위한 영도소조(TF)를 구성하여 PPP 계획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각 지역정부와 유관기관 성과평가에 PPP 평가를 포함시켰다.

- 2014년 9월: ‘정부와 사회자본 합작(PPP) 추진에 관한 문제의 통지 <关于推广运用政府和社会资本合作模式有关问题的通知>’
- 2015년 7월: ‘정부와 사회자본 합작 전문가 평가 이행 방안 <政府和社会资本合作项目专家评审暂行办法>’
- 2016년 11월: ‘정부와 사회자본 합작 프로젝트 관리 이행방법 <政府和社会资本合作项目库管理暂行办法>’

지린성 정부는 2015년 10월 PPP 관리 협조 공작조(PPP管理协调工作组)를 출범시키고 정부 PPP 정책 실행과 지방 PPP 정책 연구, PPP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협조와 지도를 주요 임무로 부여했다.

- 2016년 7월: ‘지린성 정부 PPP 프로젝트 자금관리 방법 <吉林省政府和社

78) 재정부 PPP 센터 공보 자료(全国省市PPP情况分析系列报告, 中国PPP服务平台(<http://www.chinapp.cn>), 검색일: 2017. 5. 1).

會資本合作PPP項目以獎代補資金管理 方法》

헤이룽장 정부는 2015년 재정청장을 주임으로 하는 PPP 프로젝트 지원 영도소조를 결성하고 하부조직으로 PPP 공작관리부서(办公室)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 2016년 9월: ‘헤이룽장 정부 PPP 자문기구 및 전문가 초빙 관리 방법에 대한 통지 〈黑龙江省政府和社會資本合作咨詢服務機構和專家選聘管理辦法(試行)的通知〉’
- 2016년 12월: ‘헤이룽장 2017년 정부집중구매목록 및 자금한도 표준 통지 〈黑龍江省(省級) 2017年度政府集中採購目錄和採購資金限額標準的通知〉’

▷ 동북 3성 경제 상황

2장에서 보았듯이 동북의 중심인 랴오닝성의 경우 2015년도 중국 전체 경제성장률 6.9%의 반에도 미달하는 3.0%의 성장을 기록한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전국 유일의 마이너스 성장(▼2.5%)을 기록함으로써 선박·기계·석유화학·철강 등 중공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동북의 경제 침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석유·석탄·철강 등 원자재 가격의 미회복과 생산 설비의 과잉 문제는 지속적인 산업 구조조정에도 해결이 난망하다. 수요 확대 등 거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성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보론 표 1 참고).

헤이룽장도 최근 2년간 중국 평균성장률에 미달했으며 석탄·석유·철강 산업 등 주요 산업에서 원자재 가격의 회복, 과잉 생산 시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장률 회복이 쉽지 않다. 반면 지린성은 2015년 전국 평균성장률에 미달하는 6.5%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6.9%를 달성하여 전국 평균인 6.7%를 약간 상회하였다(보론 표 1 참고).

경제 규모로 보면 중국 31개 성급 지역 중 랴오닝성은 14위, 헤이룽장은 21위, 지린성은 22위로 13.5 규획에서 계획된 많은 대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에는 독자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 또한 2016년 동북 3성 GRDP 대비 고정자산 투자도 전국 평균에 미달하여 지린성 18위, 헤이룽장 25위, 랴오닝성 28위를 기록하였다(보론 표 1 참고). 따라서 13.5 계획의 많은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PPP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는 매우 중요하다.

보론 표 1. 동북 3성의 경제 상황

구분	GRDP (억 위안, %)					인구수 (만명)	인당 GRDP (위안)	고정자산 투자 (억 위안)	고정자산 /GRDP (%)
	2015년		2016년						
	총액	성장률	총액	성장률	순위				
랴오닝	28,743	3.0%	22,037	▼2.5%	14	4,382	50,292	17,647	61.3%
지린	14,274	6.5%	14,886	6.9%	22	3,833	40,362	12,508	87.6%
헤이룽	15,083	5.7%	15,386	6.1%	21	2,753	54,073	9,884	65.5%

자료: 全国省市PPP情况分析系列报告, 中国PPP服务平台(<http://www.chinapp.com.cn>, 검색일: 2017. 5. 1).

▷ 동북 3성 정부의 예산 상황

동북 3성 각 성 정부의 2015년 일반공공예산수입을 보면 장쑤성이 8,000억, 산둥, 상하이 5,000억을 초과하는 데 비해 헤이룽장 1,265억(23위), 지린성 1,229억(24위)이며 증가율도 2% 전후로 낮다. 랴오닝성은 2,125억으로 절대규모 15위에 해당하나 1인당 일반공공예산은 전국 최하위(4,850위안) 수준이다. 동북 3성 지방정부의 부채 비율은 비교적 낮아서 공공재정수입 대비 지방채권잔액이 랴오닝성 93%, 헤이룽장 46%, 지린성 41% 수준이다. 따라서 성내 공공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보조가 주요 자금 조달 방식이 되었는데 특히 지린성과 헤이룽장은 중앙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다(보론 표 2, 3 참고).

보론 표 2. 일반예산 수입 현황(2015년)

구분	순위	일반예산수입 (억 위안)	상주인구 (만)	1인당 예산 (원)	증가율
광둥성	1	9,364	10,849	8,631	12.0%
장쑤성	2	8,028	7,976	10,065	11.0%
랴오닝성	16	2,125	4,382	4,850	▼33.4%
지린성	24	1,229	2,753	4,464	2.2%
헤이룽장	25	1,165	3,833	3,039	1.8%

자료: 全国省市PPP情况分析系列报告, 中国PPP服务平台(<http://www.chinapp.com>, 검색일: 2017. 5. 1).

보론 표 3. 지방채권 발행 현황

구분	순위	지방투자채권잔액 (억 위안)	공공재정수입	채무율 (%)
칭하이성	1	410	267	153
충칭	2	3,246	2,155	151
랴오닝성	11	1,987	2,126	93
헤이룽장	22	532	1,165	46
지린성	24	505	1,229	41
하이난성	30	92	628	15
시장성	31	9	137	12

자료: 全国省市PPP情况分析系列报告, 中国PPP服务平台(<http://www.chinapp.com>, 검색일: 2017. 5. 1).

■ 동북 3성 성별 PPP 추진 상황

PPP 프로젝트의 수량과 금액이 전국 평균 수준이며 PPP 정보를 보여주는 전용 공보 채널도 없는 등 PPP 추진 역량과 관심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 프로젝트 실행률은 전국 평균 수준이나 선별 단계의 프로젝트 수량은 비교적 많다.

▷ 랴오닝성

랴오닝성에서는 선양, 다렌, 판진, 철령 4개 시가 PPP 프로젝트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련시는 건당 투자금액이 많아 건당 평균 65억 위안이고 최대 사업은 100억 위안이다. 철령시는 가장 건수가 많으나 건당 투자금액은 적은 편이다(보론 표 4 참고).

보론 표 4. 랴오닝성 도시별 PPP 진행 상황

(단위: 억 위안)

구분	프로젝트 (1) = (2) + 3)			선별 단계 (2)		준비·구매· 집행 단계 (3)		집행 단계 (4)		실행률 =(4)/(3)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별 (%)	금액별 (%)
선양	77	1,741	30.8	43	1,225	34	515	6	39	17	7
다렌	22	1,426	25.2	3	97	19	1,329	5	173	26	13
판진	70	752	13.3	38	522	32	230	10	83	31	36
테링	107	324	5.7	105	319	2	4	2	4	100	100
무순	29	309	5.5	28	301	1	8	1	8	100	100
랴오양	23	307	5.4	14	220	9	86	6	34	66	40
차오양	34	201	3.6	26	176	8	24	1	4	12	17
호루도	52	174	3.1	47	162	5	12	4	8	80	70
잉커우	11	169	3.0	9	140	2	28	1	28	50	99
번시	41	99	1.8	39	89	2	10	2	10	100	100
단둥	19	64	1.1	4	19	6	44	0	0	0	0
안산	5	44	0.8	1	20	4	24	2	21	50	89
진저우	4	32	0.6	0	0	4	32	1	7	25	21
푸신	2	84	0.1	2	8	0	0	0	0	0	0
합계	487	5,655	100	369	3,304	128	2,350	41	423	32	18

자료: 全国省市PPP情况分析系列报告, 中国PPP服务平台(<http://www.chinapp.cn>, 검색일: 2017. 5. 1).

▷ 지린성

지린성은 계획 중인 PPP 프로젝트가 적지만 대부분 준비 단계 이상으로 실행률이 높은 상태이다. 통화시, 송원시는 이미 모든 프로젝트가 완성 단계이며 장춘시, 길림시는 건수는 많으나 실행율이 낮다. 장춘시는 17건의 프로젝트, 총금액은 500억 위안이며 현재 12개 항목(400억 위안)은 미실행 단계로 투자 규모가 비교적 큰 장춘신구 동북아물류항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가 202억 위안이다(보론 표 5 참고).

보론 표 5. 지린성 도시별 PPP 진행 상황

(단위: 억 위안)

구분	프로젝트 (1) = (2) + (3)			선별 단계 (2)		준비·구매· 집행 단계 (3)		집행 단계 (4)		실행률 =(4)/(3)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별 (%)	금액별 (%)
성 직할	1	70	5.4	0	0	1	70	0	0	0	0
창춘	17	500	38.2	5	48	12	451	5	108	41	24
쓰핑	11	224	17.2	1	25	10	199	6	126	60	63
지린	11	223	17.1	1	15	10	208	4	14	40	6
바이산	9	75	5.8	3	9	6	66	1	45	16	68
통화	2	74	5.7	0	0	2	74	2	74	100	100
송위안	6	59	4.5	0	0	5	59	5	59	100	100
창바이산	1	50	3.9	0	0	1	50	0	0	0	0
옌변	3	20	1.6	0	0	3	20	1	6	33	32
랴오위안	1	9	0.7	0	0	1	9	0	0	0	0
합계	61	1,308	100	10	98	51	1,210	24	435	47	36

자료: 全国省市PPP情况分析系列报告, 中国PPP服务平台(<http://www.chinapp.com.cn>, 검색일: 2017. 5. 1).

▷ 헤이룽장

헤이룽장은 하얼빈·다칭·무단장 등 3개 시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 PPP 프로젝트의 71.5%(건수), 78%(금액)를 차지한다. 실행률은 낮아 7개 시는 아직 실행 건이 전무하다(보론 표 6 참고).

보론 표 6. 헤이룽장 도시별 PPP 진행 상황

(단위: 억 위안)

구분	프로젝트 (1) = (2) + (3)			선별 단계 (2)		준비·구매· 집행 단계 (3)		집행 단계 (4)		실행률 =(4)/(3)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별 (%)	금액별 (%)
성 직할	2	21	1.1	0	0	2	21	0	0	0	0
하얼빈	50	1,050	51.9	30	287	20	763	4	76	20	10
다칭	26	317	15.7	24	313	2	4	1	2	50	65
무단장	27	215	10.7	17	131	10	84	0	0	0	0
완화	4	113	5.6	1	3	3	109	2	109	66	99
자무쓰	5	102	5.1	2	24	3	78	0	0	0	0
헤이헤	5	79	3.9	4	71	1	8	1	8	100	100
이춘	7	41	2.1	5	18	2	23	0	0	0	0
계서	5	28	1.4	2	7	3	21	0	0	0	0
치치하얼	7	26	1.3	3	9	4	16	3	12	75	76
허강	2	24	1.2	0	0	2	24	0	0	0	0
대싱안링	3	1	0.1	3	2	0	0	0	0	0	0
차타이허	1	0.5	0	0	0	1	0.5	0	0	0	0
합계	144	2,022	100	91	867	53	1,155	11	208	20	18

자료: 全国省市PPP情况分析系列报告, 中国PPP服务平台(<http://www.chinapp.cn>, 검색일: 2017. 5. 1).

3. 한국자본 PPP 협력 환경 및 성공의 전제 조건

공공서비스 건설 경험이 많고 환경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 수준이 중국보다 높은 한국은 중국 PPP사업의 좋은 파트너로서 환영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PPP 사업이라는 특수성과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지역적 특수성까지 고려할 때 한국의 투자자나 사업자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와 상황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① 투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 지원 필요

공공서비스 프로젝트는 사전 투자금액이 방대하고 이윤 및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며 진행 과정상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아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면밀한 계획 수립과 더불어 철저한 진행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운영 리스크를 사업구조 설계 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 발생 시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장제도들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지역적 차이나 소송 경험에 따라 법원별로 법률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판결 시 외국투자자의 입장보다는 중국 쪽 이해 당사자를 우선 고려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법적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관할 법원 등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②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수익성 보장

프로젝트 참여자나 투자자의 최고의 관심은 투자금 회수와 이윤 보장이다. 따라서 장기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담보하고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지방정부 또는 능력 있는 보증기관들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자는 한국에서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를 보장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③ 재무·회계의 투명도 확보 및 공정한 회계감사를 통한 운영 리스크 통제

프로젝트 계획, 사업 진행 및 완성, 계약 만기까지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운영 결과에 따른 공정한 이윤의 분배 등이 필요하다. 투자자금은 공정하게 사용되고 이윤은 정확히 분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회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하고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④ 프로젝트 심사능력 제고

한국과는 많이 다른 중국 내 PPP 사업의 발전성·안정성·불확실성 등을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투자를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투자자(금융기관 포함)들의 심사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장기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관여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운영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수익성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나 체질, 현지 법률 및 제도를 이해하고 한·중 투자자 간에 견고한 신뢰 구축, 각종 문제 해결, 정부 정책에 대한 관여 등을 할 수 있는 중국 PPP 분석 전문 애널리스트를 양성해야 한다.

Korea's Economic Cooperation Tasks and Strategy for Northeast China in the 13th Five-Year Plan Period

LEE Hyuntae, LEE Sanghun, KIM Junyoung, and YOON Gyusop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is historically an area of active exchange with Korea, due to its geographical proximity, language and cultural similarities, abundant natural resources, advanced level of manufacturing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expanding consumer market, and active foreign investment inflow policy. However, as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in the Northeast has continued, economic exchanges such as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Northeast China have diminished and entered the worst phase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relations. In this time of deteriorating economic relations, this study intends to seek a new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for Korea in the Northeast China region. The Northeast is not only still an attractive land of opportunity, but also an important base of coope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new North Korean policy int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is year, or the “new economic map” for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growth has been slowing since the Chinese economy entered the so-called “new normal” stage in 2013. However, in the case of the Northeast region, the common problems experienced by the Chinese economy have been exacerbated by structural problems, making it an area with the lowest growth rate. Accordingly,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a new Northeast Development Plan in 2016 that promotes system reform, restructuring, encouraging innovation, and ensuring

public welfare. In the new plan, reform and innovation are emphasized as the first priority policy task, while economic efficiency and reform, such as the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administrative systems, are carried out as well. The new development plan also emphasizes the improvement of investment environments, expansion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mixed ownership system, manufacturing innovation and advanc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n open foreign platform. Under the new development plan, the three provinces of Northeast China are expected to move away from the quantitative growth trend centered on past investments, and instead concentrate on reform and qualitative development for future marketization and efficiency.

In the midst of a severe recession in the Northeast economy, economic exchanges such as Korea-Northeast trade, investment, and local enterprise performance are also decreasing. Trade fell by an annual average of 0.86% since 2012, when medium-term growth began. Exports of major items, excluding organic chemicals, have fallen sharply, and exports are becoming dominated by single items. Investment fell to US\$770 million (US\$150 million) in the period of 2012 - 2016, far below the US\$2.69 billion (US\$540 million a year) total investment generated between 2007 and 2011. By industry, total investment in manufacturing from 2007 to 2011 was US\$11.9 billion, while the service industry recorded US\$1.37 billion. The period from 2012 to 2016 saw these investments fall by US\$650 million in manufacturing and US\$120 million in services. Overall investment has shrunk significantly regardless of industry.

The business difficulties of local companies is becoming more pronounced, with the majority of Korean companies enduring acute difficulties in their operations. This situation is caused by problems within the Northeastern provinces themselves, such as: ① lack of sensitivity to market changes and a poor business environment due to the economic structure centering on resource-oriented and heavy industries; ② small economic size compared to other regions; ③ low level of financial services and lack of financial supply to private companies; ④

randomness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at various levels, and high flexibility to simplify policy implementation, lack of standardization, and lack of transparency; ⑤ low external openness, and lack of institutional and systemic policy support by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problems of local companies have been identified as well, such as ① a lack of understanding of local culture, systems and policies (localization), ② weakening of preferential policies and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③ an increase in the cost ratio (raw material costs and labor costs), ④ decreased competitiveness due to preferential treatment of domestic enterprises and the rise of Chinese enterprises, ⑤ lack of coherence in implementation of related policies in China, ⑥ influence of external (political) problems, ⑦ difficulties in local financing due to lack of financial services, ⑧ lack of their own strategies to advance into the Chinese market. In the case of Korean banks that have entered China and Northeast China, they have shown poor performance in terms of growth potential and profitability, and displayed limitations in their development by failing to compete with local banks. The major obstacles for Korean banks to grow in the Northeast region have been: (1) difficulties in positioning and localizing as a local bank, (2) difficulty in accepting systemic risk, (3) regulations and management policies of strict supervisory institutions, and (4) the reduction of Korean companies and their entry into the market.

As such, the situation in the Northeast's economy, industry, Korea-Northeast trade, investment, and entry are all not favorable. However, China's central government is taking measures to overcome the downturn in China's Northeast economy, and the 13th Five-Year Plan, a comprehensive edition of the new Northeast Development Plan in 2016, will be introduced to overcome the recession. In addition, while the Korean government is newly introducing the "New Economic Map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new North Korean policy, the need to deeply understand the Northeast region, which is the key link between Eur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s to increase.

In light of the above, this study has divided the important tasks of the Northeast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into their respective stages.

When considering the long-term improvement of ROK-China rel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mitigating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we propose the following stages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east region. Phase 1: Innovation and maintenance of an economic cooperation model and platform of the enterprises and companies that enter the Northeast. Phase 2: Active response according to the successful achievement of the new Northeast development policy. Phase 3: Strengthening economic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Northeast province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Based on this step-by-step strategy, we have devised the following detailed policies.

In the short term, the priority task of Northeast economic cooperation is to provide the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that are already in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to create conditions for continuous economic cooperation even under the difficult circumstances.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tform that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changes in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Next, we need to revitalize the matching system between the emerging growth industries in the Northeast region and the Korean companies, which is proposed in the new Northeast Development Plan. These projects can be implemented in the form of a private-partnership exchange platform led by the private sector and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which can enhance the flexibility and efficiency. In addition, it will be possible to consider establishing a research center (or a council) to strengthen monitoring of the Northeast economy.

In the long term, after inter-Korean relations have improved and North Korea has gradually opened up, it will become possible to consider a land route between Korea and the three Northeast provinces. This would make it possible to plan a joint development strategy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and to design a cooperation strategy by utilizing the Northeast region as a bridgehead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the Eurasian region. In addition, Korea coul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Yalu and Tumen River international tourism zones in the Yellow Sea region and the Far East Sea region, respectively, in line with the Korean Peninsula New Plan. Finally, after reunification, it will become possible to construct a trans-border industrial belt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17년

- 17-01 Towards Deeper Integ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
CHOI Bo-Young and LEE Seo Young
- 17-02 APEC 경제통합 논의와 정책 시사점 / 김상겸
- 17-03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
김종덕 · 최보영 · 조문희 · 정민철
- 17-04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 임수호
· 김준영 · 박종상 · 안국산 · 박일봉
- 17-05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과 시사점 / 오운아 · 신민이 · 김미림
- 17-06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the Prospect of a
New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
LEE Hye Min and YANG Hyeoun
- 17-07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향을 중심으로 / 엄준현
- 17-08 RCEP 역내 생산 · 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 라미령
- 17-09 13·5 계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
이현태 · 이상훈 · 김준영 · 윤규섭

■ 2016년

- 16-01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
김주권
- 16-02 주유국의 대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곽성일 · 이재호
- 16-03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 방안 / 엄준현 · 손성현
· 권가원
- 16-04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 유세별
- 16-05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
박정호 · 강부균
- 16-06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 임수호 · 김준영 · 홍석기
- 16-07 원화 국제화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 이장영

- 16-08 WTO SPS 분쟁사례 연구 / 강민지
- 16-09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자원조달-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
최장호 · 김준영 · 이보람 · 张慧智 · 朴英爱 · 王箫轲
- 16-10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 이형근
- 16-11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구축을 중심으로 /
김종덕 · 최보영 · 엄준현 · 정민철
- 16-12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거래관행 변화 분석 /
이정균 · 김준영 · 임소정 · 안국산 · 미무라 미쓰히로
- 16-13 중국 지역별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청두, 우한을 중심으로 /
오종혁 · 박진희 · 김홍원

■ 2015년

- 15-01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정지현·김부용
- 15-02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임수호·최유정·홍석기
- 15-03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U.S. Monetary Policy on China's
Capital Market Stability and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Gang Jianhua, Qian Zongxin, Zhang Chao and Zhang Jiarui

■ 2014년

- 14-01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중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
오종혁·박현정
- 14-02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 강준구
- 14-03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 이호영·엄준현
- 14-04 중국의 지식산업화 분석과 시사점: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을
중심으로 / 박현정·이효진
- 14-05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나승권·홍이경
- 14-06 북극이사회의 정책동향과 시사점 / 문진영·김윤옥·서현교
- 14-07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요인과 시사점 / 고희채·최호락

이현대(李賢泰)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ht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공저, 2017)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공저, 2016) 외

이상훈(李尙勳)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sh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SOE Reform in China: Performance and Prospects”(2017)
『중국의 지역별 산업고도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베이징시』(공저, 2016) 외

김준영(金俊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중국 칭화대학교(清华大学) 국제관계학과 석사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금융학 박사과정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전 객원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전 연구원

(주)탄탄글로벌네트워크 대표이사

(現, E-Mail: tantan_global@naver.com)

저서 및 논문

『한국과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공저, 2017)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공저, 2016) 외

윤규섭(尹圭燮)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EMBA)

하나은행 동북3성 본부장

길림은행 부행장

(現, E-Mail: adagieto@naver.com)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플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유효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Korea’s Economic Cooperation Tasks and Strategy for Northeast China in the 13th Five-Year Plan Period

LEE Hyuntae, LEE Sanghun, KIM Junyoung, and YOON Gyusop

최근 중국 동북 경제가 침체되면서 한·동북 경제협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국 동북은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잇는 중요 접경 지역으로 통일한반도 구상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2017년 한국정부도 중국 동북지역과 관련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주로 에너지와 인프라 협력을 통해 한반도·유라시아의 연계성을 증진하는 방안이다. 에너지·인프라 협력은 궁극적으로 무역, 투자, 산업 협력으로 이어져 역내 경제성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정치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 국제협력으로 나아가려면 충실한 지역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제안한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가 바로 여기에 있다.



9 788932 224442

ISBN 978-89-322-2444-2
978-89-322-2064-2(세트)

정가 7,000원